

碩士學位論文

王維詩의 自然情趣와 禪趣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中國文學專攻

郭敬昱

2005年 12月

## 目 次

I. 緒 論 .....	1
II. 王維自然詩의 形成 背景 .....	4
1. 中國 山水田園詩의 發生과 形成 .....	4
2. 王維와 自然의 關係 .....	10
3. 王維와 佛敎의 關係 .....	27
III. 王維詩의 自然情趣 分析 .....	39
1. 田園景物의 適意한 情趣 .....	42
2. 山水風光의 閒靜한 情趣 .....	51
3. 自然詩 속의 畫意 .....	57
IV. 王維詩의 禪趣 分析 .....	69
1. 諸法皆空 .....	70
2. 閒靜逸致 .....	74
V. 王維詩의 自然情趣와 禪趣의 抒情的意義 .....	81
VI. 結 論 .....	93
* 主要參考文獻 .....	97
* 王維 年譜 .....	103
* 英文抄錄 .....	114

## I. 緒論

王維(A.D 701-761)는 盛唐時期의 가장 저명한 詩人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李白·杜甫 등과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山水自然의 아름다운 風光들을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사람들에 의하여 南宗畫의 始祖로 추앙 받을 만큼 繪畫에도 뛰어났다.

王維는 當時 禪宗의 지침서로 인정받고 있는 《維摩經》의 주인공 ‘摩詰’을 자신의 字로 삼고, 佛敎에 심취하여 이름 있는 여러 禪僧들과 친교를 맺었으며 佛敎의 理致와 禪趣를 自然의 아름다운 風光 속으로 끌어들이 自然의 情趣와 禪의 深奧한 思想을 자연스럽게 詩的 言語로 표현해냄으로써 ‘詩佛’이라 불리 운다. 그의 詩는 독자로 하여금 自然과 禪趣가 하나로 어우러진 幽玄深遠한 기운이 담겨진 奧妙한 境界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그의 詩를 통하여 盛唐의 士大夫 文人들의 藝術思惟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으며, 이후 中國詩畫의 새로운 風格과 표현양식의 발전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시인은 훌륭한 詩를 짓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닦아 모든 邪念을 버린 후 사물을 바라본다. 사물을 바라볼 때는 편견을 버려야 眞體를 觀照할 수 있고 意象을 體得할 수 있다. 情을 象에 실으면 境에 이르게 된다. 象에서 일어난 끊임없는 聯想은 시인의 情趣와 융화되어 ‘나’와 象을 모두 잊게 한다. 이러한 境界를 妙悟의 境界라 한다면, 宋의 嚴羽가 《滄浪詩話詩辨》에서 “詩를 論하는 것은 禪을 論하는 것과 같고(論詩如禪)”, “禪의 깨달음은 오로지 妙悟에 있으며, 詩의 깨달음 또한 妙悟에 있다(大抵禪道惟在妙悟, 詩道亦妙悟)”라고 한 것은 詩와 禪의 유사성을 강조한 것으로서 詩作과 감상이 모두 妙悟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妙悟란 원래 佛敎用語로 僧侶가 禪定에 들면서 最上乘을 쫓아 배움을 일으켜 佛法을 터득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詩의 最上の 境界를 포괄하는 비유적 用語이다. 王維는 禪理와 禪意를 도입하여 畫意로 바뀐 후 自然景物을 묘사해 냄으로써 자신의 詩 속에 妙悟의 세계를 넓혀갔다.

當時 禪의 심오하고 미묘한 禪意는 士大夫 文人들을 강하게 유혹했으며,

그들은 禪宗을 가까이하면서 禪의 高雅한 風趣를 자신들의 詩作에 加味하여 詩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였다. 또한 지식인들은 官途에 나아가기 위한 隱居의 장소로 산속 깊은 곳보다 官邊 주변의 사람 사는 농촌을 選擇하였다. 그리하여 농촌과 自然은 자연스럽게 文人 士大夫들과 관련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自然과 田園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詩的 對象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詩와 禪은 詩人들의 詩的 소재로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詩의 妙悟主義가 생겨났다. 이것이 禪의 思想이 中國詩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러한 時代的 背景과 王維가 개인적으로 사회현실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山水와 田園風光속에 나타나는 隱逸情趣는 王維詩의 주요한 특징이다. 특히 중·만년 이후의 그의 詩風은 閒靜適意한 情趣를 드러내고 있다.

세속적 다툼에서 벗어나 山水自然에 묻혀 閑寂한 생활 속에서 淸淨心을 高揚하고자 했던 詩人의 自然情趣와 在家者로서 붓다의 길을 따르고자 했던 詩人의 禪趣思想을 연구하는 것은 當時 士大夫 文人들의 문학적 사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時代의 禪思想이 詩에 끼친 영향과 더 나아가 當時 문화적 배경이었던 宗教가 社會에 끼친 경향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본 論文은 王維詩 중 自然詩와 禪趣詩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와 禪趣詩 분류는 詩作 내용상의 구분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朴三洙 《王維詩研究》의 5部類 17類型的 분류방법을 참고로 한다.<sup>1)</sup> 그러나 王維詩의 특징상 其他 題材의 작품, 예를 들면 邊塞詩나 送別詩, 唱和詩 등

1)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교중문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75-82참고.: 5部類 17類型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自然詩(78), 2. 交遊詩(174), 3. 政治詩(54), 4. 理念詩(47), 5. 其他詩(20),로 하여 5部로 나누고, 다시 各部를 17類型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17類型 가운데 본 논고에 참고가 될 自然詩와 佛理詩의 예를 보면, 1. 自然詩 78首속에 a. 田園詩(13), b. 山水詩(49), c. 行旅詩(16),로 소 분류하고, 4. 理念詩 47首속에, a. 詠懷詩(21), b. 諷刺詩(7), c. 詠史詩(5), d. 佛理詩(14),로 소 분류하고 있다.

\*( )는 해당유형의 작품수임.

에서도 山水自然의 아름다움이 묘사된 것도 있으며, 또 自然을 노래한 山水田園詩 속에서도 禪趣를 느낄 수 있는 詩들이 왕왕 서로 교차 운용되고 있는바, 본 論考에서는 이런 점을 인식하여 王維詩의 여러 類型의 작품 가운데서 自然情趣와 禪趣를 느낄 수 있는 詩들을 혼합 선별하여 論考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王維詩를 연구하는 데는 그 연구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분석 관점이 달라 질 수 있다. 종래의 王維詩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1) 王維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한 연구, 2) 王維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思想과 藝術形式에 대한 연구, 3) 王維의 주된 作品傾向을 통한 성격과 藝術性的의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제 3)항, 즉 王維의 주된 作品傾向, 특히 自然詩와 禪趣詩를 통하여 그 성격과 藝術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王維는 中國詩史에 山水田園詩派의 始祖로 알려지고 있는바, 그의 詩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中國 自然詩의 발생과 형성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先秦以後 盛唐까지 中國 自然詩의 발생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 王維詩의 예술적 성과와 그의 작품경향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當時 時代的 背景과, 王維의 自然歸隱思想과 自然詩와 연계된 그의 生活環境 및, 王維詩의 정신적 근거인 佛敎思想의 근본이념과 禪趣가 王維의 詩歌創作에 미친 영향을 각각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王維詩의 自然情趣에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田園景物의 適意한 情趣와 山水風光의 閒靜한 情趣, 또한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畫意를, 제4장에서는 王維의 禪趣思想 속에 담겨진 空觀思想인 諸法皆空과 閒靜한 情趣의 禪의 意境을, 제5장에서는 自然情趣와 禪趣속의 抒情的 意義를 각각 分析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王維詩의 底本은 陳鐵民의 《王維集校注》四冊(北京. 中華書局. 1997. 총 1399쪽)이다. 이 底本에 누락된 작품의 경우에는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 II. 王維自然詩의 形成 背景

### 1. 中國 山水田園詩의 發生과 形成

중국의 고대 詩歌에 나타나는 自然詩는 田園風物을 素材로 하는 田園詩와 山水風光을 內容으로 하는 山水詩로 각기 그 素材와 內容을 달리하며 서로 다른 갈래로 발전해 갔다. 《詩經》에서 山水가 比와 興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과 달리, 田園 풍물은 想像하고 類推하는 詩의 창작 소재로 선택되었다. 이렇듯 古代詩歌에서 農村風物을 內容으로 한 詩作은 山水 風光만을 題材로 한 詩作에 비해 훨씬 일찍 등장한다.

《詩經》 이후 山水에 대한 描寫는, 《楚辭·九歌》·〈湘君〉·〈湘夫人〉·〈山鬼〉와 《楚辭·九章》·〈涉江〉 등에 대량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나타난 自然은 단지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인격화된 것일 뿐, 독립된 詩의 소재는 아니다. 漢代에 들어와 《楚辭》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예형식인 賦<sup>2)</sup>가 창작되고, 賦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윤리적 테두리에서 탈피한 作品美를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賦의 文體는 화려한 修飾에 치중한 文辭의 美를 특징으로 삼았다. 따라서 작가의 思想이나 感情과는 무관한 形式 위주의 事物描寫 기법은 작가로 하여금 景物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七發〉, 〈上林賦〉, 〈子虛賦〉 등은 極度の 誇張과 풍부한 修飾으로 山水를 描寫하고 있지만, 어찌다 詩歌에 나타난 自然은 인물의 感情 상태를 나타내는 한 부분일 뿐 美的 探究 대상으로서의 詩의 素材는 아니었다. 建安年間に 이르러 自然詩는 曹操에 의해 〈觀滄海〉로 태어났고, 당시 曹操 3父子에 의해 일부 山水를 읊는 詩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여 중국 山水詩 형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sup>3)</sup>

後漢 末 정국의 혼란 속에 老莊 思想과 佛敎哲學을 기초로 발생한 玄學

2) 劉勰, 《文心彫龍·詮賦》, “賦也者, 受命於詩人, 拓宇於楚辭也 : 賦라는 형식은 詩人들의 작품에서 생명을 얻어, 초사에서 그 영역이 확대 되었다.”

3) 朴三洙, 〈王維自然詩 形成의 詩史的 背景〉, 영남 중국어문학회, p. 18.

思想은 兩晉에 이르러 極에 달했다. 잦은 전쟁과 권력 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사대부들로 하여금 避世 隱遁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田園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려는 풍조를 만연시켰다. 이 時代에는 漢代의 禮敎적이고 人爲적인 儒家思想이 붕괴되고 精神的 自由와 개인의 價値를 중시하며, 自然을 인간의 道德的 尺度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自然的 秩序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道家를 숭상하는 玄學의 발생을 촉진시키고 인간의 존재의식에 대한 탐구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욕구를 중시하게 했다.

문학에는 佛理와 禪機가 융합되어 문인들은 清淡으로 逍遙하고 詩와 賦는 허무를 표현하고 老·莊을 장식하는 데 치중하였다. 당시의 獨善其身<sup>4)</sup>하는 풍조는 사대부 문인들의 일반적 행태로, 뜻을 잃은 사대부 문인들은 언제든지 自然으로 돌아가 隱居하였고, 逍遙와 遊覽으로 지내는 생활의 情趣를 자신의 작품 속에 표현하였다. 魏·晉 교체기 무렵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사대부 문인들의 생명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문인들은 老·莊에 심취하고 음주와 유희를 즐기면서 허무와 玄遠을 추구함으로써 世間의 고통과 자신의 內面的 苦惱를 잊고자 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의 苦惱를 阮籍의 〈詠懷詩〉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밤은 깊고 잠 못 이루어,	夜中不能寐,
일어나 앉아 거문고를 탄다.	起坐彈鳴琴.
얇은 휘장 사의로 밝은 달은 비추고,	薄帷鑒明月,
서늘한 바람은 나의 옷깃을 스친다.	靑風吹我襟.
외로운 기러기는 들녘 밖에서 울고,	孤鴻號外野,
둥지 찾아 나는 새 북쪽 숲에서 울어댄다.	翔鳥鳴北林.
배회하며 장차 무엇을 보려하는가,	徘徊將何見,
근심어린 생각으로 홀로 마음 아프다.	憂思獨傷心.

4) 《孟子·盡心》,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은택이 百姓에게 加해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나 窮하면 그 몸을 홀로 善하게 하고 榮達하면 仁하를 겸하여 善하게 하는 것이다.”

魏·晉 交替期の 정치적 暗黒期를 背景으로 한 이 詩는 政局의 混亂으로 야기된 사회적 불안과 내부 軋轢으로 인한 무차별적 공포정치에 대하여,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 그리고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彷徨하는 모습을 느낌에 따라 표현함으로써 文體를 彫琢하지 않으며 內心的 苦痛을 사물의 情緒에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作法의 詠懷詩는 훗날 陶淵明·庾信·陳子昂·李白 등의 詩에 영향을 끼쳤다.<sup>5)</sup> 阮籍과 嵇康에서의 游仙은 玄理를 談論하는 詩體가 되었고,<sup>6)</sup> 東晉에 들어와 郭璞의 〈游仙詩〉는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道家의 말을 모아 詩를 지은 郭璞의 五言詩에는 山水描寫의 要素도 출현되었는데, 許詢과 孫綽이 차례로 그것을 본받아 더욱 숭상하고 또 三世의 說을 더하여 새로운 詩風이 만들어졌다.<sup>7)</sup> 실제로 東晉 시대에는 山水詩가 하나의 독립된 題材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일부 詩賦 중에는 山水描寫가 적지 않았으나, 초기 山水詩는 佛敎 敎理化된 玄言詩의 풍모와 별 차이가 없는 招隱詩와 游仙詩의 傳統格式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佛敎와 道敎의 相異點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田園에서 安貧樂道하는 ‘閑逸’은 山水와의 인연이 매우 깊었으나 山水詩의 급속한 발전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sup>8)</sup>

東晉 玄言詩의 흥기는 佛敎의 흥성 및 玄學과의 합류와 깊은 연관이 있다. 佛敎 敎理와 玄言이 결합한 이후 사람들은 山水에 대한 自覺的인 審美意識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차 山水描寫 成分이 성숙되면서 自然詩는 玄言詩 풍모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詩體로 형성되어갔다.<sup>9)</sup> 따라서 詩에

5) 임종욱,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범우사, 1997, p. 635.

6)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p. 18.

7) 《世說新語·文學》에 檀道鸞의 《續晉陽秋》를 인용하여, “至過江,佛理尤盛. 故郭璞五言, 始會合道家之言而韻之. 詢及太原孫綽, 轉相祖尙. 又加以三世之辭, 而詩·騷之體盡矣. 詢, 綽並爲一時文宗, 自此作者悉體之: 東晉 이후에 佛理가 더욱 성행하였다. 그래서 郭璞의 五言詩는 처음으로 道家의 말을 모아 지은 것인데, 허순과 대원·손작이 차례로 그것을 본받았으며, 또 거기에 佛敎의 三世說을 더하여 초사체의 詩賦가 끝이 났다. 허순·손작은 둘 다 당시 문단의 으뜸이어서 이로부터 작가들이 모두 그를 본받았다.”

8)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p. 21.

9) 劉勰, 《文心雕龍·明詩》, “宋初文詠體有因革莊老告退而山水方滋. : 宋初에 이르러 문학의 경향은 전대를 계승하거나 변혁을 추구하여, 노·장 詩風이 물러남을 고하자 山水 詩風이 새롭게 번성하였다.”

는 점차 山水自然에 대한 표현이 풍부해졌다.

玄言文學의 대표이며 禪詩의 始祖라 할 수 있는 孫綽의 〈遊天台山賦〉 역시 玄言의 내용을 드러내는 가운데 自然의 景物을 描寫하는 아름다운 詩句를 담고 있다.

하늘에 걸려있는 돌계단을 건너,	跨穹隆之懸磴,
만길 깎아지른 어둠에 서 있다.	臨萬丈之絕冥。
이끼 덮여 미끄러운 돌 밟고 가며,	踐莓苔之滑石,
깎아지른 듯한 절벽 푸르른 벼랑 끝을 붙잡는다.	搏壁立之翠屏。
휘늘어진 나뭇가지 긴 덩굴을 쥐고,	攬樛木之長蘿,
췌 즐기 얽혀 뻗은 줄기에 매달린다.	援葛藟之飛莖。

특히 이 詩 속에 표현되고 있는 “적성에 노을 일어 꾀대를 세우고(城霞起而建標)/폭포에 날리는 물줄기 길을 갈라놓는다(瀑布飛流以界道)”는 두 구절은 잘 알려진 名句로 이미 山水詩의 萌芽가 보이고 있다.<sup>10)</sup> 또 謝安·王羲之 등이 지은 〈蘭亭詩〉 속에도 생동감 넘치는 自然의 描寫를 찾을 수 있다. 이 시대의 山水詩는 단순히 景物을 描寫하고 理致를 설명하는 것으로 詩人의 情趣를 景物에 담아내는 詩風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

先秦이래 山水와 田園은 두 갈래의 전혀 다른 詩風이었고, 《詩經》의 田園詩에는 景物描寫가 거의 없었다. 또한 漢代에 와서도 田園에 隱居하여 살아가는 情趣를 묘사한 詩賦는 많지 않았다.

東晉에 이르러 玄言詩人들이 山水와 田園을 하나로 일치시켜 나갔다. 당시 대다수의 隱士들이 幽心絕俗한 산림에 隱居하여 ‘逍遙’, ‘閑逸’한 삶을謳歌하는 가운데 審美 대상으로서의 自然體得은 집에 있으면 田園이 되고 밖에 나가면 山水가 되었다.<sup>11)</sup> 意象이 田園에서 발생하여 山水에서 틀이 잡히고 다시 田園과 山水가 합쳐지는 理致를 터득한 것이다. 이후 謝靈運의 詩에는 玄言이 加味된 自然이 있고, 陶淵明의 詩에는 세상의 욕심을 버린 듯한 意境이 內在하여 있음은 비록 玄言詩가 自然詩 발생의 淵源

10) 임종욱 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 범우사, 1997, p. 861.

11)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p. 30.

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觸媒劑로서의 玄言의 흔적임이 분명하다.<sup>12)</sup> 따라서 晉·宋의 交替期에 陶淵明이 田園風物과 謝靈運이 山水風光을 題材로 한 田園詩와 山水詩가 동시에 출현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바탕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晉·宋사이, 즉 5세기 前後는 한 時代에서 또 다른 時代로 轉換되는 時期로 中國詩歌 發達史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겨났다.<sup>13)</sup> 自然情趣가 興起하면서 自然自體가 詩의 題材로서 吟詠의 대상이 되어, 詩의 새로운 해방이 시대가 열리고 景物에 情緒를 寄託하는 詩風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東晉의 陶淵明은 自然에 感情이 移入되는 無我之境<sup>14)</sup>의 極致를 이루어 냈다. 蘇軾은 陶淵明의 〈飲酒〉 其五,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따다, 저 멀리 앞산을 바라본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에서 “국화를 따다 앞산을 보는 것은 境과 意의 合一로, 이 句가 가장 妙味가 있다.”고 했다.<sup>15)</sup> 이는 自然이 단지 情에 의해 景을 생기게 하거나 情과 景이 부합되어 情과 文章을 일으키던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情을 山水에 移入시켜 景物을 描寫하는 시대가 到來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詩의 혁명으로 향후 중국 自然詩의 비약적 발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胡適은 “중국의 自然詩人은 陶淵明으로부터 나왔지 謝靈運에서 나오지 않았다.”<sup>16)</sup> 라고 말했던 것이다.

12) 임종욱 엮음, 《동양문학비평용어사전》, 범우사, 1997, p. 948.

13) 川勝義雄 著, 임대희 옮김, 《中國의 歷史 : 위진남북조》, 해안, 2004, p. 232.

14) 王國維《人間詞話》, “有有我之境, 有無我之境.”……“彩菊東籬下, 悠然見南山.”……“無我之境也. 有我之境, 以我觀物, 故勿皆著我之色彩. 無我之境, 以物觀物, 故不之何者爲我, 何者爲物. ……”

: “유아지경도 있고 무아지경도 있다.”……“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꽃 따다가,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이는 무아지경이다. 유아지경은 나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까닭에 사물은 모두 나의 색채를 띠게 된다. 무아지경은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을 관찰하는 까닭에 어느 것이 나이고 어느 것이 사물인지 모르게 된다.”

\* 朱光潛 著, 鄭相泓 譯, 《詩論》, 서울, 東文選, 2003, pp. 73-89. 에서 주광잠은 유아지경과 무아지경에 대하여 ‘超物之境’, ‘同物之境’이라 표현하고 왕국유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15) 蘇軾, 〈題淵明飲酒詩後〉, “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 因采菊而見南山, 境與意會, 此句最有妙處.”

16) 胡適, 《白話文學史》, “後來最著名的自然詩人如王維, 孟浩然等都出于陶而不出于謝.” p. 136.

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宋의 謝靈運은 景物에 感情을 담아내어 自然을 描寫함으로써 중국의 自然詩는 詩의 새로운 장르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六朝 시대의 自然詩는 意象이 情緒보다 풍부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모했을 뿐, 景에서 출발하여 景에 머무는 것 이외에 情緒가 景을 빌려 표현되는 예는 별로 없이 점차 단어의 彫琢과 修辭에 치중하게 되었다.

初唐의 詩人 陳子昂은 齊·梁의 詩를 “文彩의 화려함을 다투어 번거롭게 늘어놓았으나, 感興의 寄託은 전혀 없다.”<sup>17)</sup>고 개탄한 바 있다.

自然詩 발달사에서 陶淵明과 謝靈運은 늘 함께 불리어졌다. 魏·晉의 詩風이 예스럽고 소박하다면 南朝의 詩는 화려한 修飾을 追求하였다. 이러한 詩風의 차이는 바로 陶淵明과 謝靈運의 詩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陶淵明의 詩가 主觀的 情緒를 景物에 담아내어 意境이 융합되는 詩의 境界를 이루었다면, 謝靈運의 詩는 景物 하나하나 寫實的 描寫와 纖細한 언어를 사용하여 형사으로써 기교를 삼는(巧以形似) 境地에 이르고자 하였다.<sup>18)</sup> 謝靈運 이후 山水詩는 謝朓에 의해 圓熟美를 이루었고 謝朓는 詩作에 聲律과 對偶에 치중하여 沈約과 함께 永明體文學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謝朓의 詩는 謝靈運에 비해 한 발 앞서 있지만, 鍾嶸은 《詩品》에서 “미세함이 세밀함을 해치고,…… 詩意는 예리하나 재주는 빈약하다.”고 비평하고 있다.<sup>19)</sup> 당시 田園詩와 山水詩는 여전히 초기 단계로 뚜렷한 발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陶淵明과 謝靈運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던 自然詩는 初唐에 이르러 王績이 불씨가 되고 張九齡이 불꽃이 되어 盛唐에 이르러 孟浩然과 王維에 의해 타오르게 되었다.

盛唐 天寶 年間に 孟浩然과 王維의 영향을 받아 田園과 山水는 하나인 自然으로 認識되었다. 王維 이전의 自然詩는 대체로 장강 양안과 영남 지방의 自然을 읊은 詩였다. 이후 王維가 북방에 隱居하며 우수한 自然詩들을 창작하기 시작하면서 북방의 山水田園詩가 이채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山水詩가 새로운 類派로 자리 잡게 되었고, 山水田園詩派가 탄생

17) 《與東方左史糾修竹》篇序, “齊梁間詩, 彩麗競繁, 而興寄都絕, 每以永歎.”

18)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p. 77.

19) 鍾嶸, 《詩品》, 〈齊吏部謝朓詩〉, “微傷細密……此意銳而才弱也.”

되어 中國詩의 새로운 詩風이 만들어졌다.<sup>20)</sup> 孟浩然이 王維보다 年長者로 出發線上에서 비록 앞질렀다 하여도 陶淵明과 謝靈運의 詩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중국 自然詩를 최고의 경지로 성숙시킨 것은 王維라 할 것이다. 따라서 王維를 성당 山水田園詩과의 대표 詩人이라고 해도 무난하다 하겠다.

## 2. 王維와 自然의 관계

작가의 창작 의욕과 작품 경향은 작가의 개성과 성품에 따라 다르지만, 그 작품성향은 當時의 時代的 背景과 生活環境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한 작가의 작품과 사상을 考察하기 위해서 작가의 생존 시대의 배경과 生活環境을 우선 이해해야<sup>21)</sup>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當時의 文化的 背景위에 놓았을 때라야 비로소 그 藝術의 奧妙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22)</sup>

王維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음악과 繪畫에 재능이 있었으며 詩를 잘 지어 귀족 왕공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宋代 張戒은 《歲寒堂詩話》 卷上에서, “王維는 심정이 담백하고, 본래 佛學을 배우고 또 그림을 잘 그려, 세상에 나와서는 岐王, 薛王 등 여러 왕과 귀족들과 어울리고, 산림에 돌아가서는 輞川의 경치를 실컷 즐겼으니, 그의 詩는 富貴와 山林에 있어서 모두 그 興趣를 얻었다.”<sup>23)</sup>라고 함으로써 王維가 세속 생활과 산림 隱居 생활을 모두 흡족하게 지냈음을 말하고 있다.

王維는 불행하게도 일찍 아버지를 여위어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맏아들로 홀어머니와 어린동생들을 돌보며 살아야 했다. 王維가 벼슬길에서 당면한 첫 시련은 開元 9년 경 黃獅子 춤에 연루되어 濟州에 司倉參軍으

20)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遼寧大學出版社, 1999, p. 217

21) 劉勰, 《文心彫龍·時序》, “時運交移, 質文代變. :시대와 풍속이 바뀌에 따라서 변화가 생겨나니, 질박함이나 화려함을 숭상하는 것이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르다.”

22)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p. 374.

23) “摩詰心淡泊本學佛而善畫, 出則部岐薛諸王及貴主遊, 歸則饜飫輞川山水, 故其詩於富貴山林, 兩得其趣.”



“나 또한 그대와 함께 뗏목을 타고 싶다(余欲共乘桴)”고 벼슬을 버리고 田園에 隱居하고 싶은 뜻을 나타내고 있다. (〈濟上四賢咏〉三首, 〈崔錄事〉其二)

또한 詩人은 〈鄭霍二山人〉에서, “의기양양한 고관대작이 모두 권문세가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요행히 조상의 유업 때문에 일찍 감치 명군의 성운을 입었을 뿐(翩翩繁華子, 多出金張門, 幸有先人業, 早蒙明主恩)”이라고 고관대작들을 얕잡아 보면서, “고명한 은사가 많은데도 황제께 천거하는 사람이 없음(豈乏中林士, 無人獻至尊)”을 불평하고 있다. 이는 王維前期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주로 불공평한 인재 선발에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의 그러한 생각을 짐작하게 하는 詩 한 구절을 보기로 한다.

미천한 인물 설령 중용된다 해도,	微物縱可採,
그 누가 인재등용 공정하게 심사하리.	其誰爲至公。
나 역시 이런 벼슬 미련 없이 떠나서,	余亦從此去,
돌아가 밭 갈며 늙은 농부 되리라.	歸耕爲老農。

〈送碁母校書棄官還江東〉

王維는 이 詩에서 불공정한 인재 선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현실을 떠나 自然으로 歸隱하고 싶은 심정을 말하고 있다.

濟州는 魏·晉 六朝 이래 道教가 성행하던 곳으로 당시 王維는 이 지역에 거주 하면서 道教사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후 開元 14년 후반(726) 詩人은 벼슬을 사직하여 淇上和 嵩山에 隱居하였다.<sup>24)</sup>

淇上和 嵩山도 六朝 이래 道教가 성행하던 곳으로 당시에 저명한 隱逸居士인 盧鴻이 嵩山에 초당을 열고 있었다. 王維는 盧鴻의 隱居 생활을 사모하여 開元 14년을 전후하여 盧鴻의 밑에서 생활하며 嵩山에 隱居한 것으로 짐작된다.<sup>25)</sup> 盧鴻은 隱逸 선비로서 詩人이며 畫家였고, 王維 역시 詩人이며 畫家였다. 盧鴻과 王維는 생활방식에 있어서 똑같이 隱逸적인

24) 金億洙, 《王維研究》, “上半年在濟州, 下半年辭官至越探弟妹. 道經淮隱丹陽後隱於嵩山”, 亞細亞文化社, 1986, 附錄 〈王維年譜〉, p. 225.

25) 金鍾太 編, 《東洋畫論》, 서울, 一志社, 1997, p. 130 참조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道敎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王維 前期 歸隱 사상에는 道敎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文人畵的인 隱逸思想의 畵風 역시 盧鴻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嵩山에 隱居하면서 王維는 다음의 詩 한 首로 자신의 심정을 吐露하고 있다.

맑은 시내 긴 숲을 휘돌아 흐르고, 수레타고 떠나는 맘 편안하고 한가롭다. 흐르는 시냇물도 뜻이 이와 같으니, 저녁이 되니 새들 더불어 돌아간다. 황폐한 성터 옛 나무에 마주하고, 지는 해는 가을 산에 가득하다. 아득하고 머나먼 嵩高山으로, 드디어 돌아 와 이제 문 걸어 닫으리.	淸川帶長薄, 車馬去閒閒. 流水始有意, 暮禽相與還. 荒城臨古渡, 落日滿秋山. 迢遞嵩高山, 歸來且閉關. 〈歸嵩山作〉
---	--

세상의 그물에서 빠져나와 꿈에도 바라던 嵩山을 향하여 달려가는 詩人의 마음은 편안하고 즐겁다.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도, 돌아가는 새들도, 모두 자신의 마음처럼 평화롭게 느껴진다. 詩人은 세상과 인연을 끊겠다고 굳게 다짐한다. 그리하여 “문 닫아 걸겠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

또한 〈李處士山居〉에서는 은거생활의 閑寂함을 읊고 있다.

군자들 천계에 넘쳐나니, 소인은 기꺼이 벼슬을 사직했네. 벌써부터 鍊金 도사 쫓아서, 깊은 숲 외딴 산봉우리 살고 있노라. 재 넘어 뒤편에 꽃 아직 피지 않고, 구름 위로 솟은 나무 깊고 얇은 듯 하다. 맑은 한낮 절로 잠든 듯한데, 산새는 때때로 한두 번 울어댄다.	君子盈天階, 小人甘自免. 方隨鍊金客, 林上家絕巘. 背嶺花未開, 入雲樹深淺. 淸晝猶自眠, 山鳥時一嘯.
--	--

깊은 산속의 閑靜함 속에서 詩人은 隱居생활에 대한 適意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숲은 고요하여 모든 만물이 잠든 듯 적막감만 흐르는데 가끔씩 한두 번 울어대는 새소리는 산속의 閑寂함을 느끼게 한다.

사대부 문인들은 山水田園에 隱居하여 逍遙하면서 자신의 심정과 생활의 情趣를 詩나 글을 통하여 나타내곤 하였는데, 隱居地의 自然 환경은 그들의 생활근거인 동시에 훌륭한 自然詩 창작 소재였다. 따라서 詩인들이 山水 경치를 접할 수 없었다면 山水詩 창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山水自然 詩人들은 山水田園에 隱居하던 時期에 山水詩 창작이 왕성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王維 역시 예외가 아니다. 王維가 山水詩를 왕성하게 창작했던 時期는 淇上과 嵩山에 隱居했던 (728-735) 時期와 終南山 隱居時期 (741-742), 輞川 隱居 時期 (750-756)이다. 이 時期에 그는 半官半隱하는 생활 속에서 가장 왕성한 自然詩 창작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sup>26)</sup>

開元 17년경 王維는 다시 長安으로 돌아와 할 일없이 閑居하면서 道光禪師의 문하에서 佛敎의 가르침을 받는다.<sup>27)</sup> 그는 當時 생활을 한 편의 詩로 읊고 있는데 생활이 꽤 어려웠던 것 같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밤낮으로 태행산을 바라보며,	日夕見太行,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한다.	沈吟未能去。
무슨 연유인지 그대에게 묻노니,	問君何以然,
세상 그물이 나를 얽매이기 때문이다.	世網嬰我故。
어린 누이 나날이 성장해 가고,	小妹日成長,
동생들 아직 장가도 못 갔다.	兄弟未既娶。
가세는 빈곤하고 봉록은 이미 다하여,	家貧祿既薄,
저축이라곤 하지 못했다.	儲蓄非有素。
속세를 떠나 살고 싶은 맘 그 몇 번이던가,	幾回欲奮飛,
주저하며 다시 가족을 돌아본다.	踟躕復相顧。

〈偶然作〉其三

26) 李東鄉, 〈謝靈運과 王維의 山水詩 比較研究〉, 《중국문학》 제33집, 1998, p. 5 참조.

27) 《王右丞集》卷25, 〈大薦福寺大德道光禪師塔銘〉, “維十年座下, 俯伏受教 : 나 王維, 십년 동안 스승의 문하에 엎드려 가르침을 받았다”, p. 516.

노모 崔氏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해야 했던 王維는 이 詩에서 오랫동안 관직에서 물러나 있어서 생활이 몹시 궁핍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그는 세속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의 심정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開元 18년 王維 나이 30세(730)에 詩人은 아내의 죽음을 맞게 된다. 아내의 죽음은 詩人으로 하여금 사상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무감, 인간의 존재에 대한 깊은 思考는 王維의 道家的 歸隱 思想을 佛家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더욱더 佛敎에 심취하게 된다. 詩人의 그때의 심정은 이 시의 후반부를 통하여 짐작해 볼 수 있다.

세상 애착 날로 얽어가고,	愛染日已薄,
寂靜의 마음 날로 굳어간다.	禪寂日已固.
홀연 떠나가리라,	忽乎吾將行,
어찌 늙기를 기다리겠는가.	寧俟歲云暮.

〈偶然作〉其三

詩人은 점점 세속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고 하루라도 빨리 隱居하여 자유롭고 싶었다. 王維는 前期 自然歸隱 사상에 따라 山水 田園을 心身의 閑寂함을 즐기면서 마음의 근심과 세상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안식처로, 그리고 세속의 번잡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상적 삶의 낙원으로 인식하였다.<sup>28)</sup>

푸른 산언덕은 곱고 깨끗하고,	靑阜麗已淨,
초록 숲 울창하니 떠있는 듯하다.	綠樹鬱如浮.
예전엔 나무 우거진 것 싫어했는데,	曾是厭蒙密,
시원하게 사람의 근심 없애준다.	曠然消人憂.

〈自大散以往深林密竹蹬道盤曲四五十里至黃牛嶺見黃花川〉

28) 李東鄉, 〈謝靈運과 王維의 山水詩比較研究〉, 《中國文學》 제33집, 2000, p. 14 참조.

王維는 이 詩에서 山水自然이 사람의 근심을 없애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世俗의 煩惱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安息을 찾기 위해서는 自然에 歸隱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開元 22년(734)에 長安에서 할 일 없이 閑居하던 王維는, 그해 5월 張九齡이 中書丞에 除授되자 그를 찾아가 자신을 발탁하여 등용하여 줄 것을 바라는 獻詩를 지어 올려 자신의 뜻을 밝히게 된다. 그리고 낙양에서 가까운 嵩山으로 가서 隱居하게 된다.<sup>29)</sup>

王維는 張九齡에게 자신을 등용하여 줄 것을 청하는 獻詩 〈獻詩興公〉에서 자신의 벼슬길에 대한 철학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다.

차라리 황야 나무숲에 깃들이고,	寧棲野樹林,
차라리 산골 흐르는 개울물 마시리오.	寧飲澗水流.
쌀밥에 고기반찬 먹으려고,	不用食梁肉,
기구하게 제후 왕상 뵈울 것 없소.	崎嶇見王侯.
촌스러운 필부 절개가 있어,	鄙哉匹夫節,
거친 벼옷 입고 백발로 늙어가리.	布褐將白頭.
슬기롭게 살아감은 참으로 부족하나,	任智誠則短,
굳은 절조 지킴은 진실로 나의 뛰어 남이오.	守仁固其優.
들은 바에 의하면 큰 군자께서는,	側聞大君子,
인재 고름에 어찌 당파를 따지겠는가.	安問黨與誰.
결코 관직과 작위를 팔지 않으며,	所不賣公器,
항상 만백성을 위하여 도모한다 하더이다.	動爲蒼生謀.
미천한 이 몸 무릎 꿇고 아래오니,	賤子跪自陳,
당신의 수하가 될 수는 없는지요.	可爲帳下不.
공정한 논의로 선발됨은 감격하오나,	感激有公議,
편파에 의한 선발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曲私非所求.
	〈獻詩興公〉

29)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교 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4, p. 35 참조.

王維는 自然에 隱居하게 된 동기와 다시 출사를 원하게 된 동기를 솔직히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년 王維의 自然은 영원한 隱居가 아니라 잠시 自然에 기탁하였다가 조건이 만족되면 다시 出仕하려는 대기하며 머무는 곳이었다. 당시 ‘獨善其身’<sup>30)</sup>하는 풍조는 魏·晉 이후 사대부 문인들이 일반적인 행태였으며 王維 또한 초기 自然隱遁 사상에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내포 되어 있음을 여러 편의 詩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이는 마음은 隱居했으나 몸은 隱居하지 않은 것으로 陶淵明의 隱居와는 전혀 다르다. 王維가 젊었을 때 陶淵明의 사상에 따라 몸도 마음도 함께 隱居하려 했던데 비하면 대단한 모순이라 하겠다.<sup>32)</sup>

陶淵明에게 田園은 생존 그 자체로 현실이었다. 따라서 陶淵明의 田園詩 속에는 심각한 철학적 思辨이 內在하고 있다면, 王維의 前期 自然歸隱 사상은 半官半隱의 피세은둔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피처로, 自然은 개인의 고민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개인적인 해탈의 장소였다. 또한 陶淵明의 詩에는 自然 景物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詩가 드문 반면, 王維는 自然을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그대로 글로 써냄으로써 그의 自然詩는 恬淡閑適한 情感을 준다.

陶淵明의 〈桃花源記〉와, 王維가 19세가 되던 해인 開元 7년에 쓴 〈桃源行〉을 통하여 王維의 前期 自然 사상을 잠깐 들여다보면, 陶淵明과 王維의 桃花源 描寫의 기본 구조는 별 차이 없으나 내용 속에 담겨진 사상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陶淵明의 ‘桃花源’은 인간 세상만이 물씬 풍기는 理想郷으로 마치 實在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王維의 ‘桃花源’은 “해뜨는 구름 속에 닭 개소리 시끄럽다 (日出雲中鷄犬喧)”라고 함으로써 晉의 葛洪 《神仙傳》에 실린 劉安의 고사를 빌어 仙界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윽고 神仙의 사는 곳이 되니 다시 돌아가지 않았

30) 《孟子·盡心》,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가해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몸을 닦아 세상에 드러나니, 궁하면 그 몸을 홀로 선하게 하고 영달하면 천하를 겸하여 선하게 하는 것이다.”

31) 〈送鄆州順昌馮少府赴任序〉, 〈獻詩興公〉, 〈京兆尹張公德政碑〉 등.

32)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p. 223 참조. 王維明確指出自己與陶潛等 隱居的不同在于 “身心相離”, 卽心隱而身不隱.

네(及至成仙遂不還)”, “세상에서 멀리 바라보면 단지 구름 덮인 산 뿐(世中遙望空雲山)”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理想世界를 인간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仙界로 그리고 있다. 이로써 王維의 前期 自然思想에는 儒家的 思考 속에 道敎와 佛家의 思想이 고루 배어 있음을 추측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道敎와 佛家의 思想이 성행하던 시대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겠다.<sup>33)</sup>

특히 張九齡이 폄적된 開元 25년 (737) 이후 王維의 自然思想은 道敎에서 佛敎로 轉移하면서 道敎와 佛敎가 융합한 독특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sup>34)</sup> 開元 25년에 張九齡은 荊州로 폄적되고, 王維 역시 監察御使로 좌천되어 河西節度使 崔希逸의 막료로 부임하게 된다. 그 후 王維가 長安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張九齡은 세상을 떠났고, 조정은 이미 李林甫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 王維는 인생의 허무와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성격이 관료에 적합하지 않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명리가 한낱 부질없고,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하면서 더욱 더 佛敎신앙에 심취해 갔다<sup>35)</sup>

그때의 王維의 심정은 〈早秋山中作〉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재능 없이 벼슬하며 태평성대 누 끼칠 수 없어,	無才不敢累明時,
동쪽 냇가로 가 옛 울타리 지키려다.	思向東溪守故籬。
尙平이 자식 혼사 일찍 치른 건 싫지 않지만,	不厭尙平婚嫁早,
陶潛이 벼슬 늦게 버린 일은 싫어한다.	却嫌陶令去官遲。
초당에 귀뚜라미 우는소리 가을되니 급하고,	草堂蛩響臨秋急,
산속 매미소리 저물녘에 더 슬프다.	山裡蟬聲薄暮悲。

33)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7, pp. 222-225 참고  
金銀雅, 〈王維의 初期 “行” 詩考〉, 《중어중문논총》, 濡園 金喆洙教授 停年紀念, 1997, p. 5, 참조

34) 陳鐵民, 《王維新論》, 〈‘三敎’融合和王維的思想〉,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2, pp. 164-170, 참조.

35) 陳鐵民, 《王維新論》, 〈‘三敎’融合和王維的思想〉,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2, p.161. “……綜觀王維的一生, 大抵可以設, ……而張九齡謫荊卅以後, 他則越來越深地信仰佛敎: 維王의 일생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張九齡이 荊州로 貶謫된 이후에 더욱더 佛敎 신앙에 심취해 갔다고 할 수 있다.”

적막한 사립문엔 오는 사람 없어도, 寂寞柴門人不到,  
 텅 빈 숲 속 나 홀로 흰 구름과 함께하길 약속한다. 空林獨與白雲期.

尙平과 陶淵明은 둘 다 벼슬에 얽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王維 역시 관직 생활 도중에 겪은 여러 번의 좌절로 벼슬에 대한 미련이 점차 옅어가고 자연으로 돌아가 隱居생활을 하고 싶었다. 尙平과 陶淵明은 바로 王維의 마음ियो, 理想鄉이었다. 詩人은 자연으로 회귀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을 초당의 귀뚜라미와 산속의 매미를 통하여 말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王維가 자연으로 가고자 했던 심정은 실로 절박한 것이었다.

自然은 王維로 하여금 마음의 진정한 안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그에게는 특별한 곳이었다. 王維는 山水自然으로 돌아가 隱居하며 逍遙遊의 생활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自然의 순리에 순응하며 슬픔과 기쁨마저도 관심 밖의 대상으로 無念의 진정한 ‘縣解’의 경계에 이르러자 하였다.<sup>36)</sup> “내가 추구하는 삶의 理想은 결코 벼슬길에서 찾을 수 없다. 역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 뿐이다”는 王維가 지냈던 당시의 심정이다.

좋은 시절 오랫동안 출세하지 못하고, 明時久不達,  
 이 몸 버려짐도 그대와 같다네. 棄置與君同.  
 천명이라 여기고 원망의 표정 없어야하네, 天命無怨色,  
 세상 살며 고고한 품격은 있어야 하는 것. 人生有素風.  
 〈送綦母校書棄官還江東〉

王維는 외적 현상들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운명이라 생각하며 내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내적으로 승화시켜 自然에 몰두함으로써 모든 現實世界를 잊으려 했던 것이 바로 詩人의 理想鄉 추구였다. 이때부터 王維의 詩風은 幽靜하고 閑

36) 《莊子·大宗師》, “安時而處順, 哀樂不能入也, 此古之所謂縣解也 :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 이것이 옛날부터 말하는 ‘縣解’이다.”

逸하며 閑靜逸致한 情趣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詩風의 변화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좌절이 원인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禪學의 영향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盛唐時代는 禪宗이 한창 발흥하던 時期로 禪宗은 당시 사대부들의 종교로, 대승佛敎의 ‘頓悟’사상은 사대부문인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禪의 형상적 표현, 즉 形而上學的 전달 방법과 詩的 언어들은 文士들로 하여금 철학의 이치와 예술의 情趣가 풍부한 禪의 세계에 더욱 몰두하게 했다.<sup>37)</sup> 그러나 王維는 종교적 이치만을 담아내는 딱딱함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自然의 아름다움을 깊이 觀照하는 가운데 大自然의 啓示와 멋을 한 편의 그림 같은 詩로 표현하였다.

날 밝을 무렵에 파협에 이르러,	際曉投巴峽,
늦은 봄날 경성을 그리워하노라.	餘春憶帝京.
맑게 갠 강가엔 한 여인이 빨래하고,	晴江一女洗,
아침 해 떠오르니 닭들 울어댄다.	朝日衆鷄鳴.
물가 땅이라 배안이 시장이 되고,	水國舟中市,
산 위에 걸린 다리 가지 끝을 걷는 듯하다.	山橋樹杪行.
높은 곳에 오르니 마을들 드러나고,	登高萬井出,
멀리 바라보니 두 줄기 강물은 반짝인다.	眺迥二流明.
사람들은 낯선 사투리로 말하지만,	人作殊方語,
찌꼬리는 고향땅 소리로 울어댄다.	鶯爲舊國聲.
그나마 山水情趣 너무 아름다워,	賴多山水趣,
조금은 이별의 슬픈 정을 달래어준다.	稍解別離情.
	〈曉行巴峽〉

詩人이 낯선 곳에 이르러 바라본 모든 풍물은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 詩는 시인이 蜀을 유람할 때 作詩한 것으로 색다른 풍경들을 글자의 彫琢

37) 袁行霽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p. 98 참조.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향을 떠난 시인의 울적한 심정은 낮선 사투리와 꾀꼬리 울음으로 대비되어 드러나고, 山水의 아름다움에 心醉한 詩人은 자신의 心情을 自然에 溶解시키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는 고요하고 그윽한 美的 境界에 이르고 있다. 또한 自然의 景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畫家이며 詩人인 王維는 인간 본래의 內面에 潛재해 있는 인간본성에 대한 의문과 懷疑로 고뇌하고 갈등하면서 참 삶의 진실을 自然에서 찾으려 노력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自然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禪의 이치를 깨닫는 공간이었다.

天寶 연간에 李林甫에 의해 정권이 장악되자 정국은 혼란스러워지고, 王維는 혼란스러운 현실정치를 개혁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주된 관심사를 자신의 內面世界로 돌려 自然에 歸隱하고 禪에 심취함으로써 마음의 淸淨을 꾀하려 하였다.

李林甫와 楊國忠으로 이어지는 집권층의 무능과 부패는 결국 天寶 14년 (755) 安祿山의 亂을 불러오게 되고, 安祿山의 亂 와중에 반란군의 강요에 의한 僞職으로 失節을 감내해야했던 심적 부담은 王維로 하여금 만 길 심연으로 굴러 떨어진 것처럼 큰 것이었다. 이로 인한 고통은 王維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는 佛敎의 세계에 더욱 심취하게 했다. 詩人은 오로지 自然으로 돌아가 세상을 잊어버리고 禪에 몰두하여 淸淨한 삶을 살고 싶었다. 당시에 安祿山에 의해 菩提寺에 구금된 詩人은 僞職을 피할 수 없음을 고민하면서 輞川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어떻게 속세의 그물을 벗어나서,	安得捨塵網,
세속의 번잡한 벼슬을 물리칠 수 있을까.	拂衣辭世喧.
한가로이 명아주 지팡이 짚고서,	悠然策藜杖,
도화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歸向桃花源.

〈口號又示裴迪〉

王維는 安祿山의 亂 와중에 인간의 참담한 절망을 깊이 응시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고뇌하고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혼란과

나약함, 인간의 탐욕과 존재의 어둠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느꼈다. 이 때 인생의 허망함을 느낀 王維가 선택한 길이란 大自然의 품에 들어가 佛敎에 심취함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찾고, 때때로 속세를 떠나 유유자적인 逍遙遊의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詩人은 自然에 머물고자 하나 自然에 머물지 못하는 심정을 〈別輞川別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쉬워 머뭇거리며 수레 움직이고,	依遲動車馬,
괴로워 탄식하며 松蘿 숲을 나온다.	惆悵出松蘿.
모진 마음으로 푸른 산을 이별하니,	忍別靑山去,
흐르는 저 푸른 물은 또한 어찌 하리오.	其如綠水何.

어쩔 수 없는 벼슬살이 때문에 輞川을 떠나야 하는 시인은 마음이 슬프다. 더욱이 함께 隱居하던 벗들과의 가슴 아픈 이별의 情은 다 말할 수 없다. 담담하게 말하는 듯하지만 슬픔은 끝이 없다. 이를 두고 顧可久는 “말은 평이하나 정은 깊다(淺語情深).”<sup>38)</sup>고 말하고 있다.

安祿山の 亂 직후 王維는 肅宗의 관대한 용서로 특별 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太子中允에 除授되어 다시 관직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天寶의 난 중에 겪은 곤욕으로 인한 심한 심적 고통과 僞職으로 인한 죄책감은 詩人으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심적 충격을 겪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詩人은 그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잠간사이 젊은 홍안 늙어버리고,	宿昔朱顏成暮齒,
한순간에 어린 시절은 백발이 됐네.	須臾白髮變垂髫.
일생에 마음 아픈 일 얼마이던가.	一生幾許傷心事,
佛家가 아니면 어디서 해탈하리.	不向空門何處鎖.
	〈難白髮〉

38) 王維撰, 陳鐵民校注《王維集校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7, p.467

그는 한편으로는 “일생동안 마음 상한 일 그 얼마였던가? 이제 佛門에 歸依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海탈할 것인가.”라고 자조하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隱居하여 세상을 더욱 멀리하여 佛家에 몰두함으로써 정신적 위안과 海탈을 추구하려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벼슬을 그만두어 隱居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황제에게 충성함으로써 報恩에 보답하려 하였다.<sup>39)</sup>

王維의 당시 심정은 다음의 〈謝除太子中允表〉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신은 군왕의 녹을 먹으면, 군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죽음으로서 군왕을 보필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일에 반란이 일어나 상왕께서 궁성을 떠나실 때, 신이 종행치 못하였고 남아 있어서도 자살을 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는 목 베임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임금의 은택으로 널리 품어 주시고, 밝게 비추고 씻어주셨습니다. 조정에서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녹까지 주시니, 반드시 법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불러올 것입니다. 신은 부처님을 봉양하며 은혜에 보답하면서 스스로 죽지 못한 죄를 용서 받고자 합니다.”<sup>40)</sup>

《舊唐書·王維傳》에는, 당시 王維의 생활에 대하여, “京師에서 매일 십여 명의 스님들을 식사 대접하며 귀한 담소로 즐거움을 삼았다. 방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찻잔과 약탕기, 그리고 경전을 놓는 책상과 새끼줄로 엮은 의자뿐이었다. 退朝한 후에는 향을 피우고 홀로 앉아 參禪과 염불로 일삼았다.”<sup>41)</sup>라고 기록되어 있는바, 당시 王維의 생활은 거의 佛敎에 심취하여 焚香長齋하면서 自然의 淸淨함에 기탁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39) 〈送韋丈夫東京留守〉, “曾是巢許淺,始知堯舜深 : 일찍이 巢父와 許由는 보잘 것 없고, 비로소 요와 순임금이 깊음을 알았다.”

40) 〈謝除太子中允表〉, “臣聞食君之祿, 死君之難, 當逆胡干紀, 上皇出宮, 臣進不得從行, 退不能自殺, 情雖可齊, 罪不容誅.……今聖澤含弘, 天波昭洗, 朝容罪人食祿, 必招屈法之孃, 臣得奉佛幸及恩, 自寬不死之痛.”

41) “在京師日飯十數名僧, 以元談爲樂齋中無所有, 唯茶鑪藥臼經案繩床而已, 退朝之候焚香獨坐, 以禪誦爲事.”

觀照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詩作으로 추측되는 詩 한 편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늘그막에 청정의 이치 알게 되니,	晚知淸淨理,
나날이 사람들과 소원하게 되었다.	日與人群疏。
장차 멀리 북부산에서 오실 스님 기다리며,	將候遠山僧，
우선 누추한 거실을 청소한다.	先期掃敝廬。
과연 구름 속 봉우리 따라,	果從雲峯裏，
궁벽한 곳에 거처하는 나를 찾아왔네.	顧我蓬蒿居。
풀 위에 자리 깔고 앉아 송화 가루 먹으며,	藉草飯松屑，
향 피워 놓고 불경을 읽는다.	焚香看道書。
타오르는 등불 낮이라 다하려 하고,	燃燈書欲盡，
경쇠소리 울리니 밤 이제 초경이다.	鳴磬夜方初。
마침내 적멸의 낙을 깨닫고,	一悟寂爲樂，
이 삶이 閒靜하니 여유롭다.	此生閒有餘。
돌아갈 일 어찌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思歸何必深，
세속에 이 몸은 오히려 공허할 뿐.	身也猶空墟。

〈飯覆釜山僧〉

王維가 즐기는 山水自然은 謝靈運과는 대조적으로 動的인 분위기가 아닌, 自然을 觀照하는 靜的인 분위기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自然의 심미 대상 역시 농촌의 한가한 풍경과 아득한 평원의 야트막한 언덕, 골짜기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 등, 自然 속에서 늘 상 접할 수 있는 그런 自然이었다. 이러한 소재들은 王維詩 속에서 淸淡閑寂한 풍취를 이끌어내었다.

謝靈運의 경우, 自然은 고요히 마음을 위로받고 울분을 달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山水自然을 찾아다니며 自然에 마음을 의탁해 세상일은 잊어버리고 마음의 빈곳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방랑하였다. 그러나 謝靈運에게 있어 自然은 ‘시름도 잊지 못할 뿐 아니라, 景物은 시름을 더 하게 할 뿐.’<sup>42)</sup>이었다. 그는 늘 自然을 찾아다니는 나그네로 自然에 안주

하지 못하는 방랑자였다. 그는 自然에 隱居하기를 추구하면서도 隱居하지 못하는 나그네로 세상을 방황하였다.

“외로운 나그네 흐르는 여울물에 슬프고, 나그네 가는 길에 가파른 산길 고달프다.”<sup>43)</sup>는 自然이 결코 자신이 가야하는 목적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謝靈運에게 自然이 현실도피의 수단이었다면, 山水自然은 고독과 절망을 切感하는 자학적 공간이었을 수도 있다.

반면 王維의 山水自然은 禪趣를 일으키게 하는 대상으로 번뇌를 씻어 주고, 閑靜한 가운데 근심을 해소할 수 있는 정신적 위안처였다. 따라서 王維에게 自然은 삶의 안식처로, 寂靜한 自然 속에 山水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觀照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淸靜閑逸한 禪的 空間이었다. 특히 만년에 王維의 생활은 오직 佛道에 심취하여 閑淨한 생활 속에 세상의 인연과 멀리하면서 自然에서 逍遙함을 추구하였다.

陶淵明의 경우 “세상은 먼지 구덩이였고, 벼슬은 사람의 정신을 움아매는 그물이었다.”<sup>44)</sup> 그 그물을 끊고 먼지 구덩이에서 나오고 나니 주위는 너무 맑고 깨끗하며, “마음에 욕심마저도 사라져버려 몸도 마음도 여유가 생겨나서 한가롭게 되었다.”<sup>45)</sup> 마음에는 때 묻은 思念은 사라져 버리고 오직 虛靜한 마음만 남게 되니 無爲自然하며,<sup>46)</sup>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정이 흐르는,’ ‘술 빛어 닭 잡아 이웃과 함께 하는 自然,’<sup>47)</sup> 이것이 陶淵明의 自然이었다. 王維 역시 세상을 世網이라 여겼다. 그리고 陶淵明을 흠모하고 그의 사상을 따르고자 하였다.<sup>48)</sup>

그러나 詩人 王維의 自然은 謝靈運의 극복하고 지배하려는 대상으로서의 自然도 아니었다. 그것은 陶淵明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상세계도 아닌,

42) 謝靈運, 〈東山望海〉, “非徒不弭忌, 覽物情彌道”

43) 謝靈運, 〈七里瀨〉, “孤客傷逝湍, 徒旅若奔峭.”

44) 陶淵明, 〈歸園田居〉其一, “誤落塵網中, 久在樊籠裏 : 잘못하여 먼지 속 그물에 빠져, 너무 오래 새장 속에 갇혔다.”

45) 陶淵明, 〈歸園田居〉其一, “戶庭無塵雜, 虛室有餘閒 : 뜰 안에는 잡스러운 먼지 하나 없고, 텅 빈 방은 한가롭기만 하다.”

46) 陶淵明, 〈歸園田居〉其二, “虛室絕塵想 : 淸寂한 방에는 때 묻은 생각은 없다.”

47) 陶淵明, 〈歸園田居〉其五, “漉我新熟酒, 隻鷄招近局 : 갓 익은 술 빛고, 닭 잡아 이웃 불러 마시노라.”

48)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9, p. 223 참조.

현실과 반대되는 自然, 淸靜閒逸하며 美的 존재를 탐구해 내려는 自然으로 隱身과 自覺의 禪驗의 공간 이었다. 역사적 전환기를 살았던 詩人 王維는 李白처럼 시대를 초월한 낭만성을 발휘하지도 못했고, 杜甫처럼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인간 사회의 이야기를 노래하지도 못했다.<sup>49)</sup> 그러나 그는 自然과 人間을 하나로 융화시켜 自然을 觀照함으로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자기 응시를 통하여 다시 返照하여 內的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王維詩는 沖淡을 높이 여겼다. 그는 自然과 농촌의 평화롭고 한적한 情趣를 주관적 색채감을 가미하지 않고 淡泊하고 精巧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그의 詩 속에 나타나는 自然의 아름다움은 세속을 떠난 삶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인 소박한 감정들로 隱居생활에서 나오는 부정적이며 자조적인 내용보다는 한적한 삶을 즐기며 진실하게 살려는 詩人의 긍정적 철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sup>50)</sup> 詩人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는 다음 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푸른 나무 짙은 그늘 사방을 뒤덮고,                   綠樹重陰蓋四鄰,  
푸른 이끼 날로 자라 티끌 하나 없다.               青苔日厚自無塵.  
맨 머리에 다리 뻗고 소나무 아래 앉아,           科頭箕踞長松下,  
경멸의 눈빛으로 세상 속인들을 바라본다.      白眼看他世上人.

〈與慮員外象過崔處士興宗林亭〉

王維는 심신의 구속을 거부하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회구한다. 王維가 바라는 진정한 자유추구는 갖도 망건도 형식적인 예의범절마저도 떨쳐버린 육신의 자유를 통하여 사물에 拘礙받지 않는 정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詩人은 산속에 隱居하고 있는 隱者들의 생활을 觀照하며 그 內面에 담겨진 그들의 사상을 자신의 심정으로 返照한 것을 한 편의 詩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自然歸隱思想이 王維의 진정한 自然 사랑이며 田園 회귀의 목적이었다. 왕유는 마음의 고통을 항시 자신 속으로 끌고 들어와 自然에서 생활하며 삭히고 정화시켰다. 그

49) 李炳漢 역주, 《王維詩選》, 서울, 민음사, 1989, 5, p. 16 참조

50) 金億洙, 〈王維研究〉, 《論文集》 제27집, 공주사범대학, 1989, pp. 24-26 참조.

래서 王維의 自然詩에는 사회적 성격의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李白이 능동적으로 낭만적 기질을 발휘하여 쾌락적 삶으로 세상을 달관하고, 杜甫가 정치적 현실과 사회적 모순을 소재로 적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王維는 현실의 문제들을 사실로 받아들여 觀照한 후 다시 자신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여 自然에 정화시킨 후 조용히 자신의 이상을 추구해 나갔다. 따라서 그의 自然詩 속에는 세상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없으며, 외적 현상들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내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관념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 하겠다.<sup>51)</sup>

### 3. 王維와 佛敎의 관계

佛敎는 兩漢時期 (대략 B.C 3세기경)에 중국에 들어온 外來종교로서 魏·晉 南北朝 時期에 중국의 토속사상인 道敎와의 대립과 융화를 거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을 받아 점차 중국화의 길로 들어서서 隋·唐 이후에는 중국 전통문화와 융합한다. 이것은 중국 고대 문화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성된 것임을 의미한다. 唐代는 中國詩가 획기적인 흥기와 발전의 時期로 中國詩의 佛敎的 영향은 매우 깊다.<sup>52)</sup> 唐의 사대부 문인 중 일부는 불교사상이 지닌 知的인 매력과 救援에 대한 희망으로 불교에 심취 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불교의 禮式속에 숨겨진 심오한 분위기와 寺院景觀의 장려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불교에 귀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중국 문학을 황금기로 이끈 유명한 시인 문인들 대부분이 불교사상과 친숙했으며 그들의 문학작품 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있는 불교적 관행과 불교경전에서 유추한 사상과 암시가, 그리고 深山幽谷의 자연에서 坐禪修行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詩的 餘韻으로 반영되고 있다.

서양의 경우 단테의 《신곡》이나 밀턴의 《실락원》 등을 통해, 詩는 종교와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능히 짐작 할 수 있다.<sup>53)</sup> 중국의

51) 李炳漢 譯註, 《王維詩選》, 民音社, 1989, pp. 16-17 참조.

52) 賴永海, 《佛道詩論·中國佛敎文化論》,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0, 10, 第1版, p. 34 참조

詩 또한 예외가 아니다. 佛敎的 또는 道敎的 影響을 받아, 그윽하고 아름다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王維는 모친이 독실한 佛敎 신자인 탓에 대체로 젊어서부터 佛敎의 影響을 많이 받았다.<sup>54)</sup> 또한 ‘만년에는 점심을 거르고 무늬 있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전해온다.<sup>55)</sup> 王維는 佛家에 깊이 심취하였으나 일정한 師僧을 갖고 있는 승려는 아니었다.

開元·天寶 연간 長安 일대에 北宗이 성행하자, 그는 자연스럽게 北宗의 禪僧들과 긴밀하게 왕래했고, 그 후 南宗이 흥기하자 南宗의 禪僧들과 교류 했을 뿐, 자신은 일정한 문중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sup>56)</sup> 그가 〈大薦福寺大德道光禪師塔銘〉에서 “저는 10년 동안 禪師 밑에서 엎드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維十年座下, 俯伏受敎)”라고 한 것은, 젊어서 北宗의 影響을 받았음을, 북종의 淨覺의 碑文 〈大唐大安國寺故大德淨覺禪師碑銘〉을 쓴 것은 王維가 北宗의 禪僧들과 깊이 교류했음을 각각 알 수 있게 하는 사실이다. 또한 그가 神會의 부탁으로 慧能의 〈能禪師碑〉를 쓴 것과 만년에 南宗禪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南宗의 禪僧들과도 교류가 깊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다. 北宗과 南宗이 구분된 것은 神會가 스승 慧能의 六祖顯彰을 開始한 滑臺의 大雲寺에서 宗論을 편 이후의 일이다. 이는 神會가 南宗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北宗을 다르마의 禪의 傍系로 폄하하고 南宗이 中國禪宗의 정통임을 내세워 禪의 전통을 확립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南·北宗의 구분은 지리적 편의에 따른 神會의 일방적 구분이었다. 慧能 몰후 70여년 후, 後人에 의해 창작된 敦煌本 《六祖壇經》의 속편 慧能의 자서전에 들어있는, 神秀와 慧能의 5祖 弘忍에게 제출했다는 心偈를 둘러싼 이야기가 中國禪宗史에 정설로 간주되면서 南·北二宗의

53) 朱光潛著, 鄭相泓 譯, 《詩論》, 서울, 東文選, 2003, p. 116 참조

54) 《王右丞集箋注》卷十七, 〈請施莊爲寺表〉, “臣之母故博陵縣君崔氏, 啓事大照禪師三十餘歲褐衣蔬食, 持戒安禪, 樂住山林, 志求寂靜 : 신의 모친 옛 방릉현군 최씨는 대조 선사를 30여년이나 스승으로 섬기면서, 거친 옷과 거친 밥을 먹으며, 계율을 지키고 참선으로 안주하며 산림에 머물기를 즐겨하며 寂靜을 구하는 일에 뜻을 두었다.”

55) 《舊唐書·王維傳》, “晩年長齋, 不衣文采 : 만년에 오랫동안 점심을 거르고 무늬 있는 옷을 입지 않았다.”

56) 《舊唐書·王維傳》, p. 89.

쟁점은 부각되었다. 이 心偈에는 南·北二宗의 주장은 요약 되어 있다.

佛家에서는 사람들이 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諸法(모든 현상과 사물)의 존재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로서만 존재할 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이것이 ‘空의 思想’이며 ‘緣起의 原理’이다. 緣起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있지 않으므로 ‘저것’이 있지 않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것’이 일어나지 않는다.”<sup>57)</sup>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삼라만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다른 존재와 어떠한 관계로 맺어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는 없고 여러 조건들이 얽히고설킨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변화하지 않은 실체로서의 本性은 존재하지 않고 원인과 조건만 성립한다는 논리로, 모든 존재하는 것(諸法)은 제각기 실체로서 生하고 滅하는 것이 아닌 ‘空’임을 의미한다.

‘一切法空’의 인식은 사물의 진실, 즉 본질을 여실히 본 ‘깨달음의 인식’이며, 실체가 아닌데도 실체시하는 인식의 입장을 철저히 부정한 佛家思想이다. “諸法이 空하지 않으면 生滅은 존재하지 않는다.”<sup>58)</sup>라는 龍樹의 思想은 《般若經》에서 說해진 ‘空性の 思想’으로 諸法無我로 표시되는 佛陀의 思想的 입장을 大乘的으로 전개시킨 것이다.<sup>59)</sup> 일체가 空이라면 인간은 확실히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大乘 思想은 詩人으로 하여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포기하게 하고 체념하게 하여 세상과 경쟁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받고 고민에서 벗어남으로써 심신의 자유롭고 평온한 경지에 이르게 하였다.

禪宗은 “無念을 宗旨로 삼나니 無相으로 體를 삼고 無住로 根本을 삼는”<sup>60)</sup> 心空의 경지를 추구하였다.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앎(識心見性)이

57) 《雜阿含經》 卷15, “此有故彼有此生故彼生, 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

58) 《中論·24:20》, “若一切不空則無有生滅.”

59) 平川槍·梶山雄一·高崎直道 編, 윤종갑 역, 《中觀思想》, 서울, 경서원, 1995, pp. 110-132 참조.

60) 《六祖壇經》, “我此法門從上已來,頓漸皆立無念爲宗無相爲體,無住爲本.”

곧 해탈하여 成佛에 이름이니, 이는 般若三昧를 깨침이다. 이것이 無念이다. 대승불교는 원래 마음의 종교로 마음과 마음에 대하여 논의하고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열어가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종교이다. 특히 南宗은 모든 사물의 현상은 마음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으로 “自성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라도 만 가지 경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항상 자재한다.”<sup>61)</sup>고 했다. 이러한 無念心空의 경지를 추구한 禪宗 사상은 王維의 詩 여러 곳에서 표현된다. 禪宗의 인생철학과 사유방식을 받아 들여 佛敎의 理致와 禪趣를 詩속으로 끌어들이는 시인 王維가 禪에 기울인 관심은 진지함 그 자체였다. 佛敎를 통하여 그가 얻은 자유는 사회적 속박에서 벗어난 고독이었다. 그 고독은 自然과 함께 하는 고독이었으므로 空하지만 허무하지 않았으며 寂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禪宗은 現世에서 內心の 自我 解脫을 추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啓示를 얻고 大自然에 머무르며 감상과 陶冶속에서 초월적 깨달음을 얻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禪의 사상에 심취한 詩人은 自然에서 自我를 체험하면서 점차 自然과 융합하여 自然과 我를 구별하지 않는 空靈하고 淸幽한, 그리고 閑情逸致한 情趣를 드러내며 禪那에 이른다. 다음 시에서 그는 이러한 심정을 읊고 있다.

태양이 비추는 처마 앞에 걸가부좌하고,	趺坐簷前日,
대나무 아래 분향하니 향 피어오른다.	焚香竹下烟.
차가운 하늘이 채색구름에 덮여있는 감로의 땅,	寒空法雲地,
가을빛이 밝고도 해맑은 성인이 거처하는 하늘.	秋色淨居天.
육신의 三世윤회의 법을 쫓아내어,	身逐因緣法,
마음이 점차로 禪定에 이르게 하노라.	心過次第禪.
모름지기 늙어 감을 근심하지 않음은,	不須愁日暮,
절로 마음의 등불 환희 밝아오기 때문이리라.	自有一燈燃.

〈過慮員外宅看飯僧共題〉

61) 《六祖壇經》, “自性起念雖即見聞覺知, 不染萬境而常自在”

시인은 禪의 오묘한 경계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제 마음은 고요해지고 生死의 고뇌에서 벗어나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서 늡음이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王維는 승려가 되지 않은 居士, 《維摩經》의 주인공 維摩詰을 자신의 字로 삼음으로써 그 자신 禪과 문학을 통해 維摩의 길을 걷고자 했던 佛敎 체험자였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道一禪師 태백산에 거하시니,	一公樓太白,
고결함이 구름 밖에 우뚝 솟아 있다.	高頂出雲烟.
寂靜은 골짜기 마다 흘러 퍼지고,	梵流諸壑遍,
꽃비는 한 봉우리로만 떨어진다.	花雨一峰偏.
스님은 적멸의 경계에 숨어두고,	迹爲無心隱,
명성은 교화로써 뜻을 세운 때문일세.	名因立敎傳.
불법 설하시니 새 돌아와서 듣고,	鳥來還語法,
객이 가고나니 다시 禪定에 잠긴다.	客去更安禪.
낮엔 소나무 길 다 하도록 걸으시고,	晝涉松路盡,
저녁이면 산사에 머무르신다.	暮投蘭若邊.
그윽한 禪房 대숲 깊은 곳에 있고,	洞房隱深竹,
고요한 밤 멀리 샘물소리 들린다.	淸夜聞遙泉.
조금 전 노을 진 구름 속에 계시더니,	向是雲霞裏,
지금은 잠자리에 들어 계신다.	今成枕席前.
어찌 잠시만 스님 곁에 머무르랴,	豈惟留暫宿,
평생 불법을 섬기리다.	服事將窮年.

〈投道一師蘭若宿〉

詩人은 禪語를 사용하여 道一禪師의 훌륭한 佛成을 높이 흠모하고, 칭송하면서 한편으로는 山寺의 幽靜한 情趣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어찌 잠시 머물기만 하겠는가? 평생 나도 불법을 섬기며 이와 같이 살고 싶다.”는 데에서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없는 그의 심경을 알 수 있다. 王維의 세속을 초탈한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편의 詩를 보자.

부드러운 풀 위에 걸가부좌하고 앉아,	軟草承趺坐,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독경소리 듣는다.	長松響梵聲.
감로의 땅에 조용히 살면서,	空居法雲外,
세상을 觀照하며 생멸의 번뇌 잊음을 언노라.	觀世得無生.

〈登辨覺寺〉

시인이 생멸의 번뇌를 잊었다는 것은 현실생활의 헛된 욕심들을 버렸다는 뜻이다. 시인은 지금까지 벼슬에 집착하며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다음 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젊은 시절은 말할 것도 없이,	少年不足言,
불도를 안지도 여러 해다.	識道年已長.
지나간 일 어찌 후회 하리,	事往安可悔,
남은 餘生 불도수양 할 수 있어 다행이다.	餘生幸能養.
맹세코 육식을 끊고,	誓從斷葷血,
다시는 세속 그물에 얽매지 않으리.	不復嬰世網.
부질없는 이름 벼슬에 기탁했었으나,	浮名寄纓珮,
諸法이 空임을 아니 속박됨이 없다.	空性無羈鞅.
일찍이 불타를 받들어,	夙丞大道師,
향 피워 이치럼 우러러 바라본다.	焚香此瞻仰.
오로지 마음은 불법의 이치를 듣는데 두고,	一心在法要,
무생의 이치를 장려하기 바라노라.	願以無生獎.

〈謁塔上人〉

이 詩에는 중년 이후의 詩人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헛된 이름 벼슬살이에 기탁했다”에는 벼슬 생활에서 받은 심적 고통과 어쩔 수 없는 벼슬살이로 인해 半官半隱해야 했던 자신의 생활태도에 대한 회의감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시인은 ‘諸行無常’, ‘諸法皆空’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것은 虛妄無實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초기 山水自然詩人들이 自然을 인간의 번뇌와 고통을 위로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여겨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다면, 王維는 인간의 번뇌를 자신의 일부로 수용하여 自然에 번뇌를 용화시켜 自然에 심취함으로서 禪的 境界에 이르고자 하였다. 詩人은, 自然에 隱逸하니 마음은 淸靜하고 스스로 자신을 잊게 되어 禪的 境界에 이르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부질없이 헛된 망상 많기만 하고,	徒然萬像多,
담박한 도의 현묘함은 아득하다.	澹爾太虛緬.
만물이 나와 다를 바 없음을 알게 되고,	一知與物平,
스스로 돌아보니 나 또한 천박하다.	自顏爲人淺.

〈戲贈張五弟諱〉 其一

승산 아래 문 닫아 걸어놓고,	閉門二室下,
사람 인연 끊은 지 십여 년이라.	陰居十年餘.
완전히 自然 속에 야인이 되어,	宛是野人野,
때때로 어부 따라 고기잡이 간다.	時從漁父漁.

〈戲贈張五弟諱〉 其二

나는 남산 아래 집을 마련하고,	我家南山下,
일하며 쉬노라니 저절로 내 몸을 잊었네.	動息自遺身.
구름과 노을은 함께하는 짝이 되고,	雲霞成伴侶,
세상일 잊으니 叡智가 옷깃으로 절로 스며든다.	虛白侍衣中.

〈戲贈張五弟諱〉 其三

종남에 隱居하던 時期의 작품으로 시인은 〈戲贈張五弟諱〉 其一에서, 隱居하고 있는 張諱이 世俗에 拘礙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통하여 자신의 살아온 생활이 얼마나 偏見과 執着에 빠져 고뇌하고 고통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삶이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어 번뇌를 떨쳐 버릴 수 있음을 말한다. 이어 그는 〈戲贈張五弟諱〉 其二에

서, 張諱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隱居생활을 동경하며, 자신도 이제 隱居하여 세상과 인연을 끊게 되었음을 기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戲贈張五弟諱〉其三에서, 세상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조용히 隱遁생활을 하는 가운데 淸淨心이 생겨나 “마음은 텅 비어 욕심이 사라지니 텅 빈 마음속에 맑은 빛 밝은 지혜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저절로 보인다.”<sup>62)</sup>고 토로한다.

다시 그의 詩 가운데 禪的 境界가 그윽한 詩 한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지 끝에 맺힌 연꽃 같은 목련화,	木末芙蓉花,
산속에서 봉우리 붉게 피어난다.	山中發紅萼.
산 개울 오두막엔 사람 없어 고요한데,	澗戶寂無人,
꽃들은 어지러이 피고 또 진다.	紛紛開日落.
	〈辛夷塢〉

깊은 산속에서 저절로 피었다 시드는 목련화에서 적멸의 경계를 느낄 수 있는 이 한 편의 詩에서, 우리는 어지러운 인간사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寂滅의 無念을 추구했던 詩人이 諸行無常의 空虛를 觀照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를 沈德潛은 《唐詩別裁》卷十九에서, “그윽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다(幽極).”고 했고, 胡應麟은 《詩藪·內編》에서, “오언절구로 禪의 경지에 들게 한다(五言絕之入禪者).”면서 “자신과 세상을 모두 잊고, 만 가지 생각이 다 고요하다.(身世兩忘, 萬念皆寂)”고 평한다.

다음의 詩를 살펴보자.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空山不見人,
사람의 말소리만 들려온다.	但聞人語響.
지는 해 숲 속 깊숙이 들어와,	返景入深林,
다시 푸른 이끼를 비춘다.	復照青苔上.
	〈塵柴〉

62) 안동립 역주, 《莊子》, 서울, 현암사. 1999, p. 116. 《莊子·人間世》十四, “瞻彼闕考, 虛室生白: 저 텅 빈 것(空虛)을 잘 보라.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눈부신 햇빛이 비쳐 저렇게 환히 밝지 않느냐.”

淸淨한 산속은 고요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의 말소리는 산의 깊음을 느끼게 한다. 산속 깊숙이 스며드는 햇빛은 淸寂하니 산은 더욱 적막하다. 詩는 문학과 禪은 종교다. 그러나 詩와 禪은 둘 다 內心의 체험을 요구하는 言外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 詩에는 禪趣는 있으나 禪語는 보이지 않는다. 詩人은 다만 푸른 이끼에 返照된 저녁 햇살을 통하여 淸靜寂滅의 禪心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 한적한데 계수나무 꽃은 지고,	人間桂花落,
밤 고요하니 봄 산은 적막하다.	夜靜春山空.
달 떠오르자 산새들은 놀라서,	月出驚山鳥,
간간이 봄 개울엔 새 우는 소리.	時鳴春澗中.
	〈鳥鳴磻〉

寂·靜·空 등의 어휘는 禪趣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落花는 人生無常과 寂滅을, ‘月出驚山鳥’는 실체가 아닌 虛像(허구적 존재)에 놀라고 있다. 마지막 句에서 襯托에 의한 寂寞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詩人은 경물이 형상에 가려져 외관상에 드러나지 않는 심오한 自然의 순리를 찾아내어 자신의 意境에 合一시켜 놓음으로써 그윽한 禪의 향기(禪香)가 물씬 풍기는 차가운 고독을 즐기고 있다.

王維는 參禪하는 마음으로 自然을 觀照하여 다시 자신의 내면세계로 返照함으로써 자아 응시를 통한 禪理를 깨닫고자 했을 뿐, 自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자연을 정복하려 한다거나 自然에서 생산물을 확보하여 생활의 방편을 찾으려는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王維의 詩는 自然의 아름다움을 글자의 彫琢 없이 사실적으로 껌진하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意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詩들은 모두 自然의 風光이 禪悟의 심리에 비유되어 표현되거나 自然美의 감성형상 속에 禪悟가 함축되어 透寫되고 있다. 예를 들면 〈鳥鳴磻〉이나 〈辛夷塢〉 등에 나타나는 禪宗의 色空 관념은 사물의 실체로서의 客觀存在의 과정을 부정하고 모든 사물의 현상이 ‘寂滅’에 歸結됨을 나타내고 있다.

當時 道敎와 佛敎 중의 典故는 文士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는데 특히 偈頌類와 같은 文體의 유행은 詩歌언어의 世俗化와 理論化를 촉진시켰다. 佛家 성행이 唐詩 창작에 미친 더 보편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은 사람들의 思惟方式과 審美情趣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sup>63)</sup>

銳利하지만 迂廻하여 완곡하며 自由自在한 가운데 생동적이고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포괄시킴으로써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禪宗의 언어 풍격은 當時 詩歌 창작에 깊이 관여하여 王維의 自然詩 창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엿볼 수 있다.

道家에서는 모든 잡념과 집착을 버린 텅 빈 마음을 ‘心齋’라 하는데 “心齋는 곧 空虛이다(虛者心齋也).”<sup>64)</sup> 禪家에서는 道家의 心齋를 ‘淸淨心’이라 하고 ‘空性 즉 無我’라고도 한다. 또한 ‘고요에 머물러 마음을 모으고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명상법을 道家에서는 坐忘이라 하고 禪家에서는 ‘坐禪’이라고 한다.<sup>65)</sup> 또한 禪宗의 頓悟主義 속에 담겨진 언어에 대한 불신, 구체적인 비유와 유추, 그리고 역설적 표현, 직관적 인식 등은 道敎의 토착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자연과 인생의 일체감이 궁극적으로 해탈을 가져온다는 인식은 道나 佛性이 자연에 內在해 있다는 논리로 道敎와 佛敎가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근본이념이다. 이러한 논리는 장·단기적으로 觀照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매력을 주었다. 따라서 禪宗은 이미 唐代에 예술가나 문인들뿐 만 아니라 지식관료층 사이에 매력 있는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다.<sup>66)</sup> 이러한 時代思潮下에서 王維의 自然歸隱思想 초기에는 道家의 思想이, 후기에는 佛家的 思想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王維의 自然歸隱 詩속에는 道家의 思想과 佛家的 思想이 가미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sup>67)</sup> 당시 佛敎의 ‘空性’

63) 陳伯海 著, 李鍾振 譯, 《唐詩學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pp. 140-141 참조.

64) 《莊子·內篇》, 〈人間世〉 第四.

65) 오강남 풀이, 《장자》, 서울, 현암사, 2003, p. 185.

66) 아서 라이트지음, 양필승 옮김, 《中國史와 佛敎》, 서울, 신서원, 1997, p. 95-103 참조.

67)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p. 94. 王維詩 〈山中示弟〉等, “山林吾喪我, 冠帶你成人.……緣合妄相有, 性空無所觀. : 산림에서 나를 잃어 버렸고, 벼슬길에서 너는 사람이 되었구나.……인연이 만나면 망령된 모습을 지니고, 본성은 비었으니 가까이 할 것 없다.” ‘내가 나를 잃었다’는

과 莊子의 虛情思想은 일치하는 점이 꽤 있었기 때문에 道家와 佛家は 서로 쉽게 결합이 되었다.<sup>68)</sup> 따라서 王維의 自然歸隱思想을 초기의 道家的思想과 후기의 佛家的思想으로 나누어 구분 짓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 된다.

다만 詩人이 본래 추구했던 自然歸隱思想이 ‘無我的境地’ ‘虛靜’ ‘心齋’ ‘淸淨心’ ‘寂滅’ 등으로 불리어 어휘의 차별은 있을지언정, 詩人이 진정 바라던 것은, 마음을 비워 偏見도 執着도 없는 진정한 정신의 자유와 속세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육신의 자유를 自然에서 찾으려 했던 것으로 道家든 佛家든 그 근본이념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王維가 만년에 自然에 심취하여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던 사상은 대승불교의 禪思想이다.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인 般若經典의 教義는 ‘空의 사상’이다. 一切皆空과 無我是 같은 의미다. 즉 사물이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존재하는 것은 인과관계에 의한 실존일 뿐 실체는 없다. 실체가 없음은 존재하지 않음을 말한다. 실재하는 것은 인과 관계가 소멸될 때 사라진다. 그것은 일시적이어서 불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我是 내가 아니라 실체하는 존재다.<sup>69)</sup> 이것은 존재론적 논리다.

그렇다면 실천론적으로 말하면 어떤가. 붓다는 一切를 菩提로 보았다.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깨닫고, 괴로운 인생에서 해탈하라고 말한다.<sup>70)</sup>

佛家에는 一水四見의 이론이 있다. 사물은 보는 입장에 따라 변한다는 이론으로, 사물을 볼 때 눈앞에 있는 것이 실재인데,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재로는 그러한 고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에 따라 보인다는 것이다. 주관과 객관의 관계 즉 보는 것과 보이는 것(能取과 所取)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偏見과 執着이다. 어떠한 사물에도 執着하지 않고 偏見을 버리면 그 물질의 참된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곧 色卽是空이고 空卽是色이다.

《莊子·齊物論》의 南郭子綦의 말이다. ‘인연이 만났다’, ‘본성이 비었다’는 것은 불학의 관용적인 개념이다.

68) 아서 라이트 지음, 양필승 옮김, 《中國史와 佛敎》, 서울, 신서원, 1997, p. 103. ‘漸修와 頓悟 양대 줄기는 모두 道敎와 佛敎의 혼합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69) “因緣所生法, 我說卽是空.”

70) 장 부아슬리에 지음, 이종인 옮김, 《붓다》, 서울, (주)시공사, 2004, pp. 130-132 참고.

《般若經》에는 “만약 煩惱가 實體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 수 없다. 煩惱는 實體가 없는 空이다. 때문에 수행에 의해서 煩惱를 免할 수 있다.”고 說한다.<sup>71)</sup> 다시 말하면 실체가 空임을 인식하면 마음의 空을 행할 수 있게 되어 淸淨한 무위의 열반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維摩는 마음을 진실로 비우지 않고서 深山幽谷에 머물러 명상한다 해도 결코 참다운 지혜는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空思想의 실천을 현실적인 일상 생활 가운데서 전개하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심신을 노출하지 않고서 수양 좌선하는 보살의 宴坐를 강조하고 있다. 六波羅蜜<sup>72)</sup>의 실천을 出家主義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在家에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生活佛敎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王維가 추구했던 禪의 실천사상이며, 空과 寂의 추구이다. 따라서 우리는 王維의 自然詩 속에서 地主階級의 行樂的 觀念과 閒靜適意한 情趣의 崩潰사대부 情緒가 불교의 禪思想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3)</sup> 禪宗의 영향을 받았고 禪宗의 思惟 방식을 따랐던 王維의 詩歌風格과 表現방식이 중국사대부의 藝術思惟에 변화를 주었음은 물론이다.

王維는 嵩山에 隱居한 시기에 道敎사상에 심취 현실도피를 꾀하였고, 輞川 隱居 時期에는 모친과 道光禪師의 영향을 받아 佛法에 정진하였다.<sup>74)</sup> 그리하여 만년에는 佛家的 人生觀으로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自然 속에서 淸淨한 삶을 누리며 개인적 자유를 謳歌하였다.<sup>75)</sup> 우리는 王維의 自然詩 속에서 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시인자신의 독특한 觀念적 가치로 만들어낸 禪的 境界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그의 詩 속에 나타나는 隱遁思想에서는 半官半隱의 世俗的 타협의 결과물로 나타난 自足한 심정의 閑寂함을 감지할 수 있다.

71) 鄭性本, 《禪의 역사와 사상》, 서울, 불교시대사, 2000, p. 92.

72) 波羅蜜(Pāramita: 到彼岸의 뜻); 菩薩의 실천적 수행을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인 여섯 가지로 나눈 것.

73) 陳允吉지음, 一指齋김, 《중국문학과 禪》, 서울, 민족사, 1992, p. 94 참조.

74) 〈大薦福寺大德道光禪師塔銘〉, “維十年座下, 俯伏受敎: 저는 십년 동안 선사 밑에서 앞드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75) 金億洙, 〈王維詩研究〉, 《詩文集》 第27輯, 公州師範大學, 1989, p. 7.

### Ⅲ. 王維詩의 自然情趣 分析

王維의 중·만년의 半官半隱하며 피세 은둔한 소극적 삶의 중심에는 山水田園의 한가롭고 고요한 情緒 속에서 世俗의 번잡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이루고자했던 詩人의 自然歸隱思想이 자리하고 있었다.<sup>76)</sup>

安逸 自適한 생활을 옹호했던 王維의 중·만년 이후의 詩作에는 自然環境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情景와 隱者의 孤高하고 高尚한 風貌를 주제로 하는 閑靜逸致한 내용의 시편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田園樂〉 其二에서 詩人은 田園에 隱居하면서 閑靜한 생활을 누리고 싶은 심정을 벼슬살이와 비교한다.

다시 알현하니 만호 제후 봉해지고,	再見封侯萬戶，
잠깐 대화로 고리 옥 한 쌍 하사 받아도	立談賜璧一雙。
어찌 남향 밭 함께 하는 것만 하고,	詎勝耦耕南畝，
동쪽 창가에 고고히 누워 있음만 하리오.	何如高臥東牕。

시인은 농촌 사람들과 함께 밭 갈고, 때때로 隱者로서 閑寂한 생활 속에 삶의 이치를 터득하며 自然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벼슬도 이만 하겠느냐고 반문한다. 특히 그의 田園詩는 농촌과 농민들을 표현하기보다는 田園에 隱居하여 숨어사는 선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sup>77)</sup> 이에 해당하는 한 편의 詩를 살펴보기로 한다.

桃源에서 줄곧 세속의 번뇌를 끊고,	桃源一向絕風塵，
柳市 남쪽에 隱居하신 은자를 찾아 왔네.	柳市南頭訪隱淪。
문 앞에 이르러 凡鳥라 써 매달일 없다고,	到門不敢題凡鳥，
대나무 구경이야 주인에게 물어보라.	看竹何須問主人。

76)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교중문과, 박사학위논문, 1994, pp. 192-193 참조.

77) 王維 撰, 陳鐵民 校注, 《王維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前言, p. 6 참조.

성 밖에 푸른 산은 집안에 있는듯하고,	城外青山如屋裏,
東村에 흐르는 물은 西村으로 흘러든다.	東家流水入西隣.
문 닫아 걸어놓고 저술한지 여러 해라,	關戶著書多歲月,
씨 뿌린 술은 모두 용 비늘이 되었다.	種松皆老作龍鱗.

〈春日與裴迪過新昌里訪呂逸人不遇〉

여기서는 田園에 隱居하여 살고 있는 呂隱士를 만나고자 했던 王維가 본래의 목적인 呂隱士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呂隱士의 처소 일대의 한적한 환경과 풍경 그리고 세속의 잡념을 벗어버린 隱者의 생활을 自然스럽게 묘사하는 가운데 呂隱士의 孤高하고 安逸한 風貌를 흠모하고 있는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에는 風光의 맑고 그윽한 情趣와 평화롭고 한가로운 田園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또한 畫家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景物을 觀照하여 自然 景物의 특징적 형상을 포착하여 간결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그는 田園生活의 適意한 마음으로 山水를 이해했고, 山水景物의 幽靜함을 느끼면서 田園에 머무르고 싶어 했다. 그의 自然詩는 세속에서 조용히 물러나 自然에 隱逸하는데서 오는 閑寂한 情趣에 自足하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맑은 意境이 그윽하고 淸淡하며 고요한 것이 생기 충만한 境界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그의 隱逸한 心情과 自然의 아름다움이 한데 어우러진 한 편의 詩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黃河川으로 들어가면,	言入黃河川,
매번 청계 냇물 따라 가야하는데.	每逐淸溪水.
산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隨山將萬轉,
내가 가야 할 길은 백리도 못되네.	趣途無百里.
흩어진 돌 사이로 물소리 요란하고,	聲喧亂石中,
景色은 소나무 숲 깊으니 고요하다.	色靜深松裡.
출렁이는 물결위엔 마름 떠 있고,	漾漾汎菱符,
맑은 물속엔 갈대 그림자 드리운다.	澄澄映葭葦.

나의 본성 소박하고 한가로우니,  
맑은 냇물도 이처럼淡泊하구나.  
넓은 바위위에 머물기를 청하여,  
낚싯대나 드리우고 살고 싶구나.

我心素已閒,  
清川澹如此.  
請留盤石上,  
垂釣將已矣.  
〈青溪〉

黃河川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淸溪(지금의 陝西省 西鳳縣 동북쪽 시냇가), 그 시냇물은 산세를 따라 굽이굽이 흘러가지만, 그 물줄기는 장강처럼 길지도 웅장하지도 않는 겨우 백리길, 그러나 주변의 自然 風光은 맑고 그윽하며 고요하다.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물소리는 산의 깊음을 실감나게 하고 출렁이는 물결 위에 떠있는 수초와 고요한 수면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갈대는 독자로 하여금 맑고 고요한 정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詩人은 이와 같은 淸溪의 그윽하고 閑淨한 풍경을 對句와 疊語를 사용하여 景物이 살아 움직이듯 한 폭의 山水畫로 그려낸다. 전반부가 自然을 사실대로 묘사하고 있다면, 마지막 4구는 景物을 통하여, 세속을 떠나 한가롭게 세상을 觀照하며 살고 싶다는 閑逸한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이미 恬靜澹雅한 경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王維의 詩篇들 속에서는 山水自然의 景物 묘사가 뛰어난 절묘한 구절들을 접할 수 있다. 〈送方尊師歸嵩山〉가 그러한 詩의 예이다.

폭포는 소나무 삼나무 늘 비에 젖게 하고, 瀑布杉松常帶雨,  
비취빛 노을은 홀연 안개 되어 흩어진다. 夕陽彩翠忽成嵐.

詩人은 이 詩에서 自然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詩的 言語를 사용하여 하나의 景物로 아름답게 가꾸어 놓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藥家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슬부슬 가을비는 내리고, 颯颯秋雨中,  
쫄쫄 바위 위로 흐르는 물은 거세다. 淺淺石溜瀉.  
물방울 튀어 올라 절로 부딪치며, 跳波自相濺,  
백로는 놀라서 날다 다시 내려온다. 自鷺驚復下.

詩人은 의태어를 사용하여 시각적 현상을 강화하고 청각적인 의성어로 動的인 현상을 나타내며 결국 모든 것들이 저절로 살아나서 생기 넘치는 심산계곡의 適意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自然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이 고요함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詩人은 또한 벗과의 이별의 정감을 주변경물을 끌어와 더욱 실감나게 묘사하기도 하는데, 다음의 〈臨高臺送黎拾遺〉가 그러하다.

높은 누대 올라 떠나는 그대 바라보니,	相送臨高臺,
강물 흐르는 초원은 아득해 끝 간 데 없다.	川原杳何極.
해는 넘어가고 새는 돌아오는데,	日暮飛鳥還,
길 떠난 나그네는 쉬지 않고 멀어지네.	行人去不息.

말은 짧아도 작별의 아쉬움은 깊다. 벗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쉬움이 절절한 가운데 초원 저 멀리 아름다운 風光이 가슴 속으로 다가온다. 시인은 이렇듯 슬픈 감정마저도 아름다운 自然의 景物 속으로 감춰버린다. 그러나 독자는 시인의 애뜻한 벗에 대한 情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시인의 自然情趣 속에는 벗과의 離別의 情趣를 깊이 느끼게 하기도 하고 自然景物의 특징을 파악하여 절묘하게 표현해 내기도 한다. 때로는 농민들의 生活情趣를 나타내기도 하며 농촌의 風光을 그려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의 自然詩 속에는 많은 抒情的 情趣를 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王維詩의 自然情趣를 田園景物의 適意한 情趣와 山水風光의 閒靜한 情趣 그리고 自然詩 속의 畫意로 나누어 논의하기로 한다.

## 1. 田園 景物의 適意한 情趣

王維의 田園風光을 描寫한 詩 속에는 한가로운 농촌생활과 평화로운 農村情景이 넘쳐난다. 때로는 사회현실에 대한 방관자로서 농촌의 현실을 無視한 理想 樂園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田家〉의 내용에서처럼 농촌의 현실을 直視하여 사실적으로 묘사된 작품도 간혹 있다.

그러나 이런 詩作 속에서도 農村風光의 外觀的 現象에 대한 詩人의

憧憬을 엿볼 수 있다. 詩人은 田園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생활 속에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 했는데, 이것은 세속에 집착하지 않는 고상한 성품과 크게 관련이 있다. 詩人의 思想감정을 詩的 言語를 통하여 나타내는 바, 그의 詩 속에 농촌생활의 適意함은 바로 詩人이 추구했던 생활이 농촌에서 생활의 근거를 이루어 내려는 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농촌을 대상으로 自然의 아름다움을 동경했기 때문이다. 이제 詩人의 田園의 適意함을 표현하는 詩篇들을 감상해보자.

輞川에 못 와본지 일 여년 만에, 돌아오니 겨우 봄밭에 씨 뿌릴 때라. 빗 속 풀빛은 초록으로 물든 듯 하고, 냇가에 복사꽃은 붉게 타오르려하네. 우루스님처럼 경론에 밝으신 분과, 굽사등 노인 같은 마을에 어지신분. 서둘러 반갑게 맞이하고선, 서로 반갑게 형문 앞에서 담소 나눈다.	不到東山向一年, 歸來纔及種春田。 雨中草色綠堪染, 水上桃花紅欲燃。 優婁比丘經論學, 偃僂丈人鄉里賢。 披衣倒屣且相見, 相歡語笑衡門前。
--	--

〈輞川別業〉

일여 년 만에 돌아온 輞川의 봄은 빗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활기를 찾고 있다. 푸른색은 더욱 푸르고 붉은 꽃은 더욱 붉게 타오르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輞川 별장의 봄날, 詩人은 그 별장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유유자적하고 閒靜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었다.

벼슬을 떠난 詩人은 經論에 통달한 스님과 세속을 초탈하여 마을에 隱居하고 있는 어진 선비와 私心 없이 서로 반갑게 만나 한가롭게 담소하며 輞川의 風光을 마음껏 즐기고 있다. 농촌의 한가로운 情趣와 평화로운 風趣 속에는 사람의 인정이 가득 담긴 자유가 있다. 이 詩에서는 이러한 생활 속에 安居하고 있는 詩人의 適意함이 드러난다.

지붕위에 봄 비둘기 울어대고, 마을 가에 살구꽃은 하얗다.	屋上春鳩鳴, 村邊杏花白.
-------------------------------------	------------------

도끼 들고 높이 자란 나뭇가지 베어내고,	持斧伐遠揚,
호미 메고 논가에 솟는 물길 살펴본다.	荷鋤覘泉脈.
제비 돌아와 옛 둥지 알아보고,	歸燕識故巢,
마을 토박이는 새 책력 살펴본다.	舊人看新曆.
술잔 마주하고 문득 들지 못하고,	臨觴忽不御,
먼 길 떠날 나그네는 슬픔에 젖네.	惆悵遠行客.

〈春中田園作〉

봄 비둘기와 하얗게 핀 살구나무로 묘사된 이른 봄 농촌의 풍경은 한가롭다. 농부는 나뭇가지를 베어내고, 논 물길을 정리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새 冊曆에 절기를 살펴본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되는 농촌에는 생기가 돌아나는데 다시 속세로 가야하는 나그네는 슬프다. 속세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詩人에게 適意한 田園생활은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다.

輞川으로 돌아와 隱居한 이후,	一從歸白社,
다시는 청문에 가지 않았노라.	不復到靑門.
때로는 처마 앞 나무에 기대어,	時倚簷前樹,
멀리 구릉 위에 마을을 바라본다.	遠看原上村.
푸른 줄 풀은 물가 언저리에 비추고,	靑菰臨水映,
하얀 새는 산을 향해 날아간다.	白鳥向山翻.
욕심 없는 陳仲子는,	寂寞於陳仲子, <sup>78)</sup>
두레박에 물 길어 남새밭에 물 준다.	枯槁方灌園.

〈輞川間居〉

세속의 잡념들을 끊고 농촌으로 돌아온 詩人은 처마 앞의 나무에 기대어 가끔 먼 촌락을 바라보기도하고 산으로 날아가는 하얀 새를 바라보며 閑靜한 隱逸생활에서의 心身의 逸致함에 머무른다. 詩人은 齊나라의 은자

78) 皇甫謐, 《高士傳》, "窮不苟求, 不義之食不食,……遂相與逃去, 爲人灌園 : 전국시대 제나라의 隱君子로 이름은 陳仲子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의롭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다. 초왕이 재상으로 초빙했으나 도망가 남의 밭에 물대주며 살았다 함. 여기서는 王維 자신을 말하고 있다."

陳仲子를 인용, 자신의 隱居생활의 適意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詩人이 田園생활의 閑逸한 情趣 속에서 누리는 安貧樂道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王維가 輞川에 隱居하여 自然과 더불어 살면서 禪理를 추구했던 輞川에서의 생활이 매우 한가롭고 자적인 것이었다면, 그의 田園 山水 詩作 역시 隱士의 閑情逸致를 표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9)</sup>

늪은 농부 들관에서 돌아올 때,	田父草際歸,
시골 목동 빗속에 가축을 친다.	村童雨中牧.
주인은 동쪽 물가 언덕 밭에 오르고,	主人東阜上,
때 맞춰 뿌린 곡식 띠 집을 둘러 자란다.	時稼遶茅屋.
풀벌레는 구슬픈데 베 짜는 소리 나고,	蟲思機杼鳴,
참새소리 소란한데 벼와 기장 여문다.	雀喧禾稷熟.
	〈宿鄭州〉

詩人은 농촌생활의 適意한 風光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詩人의 마음에는 田園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향기로운 풀 무성하니 봄 푸르고,	萋萋芳草香綠,
늘어진 큰 소나무 여름 서늘하다.	落落長松夏寒.
소와 양 스스로 골목길로 돌아오고,	牛羊自歸村巷,
아이는 벼슬아치 의관을 알지 못한다.	童稚不識衣冠.
	〈田園樂〉其四

늦은 봄 초여름의 농촌 마을은 고요하고 적막하다. 한가로운 농촌의 평화스러움은 사람을 더욱 게으르게 하고 저물어 가는 마을 골목길엔 스스로 집 찾아 돌아오는 소와 양떼가 있어 농촌 풍경은 더욱 閑寂하고 평화롭게 느껴진다. 詩人은 마지막 句에서, 세속의 번뇌가 벼슬살이에서 오는

79)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교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7. p. 182.

것임을 인식하고 번뇌를 모르고 살아가는 농촌에 隱居하고 싶은 심정을 은근히 피력한다.

王維에게 田園은 세속적 다툼에서 탈피하여 閒逸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安息의 장소였다. 따라서 그의 田園詩를 통해 표현된 농촌생활은 농촌현실을 동경했다기보다는 농촌 自然의 風光과 風物을 동경했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王維의 山水 묘사에 대해서는 “清靜幽美하고 티 없이 순결한 일면을 특히 강조 한다”는 평도 있다.<sup>80)</sup>

<p>                 묵은 곡식 머지않아 다할 것 같고,                  잘 키운 곡식 싹은 아직 바랄 수 없네.                  노인은 이제 한 그릇의 죽도 아끼고,                  세밀에 입을 옷조차 없다.                  참새 푸른 이끼 낀 우물가에 알을 낳고,                  수탉은 거친 판자문 위에서 울어댄다.                  여윈 암소는 빨갛 실은 수레를 끌고,                  짚신 신은 목동은 돼지 농아기른다.                  저녁 비에 붉은 석류가지 부러지고,                  초가을 푸른 토란 날로 살찌간다.                  밭에 밥 나르고 뽕나무 아래 잠시 쉬며,                  해지면 농막 지나 잡초사이로 돌아간다.                  한가로운 삶의 터전 우공 골짜기,                  어찌 번거롭게 세속의 옳고 그름 물으리!             </p>	<p>                 舊穀行將盡,                  良苗未可希.                  老年方愛粥,                  卒歲且無衣.                  省乳青苔井,                  鷄鳴白板扉.                  柴車駕羸犂,                  草屨牧豪豨.                  夕雨紅榴折,                  新秋綠芋肥.                  餉田桑下憩,                  旁舍草中歸.                  住處名愚谷,                  何煩問是非.                  〈田家〉             </p>
---	---

王維는 陶淵明과는 달리 농촌의 빈곤한 살림을 소박한 삶으로 표현해내고 힘든 농촌 생활을 한가로운 情趣로 묘사함으로써 농촌을 이상세계로 구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陶淵明과는 또 다른 세계관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80) 北京大學, 中文系 篇, 《(新編)中國文學史》, 臺灣, 文復書店 영인본, 제2권, p.87 쪽, ··“(王維)寫山水則特別強調清靜幽美純潔無瑕的一面.”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중문과, 박사학위 논문, 1994, p. 186.

간밤에 비 내려 가벼운 나막신을 신고,  
 봄추위로 허름한 두루마기 걸쳐 입어,  
 논 틈워 맑은 물 나누어 대는데,  
 버들 사이로 복사꽃 붉게 피어있다.  
 풀 가에선 바둑 대국 벌여질 때쯤,  
 멀리 숲 끝으로 두레박틀 들려진다.  
 집에가 사슴가죽 안석 가져와선,  
 노을 지는 초원에 조용히 앉아 쉬노라.

宿雨乘輕履，  
 春寒著弊袍。  
 開畦分白水，  
 間柳發紅桃。  
 草際成棋局，  
 林端舉桔槔。  
 還持鹿皮几，  
 日暮隱蓬蒿。  
 〈春園卽事〉

이른 봄 아침날씨는 쌀쌀하다. 더욱이 비 오고난 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詩人은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농사철이 시작된 농촌 들녘을 한 바퀴 둘러본다. 농촌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한가로울 때가 있어 사람의 마음에 여유를 준다. 詩人은 농촌의 閑寂한 風景을 한가롭게 바라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석양이 시골마을 비출 때 면,  
 좁은 골목으로 소, 양떼 돌아온다.  
 시골 노인은 목동이 걱정되어,  
 지팡이 짚고 사립문 앞에 서있다.  
 꿩 울어댈 때 보리이삭은 꽤고,  
 누에 허물 벗을 땀 땀 땀 드물다.  
 농부들 호미매고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 나누며 헤어지기 아쉬워라.  
 바로 이런 한가로움이 부러워서,  
 쓸쓸한 마음 式微歌를 읊조리노라.

斜光照墟落，  
 窮巷牛羊歸。  
 野老念牧童，  
 倚仗候荆扉。  
 雉鳴麥苗秀，  
 蠶眠桑葉稀。  
 田夫荷鋤至，  
 相見語依依。  
 卽此羨閑逸，  
 悵然歌《式微》。

〈渭川田家〉

王維의 山水田園 묘사는 맑고 티가 없으며 속되지 않다. 이 詩는 농촌의 일상적인 生活風景을 잡다한 수식 없이 맑게 그려내고 있다. 이 詩는 또한

가난한 농촌의 한가한 풍경을 통하여, 인간의 삶의 가치가 결코 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情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3·4句와 7·8句에서 詩人의 생각은 정점을 향하고 진정한 농촌의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평화로운 농촌생활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한가로움을 맛볼 수 있으리라. 詩人은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쓸쓸한 마음을 마지막 聯에 실어 田園생활의 適意한 情趣를 그려낸다.

王維에게 있어서 田園은 閑寂한 생활의 適意함을 추구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그의 山水田園詩에는 혼탁한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隱逸하고 한적한 情趣를 찾으려는 隱逸생활의 심리적 근거가 들어 있다. 다음 詩에서 우리는 그의 隱逸한 생활 속에 閑寂한 情趣를 느낄 수 있다.

기수 가에 한가롭게 隱居하니,	屏居淇水上,
동쪽들 광활하여 산등성이 하나 없다.	東野曠無山。
태양은 산뽕나무 너머로 숨어들고,	日隱桑柘外,
석양에 물든 강물은 마을 사이로 반짝인다.	河明澗井間。
목동은 마을을 향해 가고,	牧童望村去,
사냥개도 사람 따라 돌아간다.	獵犬隨人還。
은자가 뭐달리 할 일 있겠는가,	靜者亦何事,
한 낮에 사립문 닫고 한가롭게 살리라.	荊扉乘晝關。

〈淇上卽事田園〉

광활한 들녘 저 멀리 산뽕나무 숲 너머로 지는 석양은 너무도 아름답다. 더욱이 붉은 노을이 강물에 返照되어 마을이 온통 핑크색 황혼으로 물들고 있는 情景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때맞추어 돌아가는 목동과 사냥개는 농촌의 한가로움과 평화로움을 한껏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詩人은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저녁녘 농촌의 아름다운 風光 속에서 閑寂한 安逸함에 젖어 고요함을 즐기고 싶다고 말한다.

복사꽃 붉은 빛은 지난 밤비 품어있고,	桃紅復含宿雨,
버들잎 푸른빛엔 봄 안개 휘감겼네.	柳綠更帶春煙。
꽃잎 떨어져도 아이야 쓸지 마라,	花落家僮未掃,
삵소리 우는 산에 객이 홀로 자고 있다.	鶯啼山客猶眠。

〈田園樂〉其六

자연스럽게 펼쳐진 농촌의 閑寂한 情景,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감이 주는 시각적 대비, 피꼬리 소리와 자고 있는 객의 청각적 대비, 靜的인 풍경에 대한 動的인 언어로 한 폭의 산골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詩人은 세속의 얽매임이 없는 정신과 육체의 자유를 自然의 閑靜함에서 찾고자 한다. “꽃잎이 떨어져도, 피꼬리가 울어대도, 객은 그저 자고 있을 뿐”, 이것이 王維가 바라는 ‘閑靜속에 심신의 자유를 추구하는 생활 情趣’이다.

王維는 세속적 다툼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추구하는 閑逸한 생활을 농촌의 고요하고 한가로운 풍경에서 찾으려 했다. 따라서 그의 중·만년 이후 詩作에서 나타나는 농촌의 閑寂한 情趣와 幽靜한 風光은 그 자신의 생활 관념을 반영하고 있을 뿐 농촌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객사에서 명절을 맞으며,	逆旅逢佳節,
떠나는 배 나아가질 못한다.	征帆未可前.
창문은 汴河水를 마주하고,	牕臨汴河水,
문 앞으로 초나라 사람의 배 지나간다.	門渡楚人船.
닭과 개 촌락에 흩어져 놀고,	鷄犬散墟落,
뽕나무 느릅나무 먼 밭을 가리 운다.	桑榆蔭遠田.
거처엔 사람이 보이지 않고,	所居人不見,
침석엔 구름 안개 서려있다.	枕席生雲煙.
	〈千塔主人〉

客사에서 맞는 명절은 쓸쓸하다. 客舍 밖 강물 위를 오가는 배를 바라보며 詩人은 상념에 젖는다. 이는 濟州로 부임하는 도중에 지은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으로, 농촌의 閑寂한 情趣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구름 안개 서려있는 清幽한 田園은 詩人의 마음에 두고 있는 意境을 담아 놓은 듯하다.

새벽닭 옆 마을에서 울어대니,	晨鷄鳴鄰里,
못 생명들 각자 일 따라 움직인다.	羣動從所務.
농부는 밭으로 음식을 나르고,	農夫行餉田,
아낙네는 길쌈을 한다.	閨婦起縫素.
	〈丁寓田家有贈〉

농촌의 평화로운 생활풍경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농촌은 한층 더 한가롭고 適意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산 깊으니 적막하여 인적은 없고,  
 숲은 울창하여 나무도 많다.  
 어진 신하들 조정에 가득한데,  
 그대는 어찌하여 빈 산골 찾는가.  
 문장 화답함이 적고 담긴 뜻은 깊으니,  
 깨달음은 어려워도 홀로 행함은 아노라.  
 돌 위로 흐르는 맑은 샘을 사랑하고,  
 소나무 숲 사이 초가와 함께 함을.  
 구름 속 깊숙이 들어가 닭을 기르고,  
 산꼭대기 위에 올라 송아지 기르노라.  
 神仙이 준 대추는 참외만하고,  
 호랑이는 살구 팔고 곡식을 거둔다.  
 재능 없는 나 어진 인재 앞길 막음 부끄럽고,  
 다 늙은 이 몸 국록 탐함도 부끄럽다.  
 맹세코 벼슬 버리고 그대 뜻 따르려하네,  
 어찌 詹尹에 물어 볼게 있는가.

山寂寂兮無人，  
 又蒼蒼兮多木。  
 羣龍兮滿朝，  
 君何爲兮空谷。  
 文寡和兮思深，  
 道難知兮行獨。  
 悅石上兮流泉，  
 與松間兮草屋。  
 入雲中兮養鷄，  
 上山頭兮抱犢。  
 神與棗兮如瓜，  
 虎賣杏兮收穀。  
 愧不才兮妨賢，  
 嫌既老兮貪祿。  
 誓解印兮相從，  
 何詹尹兮可卜。

〈送友人歸山歌〉

天寶 말년에 지은 것으로 짐작되는 詩로, 詩人은 神仙들의 고사를 인용하여 속세를 떠나 한적한 농촌에서 自然을 벗 삼아 神仙처럼 살고 싶은데, 이것을 굳이 점복을 맡고 있는 詹尹에게 물어볼 것이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다. 진정으로 自然을 사랑하고 自然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러하지 못하는 詩人의 심경은 착잡하다. 각 句마다 隱者의 生活情趣를 드러내면서 농촌 생활의 適意한 情趣를 추구하는 詩人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田園生活의 평화로움과 농촌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는 閒靜함이 있다. 시인은 이렇게 농촌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適意한 情趣를 자신의 隱逸思想 속으로 끌어들이므로써, 王維의 自然詩 속에는 農村風光의 평화롭

고 한가로운 情緒가 담겨져 있어, 농촌생활의 고달픔마저도 아름답고 閑寂한 情趣로 나타나고 있다.

## 2. 山水風光의 閒靜한 情趣

陶淵明에게 농촌이 삶의 생활 그 자체였다면, 王維는 田園의 適意함과 山水自然의 閒靜함을 추구하였다. 이것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에 대한 詩人의 동경이며 열망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개인의 삶의 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디에 비증을 두어야할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떠나 심신의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던 王維가 山水風光의 한가롭고 유유자적인 심정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고요한 산속 새롭게 비 내린 뒤, 날씨는 저녁이면 가을날이다. 밝은 달빛 솔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은 바위 위로 흐른다. 대숲 요란하게 빨래하던 아낙들 돌아가고, 연잎 흔들리며 고기잡이 배 내려간다. 향기로운 봄풀 저절로 시들어도, 왕손은 변함없이 산중에 머물 수 있노라.	空山新雨後, 天氣晚來秋。 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 竹喧歸澆女, 蓮動下漁舟。 隨意春芳歇, 王孫自可留。
--	--

〈山居秋暝〉

詩人은 새로운 비, 가을 기운, 밝은 달, 맑은 샘 등 네 개의 대상으로 상쾌한 가을 밤 풍경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초가을 산중에 첫 비가 내리면서 날씨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詩人이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순간 밝은 달빛은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밝게 비추고, 바위틈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샘물 소리는 밤의 고요함을 깊게 한다. 詩人은 잡념을 떨쳐버리고 맑고 고요한 심정으로(淸靜), 평온하고 그윽한 경지(閑情逸致)에 이르려는 순간, 정적을 깨는 대나무 움직임과 연꽃 흔들림이 詩人으로 하여금 다시 현실을 느끼게 한다.

詩人이 진정 바라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景에 情을 기탁하여 자신의

내심에 품고 있는 바를 말하는 詩人이, 진정 바라는 것은 혼탁한 세속의 벼슬 사회를 잊어버리고, 밝은 달(明月)과 푸른 소나무(靑松)와 맑은 샘, 대나무, 연꽃 등과 함께 그윽한 情趣 속에 安貧樂道를 즐기면서 고결하고 고상한 가운데 절조를 지키려는 幽美한 생활 속에 淸淨心을 추구하는 것이다.

조금은 흐린 날씨 가랑비는 그치고,	輕陰閣小雨,
깊은 뜰-락 한낫인데 문 열기 싫은 듯.	深院晝慵開.
앉아서 푸른 이끼 바라보고 있노라니,	坐看蒼苔色,
옷자락에 스며들어 물들이려하누나.	欲上人衣來.
	〈書事〉

비 그친 뜰-락의 고요함 속에는 게으른 자유를 추구하는 閑情함이 있다. 이것이 詩人의 意象이라면, 옷자락에 스며드는 이끼의 푸른빛은 詩人의 意境이다. 王維는 이 한 편의 詩를 통하여 空寂의 경지와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보여준다. 이 詩는 고요한 생활의 情趣가 잘 드러나 있는 詩로 세상을 잊은 詩人의 淸靜한 心情이 自然에 몰입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가을 빛 아름다운 情趣 있거늘,	秋色有佳興,
더욱이 못가에서 한가함에 젖는 그대.	況君池上閒.
한가로이 서쪽 숲으로 隱居하니,	悠悠西林下,
앞산 가을 情趣 저절로 느껴진다.	自識門前山.
검푸른 산색은 천리에 가로 뻗고,	千里橫黛色,
수많은 산봉우리 구름사이로 솟아있다.	數峯出雲間.
높고 험한 산은 秦나라를 마주하고,	嵯峨對秦國,
겹친 봉우리가 사립문을 숨긴다.	合沓藏荊關.
그치다 남은 비는 햇살 사이로 비끼고,	殘雨斜日照,
저녁 안개 속으로 새들 날아 돌아간다.	夕嵐飛鳥還.
옛 친구 마음은 지금도 여전한데,	故人今尙爾,
이와 같이 늙어 감을 탄식할 뿐이네.	歎息此頽顏.

〈崔濮陽兄季重前山興〉

이 詩는 天寶 13년(754) 혹은 天寶 14년(755) 가을 王維가 輞川에 隱居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 작품으로,<sup>81)</sup> 詩人은 맑고 아름다운 가을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특히 푸른 계곡 사이의, 붉고 노란 색깔로 어우러진 가을 산의 情趣는 화려하다. 봄 색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면, 가을 색은 사람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한다.

詩人은 가을향기에 젖어 隱逸생활의 한적한 情趣를 한 폭의 수묵화로 그려내고 있다. 허전함은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데에서 기인한다. 自然의 한정함이 절로 느껴지는 詩로 부족함이 없다.

가을 하늘 맑아서 높고 아득한데	秋空自明迢,
하물며 속세를 멀리 하고 있으며.	況復遠人間.
모래톱엔 두루미 있어 상쾌한데	暢以沙際鶴,
구름 밖 산 경치는 더욱 즐겁다.	兼之雲外山.
잔잔한 물결은 지는 노을에 출렁이고,	澄波澹將夕,
밝은 달 비쳐오니 이제 한가롭다.	淸月皓方閒.
이 밤 외로운 뱃전에 기대어 노닐며	此夜任孤棹,
아쉬워 주저하며 돌아갈 줄 모른다.	夷猶殊未還.
	〈汎前陂〉

이 시는 輞川의 池塘에 배를 띄우고 한가로운 情趣에 흠뻑 젖어 세상만사를 잊어버린 詩人의 閑情逸致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首聯에서 詩人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 별천지 무릉도원의 그윽한 풍취 속으로 독자를 끌어 들인다. 頷聯과 頸聯에서 詩人은 탈속의 깊은 忘却으로 세상일을 잊어버린 閑寂한 풍취 속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한가롭고 閑靜한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다. 尾聯에서, 詩人은 세속을 떠난 自然에서 진정한 樂道의 생활을 영원히 추구하며 혼탁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함을 아쉬워하고 있다.

81) 王維 撰, 陳鐵民 校注, 《王維集校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7, p. 497.

수많은 큰 키 나무 우거진 숲엔,	喬木萬餘株,
맑은 물이 그 사이를 뚫고 흐른다.	清流貫其中.
앞쪽이 큰 강 입구에 맞닿아 있어,	前臨大川口,
탁 트인 사방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豁達來長風.
수면에 이는 물결은 흰 모래를 적시고,	漣漪涵白沙,
은빛 물고기 허공을 헤엄치는 듯하고.	素鮪如游空.
넓은 너럭바위 위에 누워 있으니,	偃臥盤石上,
거친 파도가 微軀한 이 몸을 씻는다.	翻濤沃微躬.
흐르는 물에 양치하고 발을 씻으며,	漱流復濯足,
앞쪽에는 고기 낚는 노인을 마주하거늘.	前對釣魚翁.
미끼 탐내는 물고기 가히 얼마나 될 고,	貪餌凡幾許,
고기는 연잎 동쪽에서 놀기만을 생각할 뿐.	徒思蓮葉東.

〈納涼〉

詩人은 전반부에서 自然景物의 情致한 풍광을 한 폭의 동양화로 묘사한다. 중반부에서 詩人은 自然에 몸을 기탁하여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閑情함을 즐기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詩人의 마음은 隱逸의 故事를 인용하여 自然에 隱居하여 세상을 초탈하고 싶은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벼슬은 결코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는 言外之意의 意境을 나타내고 있다. 陳鐵民의 《王維集校注》주석에는 이 詩를 “이 詩에 묘사된 景物과 사용된 언어들은 〈靑溪〉와 매우 유사한데, 이 또한 蜀으로 가는 도중에 黃河川에 이르렀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sup>82)</sup>고 평하고 있다.

배꽃 한가롭게 섬돌 가 풀 위에 떨어지고,	閒灑堦邊草,
문발 밖 바람 따라 가볍게 흩날린다.	輕隨箔外風.
피꼬리는 꽃잎 희롱 부족한 듯,	黃鶯弄不足,
꽃잎 입에 물고서 미양궁에 날아든다.	嚙入未央宮.

〈左掖梨花〉

82) 王維撰, 陳鐵民校注, 《王維集校注》一冊, 北京, 中華書局, 1997, p. 92. “此詩所描寫的 景象及所使用的語言, 與上詩頗接近, 疑亦入蜀途中經黃花川時所作.”

이 詩는 乾元 2년(759) 봄에 쓴 작품으로 봄날 한낮의 나른함과 한가로운 情趣를 담고 있다. 山水풍광의 한정한 情趣가 두드러진다.

초록빛 고운 잎 새 한가롭고 고요한데,	綠艷閒且靜,
붉은색 얇은 꽃 빛 다시 점점 붉어간다.	紅衣淺復深.
꽃 마음 근심 많아 애끊는 듯 하건만,	花心愁欲斷,
가는 봄은 어찌하여 그 마음을 모를까.	春色豈知心.

〈紅牡丹〉

모란꽃은 詩人의 마음이다. 늦은 봄날 詩人은 가는 봄날을 아쉬워하면서 한가롭게 하루를 보낸다. 봄날의 한정한 情趣를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는 이 詩는 山水風光의 閑靜한 情趣를 초록빛과 붉은 빛으로 화려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가는 봄날은 詩人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劉勰은 《文心雕龍·物色》에서, “사물의 형상을 적절하게 묘사해낸 오묘한 언어는, 인주에 찍힌 도장처럼 더 이상 조탁할 필요도 없이 미세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재현해낸다.”<sup>83)</sup>고 했다. 우리는 이 한 편의 詩에서 劉勰의 말한 의미를 느끼게 한다.

가을 산 석양에 노을을 거두고,	秋山斂餘照,
나는 새들은 앞선 짝을 쫓는다.	飛鳥逐道侶.
비취빛 산색은 더욱 또렷한데,	彩翠時分明,
저물녘 산기운은 머물 곳 없네.	夕嵐無虛所.

〈木蘭柴〉

詩人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自然을 觀照하며 한 글자의 彫琢도 없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句에 이르러 詩人은 자신의 심오한 意境을 슬쩍 드러내고 있다. 이 詩에 대하여, 淸의 王士禛은 《帶經堂詩話》卷14에서 “王維는 20字로 終南山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二十字眞爲終南寫照也)”고 감탄한 바 있다.

83) “故巧切狀，如印之印泥，不可雕削，而曲寫毫芥。”

경쾌한 쪽배에 귀한 손님 모시고,  
배는 한가로이 호수를 건너온다.  
난간에 기대어 술잔 마주하니,  
사방에는 연꽃이 활짝 피었구나.

輕舸迎上客,  
悠悠湖上來。  
當軒對樽酒,  
四面芙蓉開。  
〈臨湖亭〉

이 詩는 遠近法에 의하여 살아 움직이는 듯한 立體感으로 描寫된다. 먼 곳에서부터 점점 詩人의 곁으로 다가와서 실로 아름다운 風光을 그려내는 것이다. 더욱이 한 잔의 술과 주위의 연꽃은 詩人의 閑情逸致함을 더욱 드러나게 한다.

적막감은 사립문을 덮고 있고,  
아득함을 석양을 마주하고 있다.  
두루미 소나무 가지마다 둥지를 틀고,  
사람들 사립문에 찾아들도 드물다.  
대나무 어린 순엔 새 가루 묻혀있고,  
붉은 연꽃은 지든 꽃잎 떨어져버린다.  
멀리 나무터엔 등불 타오르는데,  
곳곳마다 마름 따서 돌아들 온다.

寂寞掩柴扉,  
蒼茫對落暉。  
鶴巢松樹徧,  
人訪華門稀。  
嫩竹含新粉,  
紅蓮落故衣。  
渡頭燈火起,  
處處採菱歸。  
〈山居卽事〉

寂寞함과 아득함으로 세상은 寂滅의 세계 속으로 잠기고 소나무 가지에 둥지를 튼 두루미와 사립문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드문 사실을 통해, 詩人은 閑逸한 隱居의 세계를 표현한다. 대나무와 붉은 연꽃의 대비는 새로움과 낡음을 통한 無常함의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詩人은 나무터의 등불과 마름을 따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비시켜 현실생활 속에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오는 한가함을 즐기고 있다. 이 詩의 곳곳에는 閑靜한 自然이 표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張謙宜는 《網齋詩談》 卷五에서 이 詩를 두고 “‘두루미 소나무 가지마다 둥지를 틀고, 사람들 사립문에 찾아들도 드물다.’는 적막한 가운데 景色이

살아있는 듯 생기가 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84)</sup>

시인의 自然歸隱思想 속에는 士大夫文인들이 추구했던 閒靜한 情趣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詩 한 편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나이가 드니 오직 고요함이 좋아서,	晚年惟好靜,
세상만사에는 관심이 없다.	萬事不關心.
스스로 돌아봐도 별수 없으매,	自顧無長策,
할 수 없이 옛 숲으로 되돌아 왔네.	空知返舊林.
솔바람 불어오니 허리끈 풀어놓고,	松風吹解帶,
산 위에 달은 거문고 타는 나를 비춘다.	山月照彈琴.
그대는 궁통의 이치를 묻지만,	君問窮通理,
어부의 노래는 포구 깊숙이 들려온다네.	漁歌入浦深.
	〈酬張少府〉

詩人은 만사를 그저 운명에 맡기고 세상이 가는 대로 방관할 뿐 인생의 得과 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山水自然에 隱居하여 主觀精神의 자유 경지를 추구했던 詩人은 오직 ‘고요함’만이 좋을 뿐, 벼슬이 좋고 나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부의 노래가 들려오는 포구의 自然이 편안할 뿐이다.

이와 같이 詩人은 自然景物에 隱逸한 生活情趣와 淸淨한 禪趣를 畫意에 담아 그림처럼 그려냄으로써 自然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세계를 구축하였다.

### 3. 自然詩 속의 畫意

繪畫가 空間상에 遠近과 線, 明暗과 色을 매개로 구체적인 형상들을 시각적 차별을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후 화면의 예술적 효과를

84) 王維 撰, 陳鐵民校注, 《王維集校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97, p. 451. “鶴巢松樹徧, 人訪華門稀, 寂寞中景色鮮活.”

얻어낸다면, 詩는 언어를 매개로 삼는다. 그러나 언어는 형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詩는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과 연상을 일으켜 聲과 色과 形으로 구체화하게 한다.

간결하면서도 돌출적인 표현으로 독자의 상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王維의 景物描寫는 이러한 繪畫의 기교를 詩歌에 응용한 것이다. 그는 사물의 성격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여 절실한 부분을 알맞게 안배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대담하게 생략한다. 그는 언어에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無限한 聯想과 상상력에 빠져 다시 聲과 色과 形으로 재창조하도록 한다.

盛唐時代의 自然詩派 詩人들은 창작활동을 통하여 自然과의 교감을 繪畫적으로 형상화시켜 표현하였는데, 그 대표적 詩人인 王維는 陶淵明과 謝靈運의 田園과 山水詩를 계승 발전시켜 繪畫의 수법으로 詩情을 표현함으로써 가장 큰 성취를 이룬 詩人이었다.

謝靈運의 山水詩가 景物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자세히 묘사함으로써 形似(형태의 닮음)에 치우쳐 神似(정신의 표현)를 소홀히 하고 詩意가 번잡하여 독자로 하여금 聯想의 기회를 잃게 하였다면, 王維의 詩는 묵은 먹물로 바림을 해서 뜻을 담고, 선명한 색채로 구성하여 自然의 조화를 표현해냄으로써 ‘말은 다해도 뜻이 끝이 없는(言有盡而意無窮)’ 예술적 매력을 낳고 있다. 또한 화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경물을 觀照하고 自然景物의 특징적 형상을 포착하여 간결한 언어로 경물의 특색을 선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을 하도록 만든다.

중국의 詩人들이나 畫家들이 山水를 감상하는 데는 몇 가지 규범이 있다. 畫家들은 경치를 마주하고 寫生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면 감정은 산의 경치로 충만하고, 바다를 볼 때는 意象이 바다와 함께 넘치는,”<sup>85)</sup> 경치를 마주하고 관찰을 한 후에 觀念으로 사물을 觀照하여 實景을 보지 않아도 意象을 구성할 수 있는 境地에 이른 후에 形을 마음에 두고 神을 그려낸다. 그래서 “실컷 돌아다니며, 한껏 보고나서 그것이 가슴속에 뚜렷하게 새겨진”<sup>86)</sup> 후에야 붓을 드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中國畫가 사물의

85) 劉勰, 《文心彫龍·神思》, “登山則情滿於山, 觀海則意溢於海.”

86) 郭熙, 《林泉高致》, “飽游飫看, 歷歷列羅於胸中.”

드러난 실체(形似)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내기보다 작가의 내면에 감춰진 드러나지 않는 의미(神似)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중국 山水詩는 대부분 눈에 들어온 것을 詩 속에 담아낸다. 따라서 “눈으로 경물을 바라보면, 경물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마음과 경물이 서로 통하면 경물은 말로 표현 된다.”<sup>87)</sup> 詩人은 自然의 객관적 경물에 주관적 抒情과 思想을 융해시켜 意象을 묘사하기도 하고, 意象에 詩人의 情趣를 나타내면 情과 景은 서로 相生하여 自然은 저절로 나(我)와 하나가 되어 詩의 境界가 붓끝에서 새로운 예술로 창조되어 작품 속에는 自然 意境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작가는 마음을 비우고(虛情) 自然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고 觀照하는 가운데 신비로운 自然의 韻致를 체득해야한다.<sup>88)</sup>

在家者로 禪의 修行者인 王維는 山水自然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노래한 山水田園詩派의 始祖이다. 또한 明의 董其昌에 의해 南宗畫의 鼻祖<sup>89)</sup>로 추앙 받는 뛰어난 山水畫家로 음악에도 능통하였다. 繪畫에 있어서 수묵을 가장 으뜸으로 삼는<sup>90)</sup> 王維는 당시 李思訓과 吳道玄의 화법에다가 蘆鴻의 隱逸的이며 사대부적인 繪畫思想을 加味하여 후세에 그를 南宗畫의 始祖로 불리우게 되는 자신만의 독특한 畫風을 이루었다.<sup>91)</sup> 따라서 王維의 山水田園詩는 繪畫的 바탕에 언어의 예술성을 표현한 것으로 그의 自然詩를 論함에 있어서는 禪趣와 함께 繪畫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그의 自然詩 속에는 色彩 표현의 두드러진 예술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王維의 개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王維의 초기 繪畫 작품이 李思訓의 艷麗한 색채 특징의 영향을 받은\_결과로 짐작할 수 있겠다.<sup>92)</sup>

詩와 繪畫는 비록 외적으로는 장르가 다를지라도, 사물의 객관적 표현에 만족하지 않고 주관적 표현을 요구하는 점은 같다. 다만 형상을 재현하고

87) 遍照金剛, 《文鏡秘府論》, “目睹其物,即入於心,心通其物,物通即言.”

88) 張法 著, 유중하 외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서울, 푸른 숲 1999, pp. 374-384 참조.

89) 明·董其昌, 《畫旨》, “南宗則王摩詰詩用渲染.”

90) 王維, 《畫學秘訣》, “夫畫道之中水墨最爲上.”

91) 金鍾太 編, 《東洋畫論》, 一志社, 1997, pp. 127-128 참조

92) 金鍾太 編, 《東洋畫論》, 一志社, 1997, p. 129 참조

自我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審美的으로는 서로 상통하므로 內的境界는 같다. 王維의 詩 속에 그림보다 더 정교하고 치밀한 詩的 그림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蘇軾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뜻을 그려 내는 것이지, 형태를 그리는 것이 아니며, 詩를 잘 짓는 사람은 뜻을 말하는 것이지 사물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善畫者畫意不畫形, 善詩者道意不道名”)라고 하여, 예술이란 객관 사물과 주관 정신의 결합이라는 점을 중시했을 뿐 詩와 繪畫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의 詩와 繪畫의 공통점을 생략과 함축에 둔다면, 중국의 수묵화는 餘白과 먹색을 이용하여 實(그림)과 虛(餘白)로 대비를 이루어 그리기(實)를 생략하여 餘白(虛)을 아우르고 虛景(餘白) 속에 實景(그림)이 있어 虛(餘白)와 實(그림)이 서로 어울려 그리지 않은 곳도 모두 妙境을 이루게 된다.<sup>93)</sup> 따라서 중국화의 화면 속의 餘白은 중국 화가들이 주관적 공간의 식으로 實景 속에 餘白(虛景)을 통하여 화면과 화폭 바깥의 서로 아우러져 주관의식상의 공간 감각을 창조해낸 것이다.<sup>94)</sup> 詩의 최고경계 역시 뜻이 아득한 곳으로 이어진 ‘言外之意’, ‘味外之味’ 한 맛이 담겨져야 한다. 이것이 詩人들이 추구하는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나의 마음은 더욱 고요 해진다”<sup>95)</sup>는 悟妙한 말의 공간 의식이다.

王維는 이러한 詩와 그림이 추구하는 근본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들을 잘 조화시켜 詩와 繪畫가 결합된 抒情藝術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王維의 山水田園詩 속에는 靜態的이며 繪畫的인 餘白의 미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寫景과 抒情이 어우러진 새로운 境界를 발견하게 된다.<sup>96)</sup> 蘇軾의 《東坡題跋》卷五, 〈書摩詰藍田煙雨圖〉에, “摩詰의 詩를 맛보면, 詩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의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詩가 있다 (味摩詰之詩, 詩中有畫, 觀摩詰之畫, 畫中有詩)”라 함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王維는 《畫學秘訣·山水訣》에서, “봄 경치는 안개 자욱하며 긴 연기가

93) 清·笪重光, 《畫筌》, “虛實相生無畫處皆成妙境. : 허와 실이 상생하면 그리지 않은 곳도 모두 묘경을 이루게 된다.”

94) 陳傳席 著, 安永吉 譯, 《傳抱石》, (주)시공사·시공아트, 2004, pp. 155-157 참조

95) 明·袁中道, 《珂雪齋文集》卷六, “故泉愈喧, 直吾神愈靜也.”

96) 오대석, 《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 역락출판사, 2001, p. 350 참조.

하얗게 피어오르고, 물은 마치 쪽빛으로 물든 듯하며 산 빛은 조금씩 푸르러간다. 여름 경치는 고목이 하늘을 덮고 푸른 물은 파도가 없이 잔잔하며 폭포는 구름을 뚫고, 물가에 정자는 그윽하다. 가을 경치는 하늘이 마치 물빛 같고 숲은 우거져 울창하고 가을 강 위를 기러기가 날고 모래밭 갈대는 무성하다. 겨울 경치는 대지에 눈이 덮이고 나무꾼은 뿔감을 등에 지고 색칠한 배는 강기슭에 매여 있고 물은 맑고 모래는 드러나 있다.”<sup>97)</sup> 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특징되는 情景를 마치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진 4폭 병풍을 보여주듯, 또한 自然에 의거한 작가의 情趣를 나타내듯, 자신의 自然 意境을 말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는 색채감과 遠近 묘사가 뛰어나며 繪畫의 構圖法을 이용하여 自然景物들을 적절히 안배하여 그림 같은 언어묘사로 한 편의 詩로 아름다운 自然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그의 詩 속에 遠近法이 뛰어난 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비 막 갠 들판은 더욱 넓어 보여, 눈길 닿는 끝까지 티끌 한 점 없다. 바깥 성문은 나루터에 맞대 있고, 마을 어귀 나무는 계곡 들입에 이어있다. 하얀 강물은 밭 넘어 들밖에 반짝이고, 푸른 산봉우리 산 너머에 솟아 있다. 농사철이라 한가한 사람 없고, 식구들 모두 남향 밭에서 일한다.	新晴原野曠, 極目無氛垢。 郭門臨渡頭, 村樹連谿口。 白水明田外, 碧峰出山後。 農月無閒人, 傾家事南畝。 〈新晴野望〉
--	--

王維는 《畫學秘訣》에서, “비가 개이면 구름 걷혀 하늘은 파랗고 얇은 안개가 내리며, 산은 푸른 물기를 더하고, 해는 비치는 빛이 가깝다(雨霽則雲收天碧, 薄霧菲微, 山添翠潤, 日近斜暉).”라고 했는데, 이 詩도 이와

97) “春景則霧鎖煙籠, 長煙引素, 水如藍染, 山色漸青. 夏景則古木蔽天, 綠水無波, 穿雲瀑布, 近水幽亭. 秋景則天如水色, 蒹葭幽林, 雁鴻秋水, 蘆島沙河. 冬景則借地爲雪, 樵者負薪, 畫舟倚岸, 水淺沙平.”

같다. 詩人은 바깥 성문과 마을 어귀 나무로 원근을 나타내고, 하얀 강물과 푸른 산봉우리로 색채감을 나타내어 田園의 適意한 풍광을 한 폭의 동양화로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王維의 山水田園詩에서 自然은 주관적 색채를 배제하고 山水의 형태적 특징과 성격 특징을 글자의 조탁 없이 사실적으로 간략하게 묘사된다. 明·董其昌은 畫論에서, “王維의 山水詩가 神品에 들어가 있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王維詩 속에 담겨진 그림 같은 詩句 역시 形似와 神似에 通達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98)</sup>

산 아래 먼 촌락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고,	山下孤煙遠村,
하늘가 넓은 들엔 홀로 선 나무 하나.	天邊獨樹高原。
한 쪽박 물만으로 顏回는 누추한 골목에,	一瓢顏回陋巷,
五柳선생과 문 맞대어 사노라.	五柳先生對門。
	〈田園樂〉 其五

詩人은 나지막한 언덕에 앉아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면서 한가롭고 평화로운 농촌정경을 한 폭의 동양화로 散點透視하고 멀리 피어오르는 연기와 고원에 서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한 空間上에 遠近으로 배치하여 그려내고 있다.<sup>99)</sup> 또한 隱逸생활의 한가롭고 편안함을 顏回와 陶淵明을 불러내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安貧樂道의 즐거움과 高潔함을 은근히 드러낸다.

98) 董其昌, 《畫眼》, “右丞山水入神品, 昔人所評, 雲峰石色, 迥出天機, 筆意縱橫, 參乎造化, 唐代一人而已: 王維의 山水詩는 신품에 들어간다고 옛 사람이 평하는 바, (그의)구름 낀 산봉우리와 바위의 모습은 그옥이 自然에서 나왔으며, 筆意는 자유분방하여 自然의 조화에 일치하니 당대 최고다.”

99) 《畫禪室隨筆》卷二, “明·董其昌 曰: “山下孤煙遠村, 天邊獨樹高原. 非右丞工于畫道, 不能得此語, 米元暉猶謂右丞畫如刻畫, 故余以米家山寫其詩.” : 명대 동기창이 말하기를 “산 아래 먼 촌락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고, 하늘가 넓은 들판에 홀로 선 나무 하나는 王右丞이 畫道에 능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말인데, 米友仁은 王維 그림이 마치 판박이 그림 같아서 배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米家山을 그려 이 詩를 묘사했다.”라고 말했다.”

北柁 欽湖 북쪽 기슭에는,	北柁湖水北,
온갖 나무 그림자 붉은 난간에 비치고.	雜樹映朱欄.
남천의 물빛은 굽이굽이 이어져,	逶迤南川水,
푸른 숲 아득한 끝으로 감박거린다.	明滅靑林端.
	〈北柁〉

王維 詩의 自然景物 묘사는 그윽한 가운데 아득함을 느끼게 한다. 잘 다듬어진 遠近 배치로 南川 물빛에 투영된 景物이 끝없이 이어져 멀리 나무 숲 사이로는 보이는 듯도 하고 보이지 않는 듯도 한 아득함은, 잘 그려진 한 폭의 동양화에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서 그림 밖으로 뛰쳐나올 것과 같은 動態感을 지닌다.

王維의 詩 속에 색채감을 나타내고 있는 詩를 감상해 보기로 한다.

荊溪에 물 줄어 흰 돌 드러나고,	荊溪白石出,
날씨 싸늘하니 단풍마저 드물다.	天寒紅葉稀.
산길은 원래 비 내리지 않았건만,	山路元無雨,
산속 질푸름이 사람의 옷을 적신다.	空翠濕人衣.
	〈山中〉

초겨울 산 계곡은 시냇물이 줄어 바닥에는 흰 돌이 드러나 있고 날씨는 점점 추워지니 붉은 단풍은 거의 다 떨어져 산속은 더욱 삭막하다. 그러나 산속에 낙엽 지니 바위틈에 푸른 이끼는 더욱 푸르게 돋보이고, 그 푸른빛은 詩人의 옷자락을 적셔놓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흰색과 붉은색 그리고 푸른색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초겨울 산속의 정경은 생기를 되찾고 詩人은 靜寂安逸의 정점에 서 있다.

王維는 山水畫論 《畫學秘訣》에서, “自然의 성격을 표현하여 造化와 功”을 이루며 혹은 咫尺의 圖와 百千里의 경치를 그린다. 東西南北이 눈 앞에 있고, 春夏秋冬이 붓에서 생긴다.<sup>100)</sup>고 말한다. 六朝 南宋의 宗炳

100) “肇自然之性，成造化之功，或咫尺之圖，寫百千里之景．東西南北，宛爾目前，看春夏秋冬，生於筆下．”

(375-443)도 《畫山水序》에서, “이제 흰 화폭을 펼치고 멀리 비추면, 곤륜산과 같은 거대한 산의 모습도 작은 화폭에 담을 수 있다. 세로로 그은 세 치의 획은 천 길의 높이에 해당하고 가로로 그은 몇 자의 먹으로 백리나 되는 멀리 펼쳐진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sup>101)</sup>고 한 것도 오늘날의 透視學에서 평면입체를 담아내는 개념인 遠近과 高低의 비례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다. 詩人 王維 역시 繪畫上의 遠近과 高低 비례를 詩에 교묘히 응용하여 自然景物의 웅장한 모습을 평면입체로 담아 한 폭의 거대한 山水自然을 그려내듯 몇 자 안 밖의 응축된 필법으로 自然景觀을 묘사해냄으로써, 마치 景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한 작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종남산 태을봉은 皇都에 가깝고,	太乙近天都,
산줄기 이어져 바다에 닿아 있네.	連山到海隅.
저 멀리 바라보니 흰 구름 모여들고,	白雲迴望合,
파란 안개 속은 들어가니 자취도 없다.	靑靄入看無.
나뉜 들판은 中峰에서 변화하여,	分野中峰變,
맑고 흐린 것이 골짜기마다 다르다.	陰晴衆壑殊.
사람 사는 곳에 묵어갈 양으로,	欲投人處宿,
시냇가 건너편 나무꾼에게 물어본다.	隔水問樵夫.
	〈終南山〉

멀리 산 능선을 따라 길게 뻗어있는 봉우리들을 바라보다가 안개 자욱한 숲을 바라보니 산봉우리 주위로 구름들이 모여든다. 산을 중심으로 한 쪽은 맑고 다른 한쪽이 흐린 것은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이니, 詩人은 개울 건너 뿔감을 등에 진 나무꾼에게 마을이 어디냐고 물어본다. 詩人은 동양화의 散點透視를 채택하여 멀리, 가까이 그리고 주변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自然의 심오함에 젖어 있다.<sup>102)</sup> 화가의 눈으로 바라본 풍경은 詩人

101) 陳傳度 編著, 安永吉 譯, 《傳抱石》, 서울, (주)시공사·시공아트, 2004, p. 153, 인용. “今張絹素以遠映, 則崑閬之形, 司圍於寸之內. 堅劃三寸, 當千仞之高, 橫墨數尺, 體百里之迥.”

에 의하여 한 폭의 잘 그려진 동양화로 창조되어 詩的 言語로 描寫되고 있다.

이어서 〈漢江臨眺〉를 보기로 한다.

초나라 변방은 三湘에 접해 있고, 荊門山은 장강의 아홉 지류와 통해 있다. 강물은 하늘 밖 지평선 넘어 흐르고, 먼 산 경색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린다. 마을들 갯가 앞에 떠 있는 듯 하고, 출렁이는 강물은 먼 하늘가에 넘실댄다. 襄陽 땅 아름다운 풍광 속에, 머물러 산옹과 더불어 취하리.	楚塞三湘接, 荊門九派通. 江流天地外, 山色有無中. 郡邑浮前浦, 波瀾動遠空. 襄陽好風日, 留醉與山翁.
--	--

강물은 아득히 넓고 그 흐르는 끝은 어디인지 모른다. 그 너머에 아득한 산 모습은 있는 듯 없는 듯한데, 마을은 포구 앞에 마치 떠있는 듯한 착각을 詩人은 자연스럽게 말한다. 遠近을 이용한 構圖의 배치에 있어서 절묘한 繪畫의 美感를 느끼게 하는 이 詩는 한 폭의 수묵화를 연상케 한다. 특히 頷聯과 頸聯이 하나하나 독립된 동양화로 표현된 듯한데, 詩人은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 폭의 화폭에 몽쳐놓게 한다.

중국 역대 自然詩에서 自然과 인간이 함께 대상으로 등장한 예는 陶淵明을 제외하고는 王維詩가 최초의 예인데,<sup>103)</sup> 이렇듯 詩人은 마지막 두 句에 사람으로 배경을 삼으니 終南山이 높고 웅장함이 확연히 드러나고 襄陽의 풍경은 더욱 돋보인다.<sup>104)</sup> 郭熙는 《林泉高致·山水訓》에서, “山水

102) 郭熙, 《林泉高致》, “山有三遠, 自山下而仰山巔謂之高遠, 自山前而窺山後, 爲之深遠, 自近山而望遠山, 謂之平遠: 산에는 三袁이 있는데, 산 아래서 산마루를 올려다보는 것을 高遠이라 하고, 산 앞에서 산 뒤를 살펴보는 것을 深遠이라 하고, 가까운 산에서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平遠이라 한다.”

‘三遠을 기본으로 삼는 散點透視는 사물의 외형적 질서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구도의 필요에 따라 사물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함으로써 구도 배치에 있어서 더욱 많은 변화의 여지를 제공한다.’ <인터넷 naver>

103) 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中國畫論選集》, 서울, 미술문화, 2002, p. 151.

를 보는데도 근본이 있으니, 林泉에 마음을 마주하여 渾然一體가 되면 山水의 가치는 높아지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눈으로 自然을 마주하면 그 가치는 낮아진다.”<sup>105)</sup>고 하여 景物에 感情을 移入한 自然과의 交感이 작가가 意象에 感情을 넣어 최상의 自然 意境을 이룩할 수 있는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 속에 나타난 自然風光들은 景物의 아름답고 그윽한 美的 物象들이 畫家の 眼目으로 直視되어 景物의 특징들이 選擇 拔萃된 후 간결한 언어에 함축된 의미를 加味하여, 한 폭의 동양화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王維의 自然詩는 독자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을 일으키게 하여 오묘한 경계에 이르게 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대체적으로 王維의 自然詩에는 詩人으로서 自然을 표현했다기보다 畫家로서 自然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王維는 우리가 보고도 느끼지 못한 自然의 아름다움을 畫家の 眼目으로 繪畫의 渲染과 수묵공백을 이용하여 한 폭의 그림으로 창조한 후 다시 한 편의 詩로 재창조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에 나타나는 繪畫性은 빛과 색채의 미묘한 변화들을 언어의 특성을 이용, 서로 대비시켜 밝고 상쾌한 색채로 自然스럽게 채색한 것으로 景物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 아니라, 繪畫의 공간 활용을 詩作에 응용하여 景物을 적절히 안배함으로써 구도의 안정감을 주어 遠景과 近景을 조화롭게 한다.

또한 線의 기하학적 배치는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연상을 일으키게 하여 詩 속의 景物에 빠져들게 하는데,<sup>106)</sup> 그러한 예를 우리는 다음의 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푸른 산 울창한 숲 가로로 누워있고,                      靑山橫蒼林,

104)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下》, 서울, 亞細亞 文化社, 1994, p. 355.

105) “看山水亦有體, 以林泉之心臨之則價高, 以驕奢之目臨之則價低.”

106) 陳鐵民, 《王維新論》, 〈王維詩歌的寫景藝術〉, 北京, 北京師範大學院 出版社, 1990, p. 206 참조.

103) 陳傳席 編, 안영길 역, 《傅抱石》, 서울, 시공사·시공아트, 2004, p. 153 참조.

붉은 해 평원 저 멀리 둥글게 떠오른다.

赤日團平陸.

〈冬日遊覽〉

푸른 숲 너머 평원 저 멀리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다. 푸른 숲과 붉은 태양의 색채 대비와 직선으로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울창한 숲, 그리고 넓은 들판 너머로 솟아오르는 둥근 원형의 태양은 기하학적 구도에 의해 한 폭의 동양화로 그려지고 있다. 色彩의 대비와 線의 기하학적 배치와 공간 활용의 조화는 詩人의 繪畫性을 짐작케 한다.

광활한 사막에 외로운 연기 곧게 피어오르고,  
끝없는 황하 너머 지는 해 둥글다.

大漠孤烟直,  
長河落日圓.

〈使至塞上〉에 있는 이 두 句는 절묘한 繪畫의 기법으로 독자로 하여금 사막 한 가운데 서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데, 繪畫에서의 遠近과 高低의 비례는 평면에 입체감을 담아내는 개념으로 透視學의 근본적 이론 문제로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近大遠小)’라는 원리를 통한 공간 표현 기법 중의 하나이다.<sup>107)</sup> 저 멀리 광활한 사막 한 가운데서 한 줄기 연기가 가물가물 피어오르고, 사막의 끝닿는 곳에는 저녁노을이 붉은 해를 품고 지평선 너머로 저물어 가고 있다. 遠近과 高低의 比例, 幾何學的 形狀과 그 垂直關係를 이용한 사물의 배치는 透視學의 立體感으로 해결할 수 있는 空間 표현을 훨씬 뛰어넘어, 경물 감상에 강렬한 直感的 인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詩人은 〈遇然作〉에서 자신의 진정한 마음은 自然에 隱居하여 禪에 몰두하여 마음의 淸淨心을 陶冶하는 데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늙어가니 詩 읽기도 게으르고,  
오로지 늙어가는 처지일 뿐.  
전생에 詩人으로 잘못 정해져도,

老來懶賦詩,  
惟有老相隨.  
宿世謬詞客,

그 몸은 응당 화가였으리라.	前身應畫師.
남은 습성 버리지 못해,	不能捨餘習,
우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네.	偶被世人知.
원래 이름과 字는 모두 옳지만,	名字本皆是,
불도로 향한 마음은 오히려 알지 못하네.	此心還不知.

〈偶然作〉 108)

만년에 輞川에 隱居하던 時期의 작품으로 자신은 본래 詩人도 아니고, 畫家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은 오직 佛道에 심취하여 세속을 잊고, 淸淨·寂滅의 禪的 境地에 이르고 싶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자신을 詩人이라 하기도 하고 畫家라고 하기도 한다고 불평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한편의 詩에서 詩人의 畫家로서 재능이 뛰어났음을 짐작케 한다.

王維의 山水田園詩를 隱逸 생활과 禪思想을 떼어내어 논의 할 수 없다<sup>109)</sup>면 畫意 또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이라 하겠다. 王維의 詩 속에 畫意는 禪意와 함께 王維 詩歌藝術의 한 특징으로 그의 詩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王維의 詩를 이해하는 데는 그의 禪意와 畫意를 동시에 이해해야 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는 詩歌 창작에 있어서 詩情과 畫意를 절묘하게 결합시켜 禪意를 나타내기도 했으며, 禪意와 畫意를 표현하여 自然景物의 情趣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詩作 傾向은 後代에 여러 文人들이 사사로이 따르고 싶어 했던 그만의 독특한 詩歌藝術의 경지를 이루어냈다.<sup>110)</sup>

禪意와 畫意는 王維의 詩歌창작을 깊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唐代의 藝術傾向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王維는 自然景物의 아름다움을 畫家の 눈으로 인식했으며,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 自然의 특징들을 繪畫的 이미지로 구성하여 아름답고 그윽한 詩語로 변화시켜 놓

108) 《全唐詩》全二十五冊, 北京, 中華書局出版, 第四冊, 2003, p. 1254.  
 109) 陳鐵民, 《王維新論》, 〈關於王維山水田園詩的禪意和思想價值〉,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0, p. 187 참조.  
 110) 朴三洙, 《王維詩研究》, 성균관대학교중문과, 박사학위논문, 1994, p. 228 참조.

았다. 그는 순간순간 변화하는 自然의 현상마저도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로 묘사해 냄으로써 王維의 自然詩 속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景物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 IV. 王維詩의 禪趣 分析

문자의 표현은 글을 쓰는 작가의 사유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문자를 수단으로 하는 예술 활동에 있어서 그 작품의 성향은 당연히 작가의 생활방식과 사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王維의 詩作 속에 다분히 일종의 世俗 超脫的인 風格과 禪的 情趣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소한 만년의 王維가 이미 佛理에 성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佛家的 생활방식이 일상 생활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王維詩의 風格은 심경이 맑고 깨끗하고(沖澹), 詩의 대상인 自然景物은 산뜻하고 아련함(淸遠)을 느끼게 한다. 또한 감정이 고상하고 생각이 원대하며,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王維의 성품은 그의 미의식에 융합 형성되어 노련한 격조를 드러내고, 그의 맑은 품취는 淡泊하고 精巧하게 묘사된다.<sup>111)</sup>

특히 王維의 自然詩에는 독자로 하여금 숨췄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음으로써 象을 통해 意를 類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바,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고(不粘不脫)’, ‘가까이 나아가지도 떠나지도 않으면서도(不即不離)’ 함축적이며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언어 이면에 함축된 의미(言外之意)’와 ‘형상 밖의 세계(象外之象)’는 초연탈속한 정신적 경지를 나타내는 妙悟한 境界에 이르고 있다.

王維는 詩作 과정에서 意象이 가장 풍부한 순간을 포착하여 자신의 찰나적 심정을 집중적으로 반영, 돌출 시키고 그 나머지 사실은 이면에 감추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서 예술 표현의 함축적이고 意味深長한 意境을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詩歌藝術형상의 이중적 세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창작과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11) 金億洙, 〈王維詩研究〉, 《論文集》 제27집, 공주사범대학, 1989, p. 29.

王維詩 속에는 이러한 요체가 깊이 터득되고 있을 뿐 아니라 當時 禪宗의 유행은 王維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여 그의 美的 심리에 새로운 색조를 첨가시킨다. 따라서 그의 詩는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포괄시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게 하는 여운을 남겨 둠으로써 말은 짧으나 뜻이 깊어 詩 속의 여운은 훨씬 더 함축적이면서도 곡진한 詩歌 예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그는 고매하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성품으로 佛敎에 심취하여 禪의 심오한 哲理를 평이하면서도 담백한 自然詩에 담아냄으로써 그의 詩속에 들어 있는 禪的인 情趣가 충만한 意象의 세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표현된 意味 밖의 여운을 느끼게 한다. 또한 王維가 즐겨 표현하는 空寂·淸靜·閑逸 등의 어휘 內面에 나타나는 言外之意의 境界는 禪宗사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禪的 情趣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禪的 境界에 도달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분위기나 심적 상태를 말하는 듯 하다.<sup>112)</sup> 詩人이 세속을 멀리하여 自然과 함께 하노라면, 몸과 마음은 自然과 하나가 되어 세상의 명리와 물질에 대하여 담담해지고, 번뇌와 집착은 저절로 마음에서 멀어져 정신은 맑고 고요하며 생각은 관대해진다.

王維詩에서의 空·寂·淸·靜·閑 등은 주로 禪의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사물을 관찰하는 독특한 情趣로, 맑고 고요함을 좋아하며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王維의 근본 성격이, 大自然의 고요한 환경과 相互交融하는 意境의 개성화라 할 수 있다. 시인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들을 禪의情趣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禪의妙悟의 境界를 그윽하게 표현해낸다. 이러한 詩들 가운데 시인의 大乘의 理致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意境은 역시 空觀思想과 閑靜한 情趣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의 그러한 情趣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諸法皆空

王維에게 自然은 自己 修養의 過程을 밟아가는 方便이며, 사회적 삶의

112) 李東鄉, 〈謝靈運과 王維의 山水詩比較研究〉, 《中國文學》 第33輯.

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는 自然에서 自我를 體得하고 認識된 사실들을 詩를 통하여 再現함으로써 葛藤과 矛盾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隱居세계를 精神的 本質世界를 向한 人格修養의 過程으로 認識하고 自然에 沒入하여 그곳에서 禪的 境界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의 隱遁思想을 生活과 結付시킴으로써 자신의 詩作에 禪的 境界를 강렬하게 反映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의 詩들 중에는 自然의 淸淨함 속에 인생의 無常함을 깨닫고 佛家에 心醉하여 세상을 觀照하는 佛敎的 境地를 담은 詩들이 많다.

大乘佛敎의 思想은 世上萬物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변화물이며 내 마음이 없다면 온갖 世上事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主觀唯心主義 사상이며 《般若經》의 ‘空性思想’이 대표적인 예이다. 모든 존재(諸法)는 因緣으로 생겨날 뿐 스스로 實體가 없다는 ‘空의 思想’은 詩人으로 하여금 偏見과 我執으로부터 벗어나 分別을 거부하여 사물에 執着하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이제 그의 그러한 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홀로 앉아 귀밑머리 희어 감을 슬퍼하노니,	獨坐悲雙鬢,
텅 빈 마루에 밤은 이경이 되어온다.	空堂欲二更。
비 내리는 가운데 산 과일 떨어지고,	雨中山果落,
등잔 밑에선 풀벌레 울어댄다.	燈下草蟲鳴。
흰 머리 검게 되긴 어려운 일,	白髮終難變,
쇠로 황금을 만들 수도 없다.	黃金不可成。
생로병사 고통을 없앨 이치 알려거든,	欲知除老病,
오직 무생의 이치 배워 깨닫는 것.	惟有學無生。
	〈秋夜獨坐〉

王維는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깊은 상념에 빠진다. 산 속에 과일은 저절로 떨어지고 가을 풀벌레는 계절의 순환을 느끼는 듯 울어댄다. 사물의 실체가 本性으로 실재하여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불변의 존재는 없다. 우주공간의 모든 실체는 우리가 못보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데 조금씩 변해간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해가는 無常의 중심에 인간은 함께 존재하면서 生, 老, 死의 고뇌에서 고통스러워한다.

“無生은 實이 되고 生은 虛妄이라 어리석은 자는 生死에 漂溺하고, 如來는 實을 體하여 虛妄함이 없으므로 涅槃한다. 涅槃의 진리는 生滅이 없으므로 無生이라하니 因하여 無生の 이치를 觀하여 生滅의 번뇌를 깨닫는다.”<sup>113)</sup> 詩人은 이제 無生の 이치를 깨달아서 인간 근본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淸·王士禎은 〈畫溪西堂詩序〉에서, “王維, 裴迪의 輞川絕句 같은 것은 한 字 한 字가 禪의 境地에 들어가 있다. 그 밖에 이를테면, ‘비 내리는 가운데 산 과일 떨어지고, 등잔 밑에선 풀벌레 울어댄다(雨中山果落, 燈下草蟲鳴)’, ‘밝은 달 소나무 사이로 비추고, 맑은 샘 돌 위로 흐른다(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의 妙諦와 微音은, 世尊이 꽃을 따보이자 迦葉이 미소를 지은 일과 거의 차별이 없다.”<sup>114)</sup>라고 말하고 있다.

그대를 石樓山에 묻어놓고 돌아서니,	送君返葬石樓山,
송백은 울창하고 빈객들 수레 돌아가는데.	松柏蒼蒼賓馭還.
유골 묻힌 산엔 흰 구름 길게 떠 있을 뿐,	埋骨白雲長已矣,
공연히 시냇물만 사람 따라 흐른다.	空餘流水向人間.

〈送殷四葬〉

인생살이 그 얼마이던가,	人生能幾何,
결국에는 무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畢竟歸無形.

.....

.....

살아생전의 그대를 생각하니,	憶昔君在時,
그대는 무생의 이치를 나에게 물어	問我學無生.

113) 《佛敎大辭典》卷2, ‘무생’, 서울, 明文堂, 1993,

114) 王士禎, 《蠶尾續文》, 〈畫溪西堂詩序〉, “如王裴輞川絕句, 字字入禪, 他如‘雨中山果落, 燈下草蟲鳴’ ‘明月松間照, 清泉石上流’, ……妙諦微音, 與世尊拈花, 迦葉微笑, 等無差別.”

車柱環, 《中國詩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 331, 인용.

생멸의 번뇌를 깨뜨렸지.

〈哭殷遙〉

이러한 詩들은 공통적으로 詩人이 ‘諸行無常’, ‘諸法無我’의 이치를 통하여 生滅의 煩惱가 없는 無生의 涅槃의 眞理를 깨우쳤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孟城 어귀에 새 집을 마련하고 보니,	新家孟城口,
옛 나무는 쇠잔한 버들로 남아 있다.	古木餘衰柳.
훗날 올 사람 또 누구일까,	來者復爲誰,
공연히 옛 사람 있었음을 슬퍼하노라.	空悲昔人有.

〈孟城坳〉

짧은 5언 절구 속에 인생의 無常을 모두 털어 놓은 듯하다. 현재의 내가 과거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래의 누군가가 현재의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변화하고 있다. 인생은 결국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 諸行無常, 是生滅法한 것인데, 詩人은 공연히 인생의 허망함에 슬퍼지기만 하다.

다음은 이 詩에 대하여 裴迪이 和暢한 詩이다.

초가집을 옛 성터 아래에 짓고,	結廬古城下,
가끔씩 옛 성에 올라 가본다.	時等古城上.
옛 성은 옛날 그대로가 아닌데,	古城非疇昔,
지금의 사람들은 그저 오고갈 뿐.	今人自來往.

裴迪 〈孟城坳〉

裴迪이 和暢한 詩에서 우리는 王維의 詩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서글픈 哀傷을 찾을 수가 없다. 이는 佛理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여겨진다.

다시 그의 인생을 達觀하고 있는 詩句節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상살이 뜬구름 같은 것 무엇을 물어 보리,	世事浮雲何足問,
--------------------------	----------

고요히 隱居하여 몸 다스림만 못한 것을.

不如高臥且加餐.

〈酌酒與裴迪〉

이 두 句에는 권세와 부귀는 한낱 뜬 구름 같이 무상한 것으로 自然에 隱居하여 마음을 수행하며 인생을 悠悠自適하게 보내는 것만 못하다는 詩人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2. 閒靜逸致

晩年에 王維는 현실에 실망하여 삶의 虛妄함을 깨닫고 閑寂한 생활을 추구한 나머지 自然의 淸靜함 속에 삶을 기탁하고 焚香長齋하면서 마음의 평온과 心境上의 慰安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 王維는 自然에 묻혀 淸閑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觀照하는 가운데 山水田園을 소재로 한 많은 詩作品들을 남겨 놓았다.<sup>115)</sup> 만년에 王維는 輞川에 隱居하며 주변에 아름다운 景物들을 그윽한 情趣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自然描寫의 특징은 隱逸情趣로 내용은 주로 閑寂하고 安逸한 情趣를 나타내고 있다.

세속적 다툼에서 탈피하여 閒逸한 생활을 추구했던 詩人의 避世 隱遁의 超脫的 精神은 종종 그의 詩에 한가롭고 悠悠自適한 情趣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특히 人爲的인 드리냄을 허용하지 않는 佛家的 傾向의 虛靜한 詩들 속에는 작가의 隱逸한 가운데 閒靜한 情趣를 드러내는 意境이 담겨진 詩들이 있다. 王維에게 自然은 外在的 物象인 동시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奇異奧妙한 變化物로, 자신의 禪的 空虛感과 幻滅感을 스스로 解脫하기 위한 의지물인 동시에 內心의 감정을 투사하는 대상이기도 했다.

隱逸한 情趣 속에 禪的인 한가로움을 나타내는 王維의 詩들을 보면, 自然에 隱居하여 모든 짐작들을 털어버리고 세상을 觀照하며 淸靜한 마음으로 한가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그의 심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벼슬살이로 인해 세상 밖으로 나갈 때 마다 王維는 실망

115) 金億洙, 〈王維詩研究〉, 《論文集》 제27집, 공주사범대학, 1989, p. 221 참조

을 하게 되어 다시 自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남과 妥協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인데다 그렇다고 남들과 다투려고도 하지 않는 그의 고매한 품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가 佛敎에 심취하여 고요히 명상을 즐기고 自然에서 淸靜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찬 기운 산 푸름을 바꿔 놓고,	寒山轉蒼翠,
가을 시냇물 날마다 졸졸 한가롭다.	秋水日潺湲.
지팡이 짚고 사립문 밖에 서서,	倚杖柴門外,
바람 맞으며 저녁 매미 소리 듣는다.	臨風聽暮蟬.
나루엔 석양 노을 남아있고,	渡頭餘落日,
마을엔 외로운 연기 피어오른다.	墟里上孤煙.
接輿를 다시 만나 흠뻑 취하고,	復值接輿醉,
다섯 버드나무 앞에서 맘껏 노래 부른다.	狂歌五柳前.

〈輞川閑居贈裴秀才迪〉



王維는 한 폭의 山水畵를 그리듯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物境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언어는 인위적으로 彫琢된 색채감 없이 자연스러운 가운데, 頷聯에서는 詩人의 고매한 품성의 그윽함이 저절로 풍겨 나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詩人은 자신을 山水 風景 한 가운데에 그려 놓음으로써 閒靜한 自然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隱逸함을 보여주며, 情과 景이 하나로 융화된 情景合一의 境界를 만들어내고 있다.

詩人은 사물을 觀照하는 가운데 比·興이 일어나고, 比·興이 다시 情趣를 유발시키고, 情趣는 景物에 形象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 詩人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감정이 形象的이고 객관적인 景物에 몰입하면 情과 景이 하나로 융화되는 詩의 情景合一의 境界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석양에 산천은 더욱 아름답고,	落日山水好,
배 띄워 바람이 부는 대로 맡겨둔다.	漾舟信歸風.
기묘한 풍경에 길 먼 줄 모르고,	玩寄不覺遠,

이왕 나선 김에 물 다하는 곳까지 가본다.  
 멀리 구름높이 솟은 나무 즐겨 보다가,  
 처음엔 서로 다른 길인 줄 알았네.  
 어찌 알았겠는가? 맑은 개울 굽이돌아,  
 우연히 앞산 언저리와 통하는 것을.  
 배두고 물에 올라 지팡이 짚고 가니,  
 과연 알맞게 한적한 곳.  
 노승 네 다섯이,  
 한가로이 소나무 그늘에서 노닐고 있다.  
 새벽 염불 그윽한 숲엔 낮 아직 밝지 않고,  
 한 밤 參禪으로 산 더욱 고요하다.  
 佛心은 목동의 마음까지 이르렀고,  
 세상일은 나무꾼에게 물어본다.  
 날 저무니 긴 숲에 묵으며,  
 향 피워 청결한 돛자리에 누웠노라.  
 물가에 꽃향기는 사람의 옷에 스며들고,  
 산위에 뜬 달은 바위 절벽에 비추인다.

因以緣源窮。  
 遙愛雲木秀，  
 初疑路不同。  
 安知清流轉，  
 偶興前山通。  
 捨舟理輕策，  
 果然愜所適。  
 老僧四五人，  
 逍遙蔭松柏。  
 朝梵林未曙，  
 夜禪山更寂。  
 道心及牧童，  
 世事問樵客。  
 暝宿長林下，  
 焚香臥瑤席。  
 澗芳襲人衣，  
 山月映石壁。

〈藍田山石門精舍〉

王維는 山水自然에서 禪趣를 일으키게 하는 환경적 분위기를 끌어내어 詩라는 예술 형식을 통하여 禪定의 境界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이 詩人은 ‘물가에 꽃향기 사람 옷에 스며들고, 산 위에 뜬 달은 바위절벽에 비추인다.’라고 함으로써 自然에서 佛家の 理致에 심취하여 禪의 境界인 ‘物我一體’, ‘自由無得’한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마 진 빈숲에 밥 짓는 연기  
 느릿하게 피어오르고,  
 명아주 찌고 기장밥 지어  
 동쪽들로 내간다.  
 넓은 논에는

積雨空林煙火遲，  
 蒸藜炊黍餉東菑。  
 漠漠水田飛白鷺，

백로 한가로이 날고, 깊은 녹음 여름나무엔 노란 피꼬리 즐겁다. 산속에서 고요히 수양하며 무궁화 바라보고, 소나무 아래서 재계하며 이슬 맺힌 아욱을 탄다. 시골 노인 남과 자리다툼 그만 둔 터, 갈매기 무슨 일로 나를 의심 할꼬.	陰陰夏木囀黃鸝。  山中習靜觀朝槿， 松下清齋折露葵。 野老與人爭席罷， 海鷗何事更相疑。
--	--

〈輞川莊作〉

이 詩는 詩人이 天寶 연간 輞川에 隱居하면서 詩를 짓는 일로 樂을 삼았던 時期의 작품으로, 世俗의 名利에 超然함과, 장마 비 그친 뒤 한가로운 農村 風景을 자연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首聯은 閑寂한 農村의 정경을 보여주고, 頷聯에서 백로와 노란 피꼬리로 색채를 대비시키고 시각과 청각으로 動的 描寫를 強化하고 있다. 詩人은 閒靜한 초여름 농촌에서 피고지는 무궁화를 바라보면서 生滅의 循環 속에 無常함을 깊이 思索한다. 素食하며 소나무 아래에서 齋戒하는 淸靜閑逸한 禪의 生活은 適意한 田園 風景과 함께 어우러진다. 마지막 聯에서는 《列子》에 나오는 典故를 이용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意境을 드러낸다. 方東樹는 《昭昧詹言》 卷六에서, “景物 묘사가 지극히 생생하여 만고에 닿지 않는 구절”<sup>116)</sup>이라고 이 詩를 극찬하고 있다.

香積寺 어딘지 알지도 못한 채, 몇 리를 걸어 구름 낀 봉우리로 든다. 고목 우거져 오솔길도 없는데, 깊은 산속 어디선가 종소리 들려온다.	不知香積寺， 數里入雲峰。 古木無人徑， 深山何處鍾。
--	--------------------------------------

116) “三四寫景極活現，萬古不磨之句。”

골짜기 샘물소리 바위틈에 흐느끼고,  
 맑은 태양 푸른 소나무에 차갑다.  
 저물녘 고요한 연못 굽이진 곳,  
 스님은 禪定에 잠겨 독룡(번뇌)을 제압한다.

泉聲咽危石,  
 日色冷青松。  
 溥暮空潭曲,  
 安禪制毒龍。  
 〈過香積寺〉

구름이 산봉우리에 자욱하고 고목 우거진 깊은 산속은 종소리와 흐느끼는 샘물 소리로 산의 寂寞을 열고 있다. 맑은 태양이 차갑게 소나무에 머물고 있는 산은 深奧하여 사람을 깊은 寂滅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 詩人은 한 폭의 동양화를 詩 속에 그려 넣는다. “산허리가 굽어 앉은 곳에 절을 안치하는 것이 좋다.”<sup>117)</sup>는, 그의 自然詩 속에 담겨 있는 禪趣는 詩人의 생활철학으로 일상 속에 실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느낌들을 禪的 표현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閑靜逸致한 풍광과 禪趣를 느끼게 하는 〈終南別業〉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년에 들자 불도를 매우 좋아해서,  
 만년에 이르니 남산 기슭에 집 한 채 마련했지.  
 흥이 오르면 언제나 혼자 가는데,  
 그 즐거움이란 그저 나 혼자 알뿐이지.  
 걸다가 물길 다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앉아서 구름 피어오르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  
 우연히 숲 속의 노인을 만나면,  
 웃으며 얘기하느라 돌아갈 때를 모르지.

中歲頗好道,  
 晚家南山陲。  
 興來每獨往,  
 勝事空自知。  
 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偶然值林叟,  
 談笑無還期。

王維는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自然의 오묘한 이치를 禪理에 담아 눈으로 보고 감정을 自然에 返照하여 표현한다. 만물의 변화현상은 自然의 순리에 따라 생겨나고 모든 실체는 生滅의 循環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불변의 존재는 없다는 諸行無常의 禪理的 思惟인 生

117) 王維 撰, 《畫學秘訣》, “廻抱處僧舍可安.”

滅의 현상이 時間上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변화되는 時間上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현상은 空間上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詩人은 頸聯에서 時間上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空間上에 마음으로 작용하는 ‘나’와 교묘하게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具體的인 사실 세계를 떠난 다른 세계가 두 句 안에 한 폭의 동양화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이 詩에는, 自然은 항상 변화하지만, 다시 되풀이 변화되어 나타난다.”<sup>118)</sup>는 중국인의 空間意識이 잘 드러나 있다. 王維는 莊子의 경우처럼 自然을 통하여 道를 맛보려는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事實世界를 떠나 다른 세계로 그저 ‘물 따라 끝 간곳에 이르러, 구름 피어오를 때를 바라보는’ 理想 追求意識으로 自然 속의 閑寂함을 추구하였다.

경쇠소리 따라 까마귀 내려와 공양하고,	食隨鳴磬巢鳥下,
텅 빈 숲 걸으며 낙엽소리 듣는다.	行踏空林落葉聲。
솟는 샘은 향로 탁자에 젖어들고,	迸水定侵香案濕,
꽃비는 석상에 공평하게 쌓일 듯.	雨花應共石牀平。

〈過乘如禪師蕭居士嵩邱蘭若〉

이 詩는 佛家典故를 운용하여 佛寺의 閑淨한 풍경을 찬양하고 있다. 佛寺는 세속의 잡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出家者(乘如禪師)와 在家者(蕭居士) 형제가 함께 하는 곳이며, 꽃비가 내리는 축복받은 감로의 땅이며, 육체와 정신을 의지할 수 있는 自然의 안식처였다. 佛寺는 王維가 존경과 부러운 마음으로 갈구하는 생활의 장소이며 삶의 방식으로 바라던 곳이었다.

한 떨기 들꽃 곱게 피어 있고,	野花繁發好,
계곡엔 우는 새소리 그윽하다.	谷鳥一聲幽。
이 밤 홀로 앉아있는 텅 빈 숲 고요하고,	夜坐空林寂,
술술 바람 불어오니 이제 가을인 듯.	松風直似秋。

118) 《易經》, “無往不復, 天地際也. : 가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음이, 바로 천지自然의 변화이다.”

〈過感化寺曇興上人山院〉

이 詩에서 詩人은 山寺의 幽淨한 情趣를 만끽하며 한적한 경계에 이르렀음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고요하고 그윽한 山寺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찾아드니 人生은 無常하다. 그러나 시인은 고요히 명상에 잠겨 삶의 한가로움을 즐기고 있다.

버들나무 푸른 잎 봄 산에 비쳐들고,	柳色春山映,
하얀 배꽃 사이로 저녁 새 깃든다.	梨花夕鳥藏.
북쪽 창 복숭아 자두나무 아래엔,	北牕桃李下,
스님 한가로이 앉아 그저 향 만 사를 뿐.	閑坐但焚香.

〈春日上方卽事〉

봄날 조용한 山寺의 풍경이 버드나무 푸른빛과 하얀 배꽃으로 대비되고, 閑寂한 山寺의 그윽한 情景은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새와 坐禪 삼매에 들어간 스님의 모습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閑寂한 隱居生活에서 오는 禪의 한가로움에는 인간과의 단절이라는 극단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世俗의 일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그러한 마음이 담긴 詩 한편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좁은 오솔길에 회나무 그늘지고,	仄徑蔭宮槐,
어두운 응달엔 무성한 푸른 이끼.	幽陰多緣苔.
아이야 손님 맞을 길이나 쓸러무나.	應門但迎掃,
산사에 스님이 내려오실 것 같구나.	畏有山僧來.

〈宮槐陌〉

사람하나 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늘진 좁은 길에는 푸른 이끼만 잔뜩 덮여있어 한가롭다. 시인은 세속의 번거로움을 끊어 버렸으나 사람의 인연마저 끊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인의 田園隱居생활은 고독하지 않다. 거기에는 山寺의 스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다.

## V. 王維詩의 自然情趣와 禪趣의 抒情的 意義

王維詩의 抒情의 空間에는 自然과 禪이 함께한다. 그것은 隱逸의 한가로움과 執着에서 벗어난, 세상을 달관하는 禪의 空間이다. 그는 사회문제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內面世界로 감춰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였다. 그에게 自然은 단지 觀照의 對象이나 理解의 對象이 아니라 自我를 體得하고 마음을 순화시켜 淸淨心을 기르는 禪의 체험 장소였다. 따라서 그의 自然詩는 隱遁과 解脫이라는 情緒的 상황으로 나타난다.

王維는 삶의 허망함이 인간의 생명의 有限함으로 나타나듯, 인간의 苦惱는 生死의 煩惱에서 생겨나는 것임을 認識하고 佛理에 심취함으로써 인생의 苦痛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佛敎思想은 시인으로 하여금 偏見과 執着에서 벗어나 세상을 達觀하게 함으로써 그의 성품은 맑고 고상하여 그의 詩의 風格을 나타내고 있다. 옛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風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王維의 詩는 맑고, 淡泊, 精巧하여 格調가 그 속에 있다(王右丞, 澄澹精緻, 格在其中)”, “王維의 詩는 風趣가 맑고 고상하여, 맑은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다(王右丞, 趣味澄復, 若淸流之貫達)” <司空圖與李生論詩書> 등의 評論들은 모두 王維詩의 沖淡, 淸遠함과 그의 고상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淸代 王士禎의 詩論의 기초인 “詩가 곧 그 사람이다.”<sup>119)</sup>라는 말에 부합한다.

사실 정치적 공명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王維는 감정이 高尚하고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성품을 지닌 詩人으로 淸·趙殿成은 《王右丞集注》序文에서, “타고난 성품이 淸妙하여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人事의 오름과 가라앉음, 얻고 잃음에 있어서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sup>120)</sup>고 했고 趙秉文

119) 최일의, <신운의 개념분석과 그 意境의 特徵 검토>, 《중국 명 청시대의 문학과 예술》, 한양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엮음, 2003, p. 157. “詩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이론은 왕사정 詩論의 기초이다.

120) “與物無競, 舉人事之升沈得失, 不以膠滯其中.”

은 〈答李天英書〉에서, “詩人들의 풍격은 그들의 성품과 유사함을 논하고, 王維의 성품은 沖淡함을 얻고 있다”<sup>121)</sup>고 했다. 또 沈德潛은 《說詩晬語》에서, “王維·李頎·崔曙·張謂·高適·岑參과 같은 사람들은 품격이 고매한데다, 그윽한 情趣마저 풍부하여 正聲이 된다.”<sup>122)</sup>라고 인품과 관련시켜 詩格을 論하고 있다.

王維의 詩風은 초년과 중·만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초년의 詩風이 綺麗, 精工하고 은화하면서도 강개한 기상으로 성당시대 邊塞詩의 낭만적 색채를 띠고 있다면, 중·만년 이후의 詩風은 幽閒, 古澹하다고 할 수 있다.<sup>123)</sup> 여기서, 그의 강개한 詩風을 나타내고 있는 초년의 邊塞詩 〈送趙都督赴代州得青字〉<sup>124)</sup>를 보기로 한다.

하늘에 천관중 장군별 움직일 때,	天官動將星,
한나라 땅에는 버들가지 푸르다.	漢地柳條青.
萬里 원정길 刁斗소리 울리니,	萬里鳴刁斗,
삼군은 정형구 요새로 출정하도다.	三軍出井陘.
안위는 돌보지 않고 봉궐을 떠나니,	忘身辭鳳闕,
보국의 일념으로 용정을 취하리라.	報國取龍庭.

- 121) 陳伯海 著, 李鍾振 譯, 《당시학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p. 334에서 인용. “嘗謂古人之詩, 各得其一偏, 又多其性之似者,……王維得其沖淡 : 일찍이 옛 사람의 詩는 각기 한 곳으로 치우쳤으며, 또 그들의 성품과 유사함이 많았고……”
- 122) 陳伯海 著, 李鍾振 譯, 《당시학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p. 358. “王維, 李頎, 崔曙, 張謂, 高適, 岑參諸人, 品格既高, 復饒遠韻, 故爲正聲.”
- 123) 胡應麟, 《詩藪·內編》卷四, “右丞五言, 工麗·閒澹, 自有二派, 殊不相蒙.”, “建禮高秋夜”, “楚塞三湘接”, “風勁角弓鳴”, “楊子談經處”等篇, 綺麗精工, “寒山轉蒼翠”, “一從歸白杜”, “寂莫掩柴扉”, “晚年惟好靜”等篇, 幽閒古澹. : “王維의 오언은 정교롭고 아름다우며(工麗), 한가롭고 담박하여(閒澹) 저절로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가리지 않는다. “진례성 높은 가을 밤”〈同崔員外秋宵寓直〉, “초나라 변방은 삼상에 접해있고”〈漢江臨眺〉, “바람 거세어 각궁 울리는데”〈觀獵〉, “揚雄이 경서를 담은 하던 곳”〈從岐王過楊氏別業應教〉, 등의 詩는 아름답고 고우며 뜻이 깊고(綺麗精工), “찬 기운 산 푸르름 바꿔놓고”〈輞川閒居贈裴秀才迪〉, “輞川으로 돌아와 隱居한 이후”〈輞川閒居〉, “적막감은 사립문을 덮고 있고”〈山居卽事〉, “나이가 드니 오직 고요함이 좋아서”〈酬張少府〉, 등의 詩는 고요하며 한가롭고 담박하다(幽閒古澹)”
- 124) 得青字 : 여러 사람이 먼저 몇 가지 韻字를 선정해놓고 각자 재미 뺏듯이 나누어 집어 자기가 집은 운자로 詩를 짓는 것으로 王維는 ‘青’字 운을 집어서 詩를 지었다.

어찌 저 서생의 무리들처럼,  
창가에서 경전 읽으며 늙어가리.

豈學書生輩，  
牕間老一經。

이 詩는 나약한 서생으로 글이나 읽으면서 평생을 늙기보다 나라를 위하여 한목숨 바치겠다는 강개한 기상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다음의 〈少年行〉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벼슬길에서 한나라 羽林郎 되어,  
처음 표기장군 따라 漁陽에서 싸웠네.  
누가 아는 가 변방에 못가는 고통,  
죽어서 오히려 협객의 이름 남기리.

出身仕漢羽林郎，  
初隨驃騎戰漁陽。  
熟知不向邊庭苦，  
縱死猶聞俠骨香。

氣概가豪情壯志하여 하늘을 찌를 듯하다. 또한 이 詩에는 당시 詩人의 적극적 현실 참여와 애국 충성이 담겨 있어서, 그의 초년은 강개한 정치적 포부와 열정이 가득 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좌절로 인한 현실부정과 아내와의 死別 그리고 그의 가정의 佛家的 영향은 그의 詩風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그의 중·만년 이후의 詩는 점차 幽靜 淡遠한 禪的 境界에 이른다. 이러한 詩風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詩人의 性格에서 기인한 것으로, 예를 들면 開元 9년(721)下半期 濟州로 부임하는 도중에 쓴 것으로 짐작되는 작품<sup>125)</sup>인 〈登河北城樓作〉에는 본래 詩人의 성품이 맑고 고상하여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市街는 傳巖땅에 있고,  
客舍는 구름과 안개사이에 있네.  
높은 성에 올라 지는 해 바라보니,  
아득한 강물위에 푸른 산 그림자 드리워라.  
강 언덕에 불 피워 외로운 배 머물고,  
漁家에 저녁 되니 새들 돌아오누나.

井邑傳巖上，  
客亭雲霧間。  
高城眺落日，  
極浦映蒼山。  
岸火孤舟宿，  
漁家夕鳥還。

125) 王維 撰，陳鐵民 校注，《王維集校注》一冊，北京，中華書局，1997，p. 38.

텅 비어 고요한 세상에 해 저무는데,  
마음은 넓은 강물이 되어 한가롭다.

寂□□天地暮,  
心與廣川閒.

自然景物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된 가운데 情景이 매우 선명하다. 마지막 聯에서 그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세상에 어둠이 채워지려 할 때, 詩人은 고독하지만 한가롭다’고 말한다. 詩人의 외로운 마음은 自然에 용해되어 自然과 하나가 되므로, 詩人의 마음은 강물처럼 너그러워진다. 自然은 거짓이 없다. 슬픈 마음으로 自然에 다가가면 自然은 슬프게 나타나며, 기쁜 마음으로 自然에 다가가면 自然은 기쁜 마음으로 맞아 준다. 그래서 王維는 고독하지만 한가롭다고 말한다. 王維의 自然詩에서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내용은 거의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中國詩歌文學에서 작자의 情感은 意象을 통하여 표출된다. 그런데 중국의 사대부와 문인들의 詩歌를 통하여 표출된 意象에는 情感을 완전히 표면에 드러내 보이지 않고 표현 너머에 감추어 두어 餘韻을 남겨둠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깊은 聯想과 想像을 하는 과정에서 깨닫고 느끼게 한다.<sup>126)</sup>

魏·晉 이후 意·象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有限한 사상을 통해 無限히 풍부하고 심오한 象外之象을 찾아내어 체험하고자 하였다.<sup>127)</sup> 따라서 中國詩歌의 발전은 어떤 면에서는 自然景物의 부단한 意象化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大自然은 ‘취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써도 다하지 않는(取之不盡, 用之不竭)’ 詩歌意象의 원천이었다.<sup>128)</sup>

詩人은 象에 意를 기탁함으로써 意象을 구상하고 詩的인 情趣를 부여하여 情과 物을 그려냄으로써 詩人의 주관 색채가 드러난 意境<sup>129)</sup>을 이루어 낸다. 그러나 詩人이 독자로 하여금 여러 갈래의 상상과 연상을 환기시키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과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詩의 意와 境

126) 曷兆光 著, 鄭相弘 外 共譯, 《禪宗과 中國文化》, 서울, 東文選. 1991, p. 205 참조.

127) 陳伯海 著, 李鍾振 譯, 《唐詩學의 理解》, 서울, 사람과 책. 2001, p. 133.

128)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p. 7.

129)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p.

47 : “意境은 작자의 주관정의와 객관 物景이 상호 융합되어 형성된 경계를 말한다.”

이 하나로 융화된 情景合一의 境界에 이르거나 意로 승화하거나 境으로 승화된 境界에 도달해야만 한다.<sup>130)</sup> 이는 사물과 작가의 마음이 서로 일치되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情景이 하나로 융합된 意境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唐代의 王昌齡도 “마음을 境에 두고 마음으로 境을 모아야 한다.”<sup>131)</sup>고 했고 《文心彫龍·物色》에도, “物色이 이동하면 마음도 움직인다(物色之動, 心亦搖焉)”, “우리의 감정은 경물에 따라 변화하고 그러한 감정에서 유래되어 문장이 생겨난다(情以物還, 辭以情發)”고 했다. 이것은 곧 景을 통하여 意에 이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物象이 일단 詩人의 구상 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詩人의 주관적 색채에 의해 씻겨지고 걸러져서 詩人의 美的 사상과 감정에 의해 精鍊된다. 따라서 意象은 객관적 物象에 침투된 詩人의 주관적 情意라 할 수 있다. 또한 意象은 意境을 만드는 재료로 象이 없으면 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意象을 조합하여 승화되어 나타난 결과를 意境이라 할 수 있다.

歷代 自然을 소재로 창작활동을 했던 詩人들은 자신의 意象을 山水自然의 景物과 그 생활 가운데서 찾아내어 作詩함으로써 詩의 성취도를 이루려고 노력하였는데, 王維·孟浩然·韋應物 등 山水詩派들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sup>132)</sup> 王維의 自然詩에는 風光이 맑고 그윽한 情趣와 田園이 평화롭고 한가로운 정서가 담겨져 있다. 또한 화가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景物을 觀照하여 自然景物의 특징적 형상을 포착, 간결한 언어로 景物의 특색을 선명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끝없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한다.

저 멀리 나무는 길가는 나그네를 어우르고,           遠樹帶行客,  
외로운 옛 성은 지는 해를 맞고 있다.           孤城當落暉.

130) 王國維, 《人間詞之稿序》, “文學之事, 其內足以據已 而外足以感人者, 意與境二者而已, 上焉者, 意與境渾, 其次或以意勝, 或以境勝, 苟缺其一, 不足以言文學 : 문학의 일은 안으로 충분히 자기의 뜻을 펴서 밖으로 충분히 남을 감동시키는 것이니, 그것은 意와 境 두 가지 뿐이다. 최상은 意와 境이 혼용된 것이고, 다음은 意로 승화하거나 境으로 승화한 것이다. 만약 그 하나가 결하면 문학이라 말할 수 없다.”

131) 《唐音癸簽》 卷二, “處心干境, 視境干心.”

132) 袁行霈 著, 朴鍾赫 外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p.

7. 참조.

〈送綦毋潛 落第還鄉〉

이 詩는 나그네가 멀어질수록 멀리 있는 나무와 서로 어우러져 사람의 모습이 있는 듯 없는 듯 가물거리는 모습과 지는 해를 맞고 있는 쓸쓸한 옛 성을 한 폭에 담고 있어서 情趣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사람과 사람을 따라 경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서로 연관된 사물들을 한 폭의 화면에 처리할 수 있는 散點透視는 構圖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詩人은 그림의 원근법과 화면의 배경을 여백으로 처리하는 뛰어난 繪畫性을 발휘하여 경물의 특징을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詩의 절묘한 경계를 이루어낸다.

골짜기 마다 나무들 하늘을 찌르고,	萬壑樹參天,
산마다 두견새는 울어 댄다.	千山響杜鵑.
산속에는 하루 밤 내내 비 내려,	山中一夜雨,
나뭇가지 끝마다 겹겹이 흐르는 샘물.	樹杪百重泉.

〈送梓州李使君〉

이 詩는 梓州로 부임하는 벗을 전송하며 지은 送別詩로, 석별의 정과 비온 후 山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樹杪百重泉”은 기묘한 언어 표현으로 앞 구 “山中一夜雨”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비온 후 산속의 고요한 정경이 자연스럽게 상상된다. 淸·王士禎(1634-1711)은 《帶經堂詩話》卷十八 〈辨析類〉에서, “흥이 오르고 신이 나서 저절로 오묘한 경지에 들게 되니 한 곳에 모아 머무를 수가 없다(‘萬壑四句’ 興來神來, 天然入妙, 不可湊泊)”라고 앞 四句를 評할 만큼 自然의 情趣는 살아 움직이는 세계로 절묘하게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의 詩 속에서는 自然 景物의 색채 특징이 아름답게 묘사됨으로써 自然의 황홀한 情景은 視覺的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예를 들면 〈送邢桂州〉가 그러하다.

석양에 강물은 흰빛으로 빛나고,	日落江湖白,
조수 밀려오면 천지는 파랗다.	潮來天地靑.

〈送邢桂州〉

하얀 물결 위를 파란 파도가 덧씩워지는 풍경을 詩人은 그림의 渲染法을 이용하여 교묘한 언어로 묘사해낸다. 화가의 눈이 아니면 景物의 特徵을 繪畫의 기법으로 묘사할 수 없다. 王維는 詩에 바림을 약간 덧칠하여 뜻을 담고 그림을 그리 듯 선명한 색채로 自然의 조화를 표현함으로써 언어예술의 매력을 만들어낸 것이다.

때때로 王維는 自然의 현상과 자신의 느낌을 결합하여 景物을 묘사해내는데 이것은 독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다음의 〈送方尊師歸嵩山〉과 〈曉行巴峽〉이 그 예이다.

폭포는 소나무 삼나무 늘 비에 젖게 하고, 비취빛 노을은 홀연 안개 되어 흩어진다.	瀑布杉松常帶雨 夕陽彩翠忽成嵐 〈送方尊師歸嵩山〉
---	---------------------------------

물가 땅이라 배안이 시장이 되고, 산에 걸린 다리는 가지 끝을 걷는 듯.	水國舟中市 山橋樹杪行 〈曉行巴峽〉
---	--------------------------



또한 시인은 田園의 生活情趣를 自然의 아름다운 風光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田園情趣의 한가로움을 더욱 드러내기도 하고, 自然風光의 한가로움을 아름답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시인의 意境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도 한다.

맑고 얇은 백석灘 여울에는, 푸른 부들이 손에 뜰길 듯 무성하고. 인가를 두른 시내는 동서로 흐르는데, 밝은 달 아래선 빨래하는 아낙네들.	清淺白石灘, 綠蒲向堪把. 家住水東西, 沉紗明月下. 〈白石灘〉
--	---

輞川 별장의 뛰어난 경물중의 하나인 白石灘에 밝은 달이 비추니 마을 냇가에는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정겹다. 이 詩는 田園의 한가로운 풍경을 한 폭의 별천지 仙境으로 그려놓고 있어서 맑고 그윽한 情趣를 느끼게 한다.

그윽한 대숲 곱이진 빈곳으로 비치고,  
푸른 빛 대나무는 바람에 출렁인다.  
울창한 대숲은 상산길로 들어서니,  
그 숲 끝은 나무꾼도 알 수 없으리라.

檀變映空曲，  
靑翠漾漣漪。  
暗入商山路，  
樵人不可知。  
〈斤竹嶺〉

그윽한 대나무 숲 속에 바람이 불어오니 대나무 잎들이 마치 파도가 일듯이 출렁거린다.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 속을 거니는 시인의 마음은 한적하다. 마치 바람이 불어 대나무 잎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신비롭고 그윽한 情趣를 느끼게 한다.

抒情이란 자신의 감정을 敍述하는 것을 말한다. 시인은 자연경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감정을 자연스럽게 시적언어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王維 自然詩의 美的 감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視覺美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空間상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색채상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구분된다.



저 멀리 나무는 길가는 나그네 어우르고,  
외로운 옛 성은 지는 해를 맞고 있다.

遠樹帶行客，  
孤城當落暉。

〈送綦毋潛 落第還鄉〉

강물은 하늘 밖 지평선 넘어 흐르고,  
먼 산 경색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린다.

江流天地外，  
山色有無中。

〈漢江臨眺〉

이 두 편의 詩句는 멀고 아득하여 아련하고 몽롱한 공간상의 심미 감을 느끼게 한다.

버들잎 푸른 빛 봄 산에 비쳐들고,  
하얀 배꽃 사이로 저녁 새 깃든다.

柳色春山映，  
梨花夕鳥藏。

〈春日上方卽事〉

빗속 풀빛은 초록으로 물든 듯하고,  
냇가에 복사꽃은 붉게 타오르려하네.

雨中草色綠堪染,  
水上桃花紅欲然.

〈輞川別業〉

이 두 편의 詩句는 투명한 색깔이나 흰색, 푸른빛과 붉은색 등 맑고 산뜻한 색채미를 느끼게 한다.

둘째는 聽覺美이다. 이것은 소리의 그윽함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다.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말소리만 들려온다.

空山不見人,  
但聞人語響.

〈鹿柴〉

한 떨기 들꽃 곱게 피어있고,  
계곡엔 우는 새소리 그윽하다.

野花叢發好,  
谷鳥一聲幽.

〈過感化寺曇興上人山院〉

달 떠오르자 산새들은 놀라서,  
간간이 봄 개울가엔 새우는 소리.

月出驚山鳥,  
時鳴春澗中.

〈鳥鳴磻〉

이 세 편의 詩句는 幽然하게 피어나는 清雅한 소리를 통해 悠長深遠한 審美感을 준다.

셋째는 觸覺美이다. 이것은 맑고 서늘한 느낌의 아름다움이다.

고요한 산속 새롭게 비 내린 뒤,  
날씨는 저녁이면 가을날이다.

空山新雨後,  
天氣晚來秋.

〈山居秋暝〉

찬 기운 산 푸르름 바뀌놓고,                    寒山轉蒼翠,  
 가을 시냇물 날마다 졸졸 한가롭다.            秋水日潺湲.  
 〈輞川間居贈裴秀才迪〉

이 두 편의 詩句는 서늘한 느낌과 관련된 저녁이나 가을의 느낌을 산뜻하고 상쾌한 美感을 준다.

독자들은 王維의 自然詩 속에서 淸幽淡遠한 경물 묘사와 禪趣的인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빈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空山不見人,  
 사람의 말소리만 들려온다.                    但聞人語響.  
 〈鹿柴〉

물가에 꽃향기는 사람의 옷에 스며들고,        澗芳襲人衣,  
 산위에 뜬 달은 바위 절벽에 비추인다.        山月映石壁.  
 〈藍田山石門精舍〉

空과 寂의 경계를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詩 속의 禪意는 세속의 명리를 떠난 詩人의 탈속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의 隱居情趣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계곡 들입에 종소리 간간히 들리고,            谷口疎鍾動,  
 어부와 나무꾼의 발길도 드물어간다.        漁樵稍欲稀.  
 아득히 먼 산에는 해 저물어 가는데,        悠然遠山暮,  
 홀로 흰 구름 이는 곳으로 돌아가노라.        獨向白雲歸.  
 연약한 마름줄기 이리저리 흔들리고,        菱蔓弱難定,  
 가벼운 버들가지 바람에 훑날린다.        楊花輕弱飛.  
 동편 물가언덕 봄풀 푸르른 데,            東臯春草色,  
 서글픈 마음으로 사립문을 닫는다.        惆悵掩柴扉.  
 〈歸輞川作〉

그대 떠나보냄도 너무나 비통한데,  
 다시 또 누구를 떠나보내야 할지.  
 몇 날을 손잡고 함께 지냈었건만,  
 불현듯 앞서 옷자락 떨치고 떠나는구려.  
 조출한 띠 집 있는 저 동산 隱逸한 곳,  
 나 위해 사립문 앞을 쓸어주기 바라오.  
 응당 나 역시 벼슬을 버리고 가야하오.  
 어찌 마음먹은 일 되돌리려 하겠소.

送君盡惆悵，  
 復送何人歸。  
 幾日同攜手，  
 一朝先拂衣。  
 東山有茅屋，  
 幸爲掃荊扉。  
 當亦謝官去，  
 豈令心事違。

〈送張五歸山〉

이 詩는 張諱이 天寶 연간에 벼슬을 버리고 隱居 생활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떠날 때의 송별 작품으로, 詩人은 친구와의 작별에서 생기는 애뜻한 심정과 떠나보내는 슬픔을 말하고, 자신도 벌써부터 세속을 떠나 自然에 隱居하고 싶어 했던 심정과, 멀지 않아 자기도 곧 自然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王維의 마음에는 항상 自然에 머물러 조용히 살고 싶다는 自然歸隱思想이 함께 하고 있었음을 여러 詩篇을 통하여 짐작 할 수 있다. 그의 隱居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詩 한 편을 또 감상해 보기로 한다.

산속 사람 돌아가려하니,  
 구름 짙어 어두운데 비는 쏟아진다.  
 비에 놀란 물결에 푸른 띠 쓰러지매,  
 백로는 홀연 날아오른다.  
 그대여 옷 걷어 가려하지 마오.  
 산은 겹겹이 먹구름에 쌓여 있고,  
 천지는 흐릿하여 분간할 수 없다.  
 나무숲은 어두운 기운 가득하고,  
 원숭이 보이지 않고 그저 소리만 들린다.

山中人兮欲歸，  
 雲冥冥兮雨霏霏。  
 水驚波兮翠菅靡，  
 白鷺忽兮翻飛。  
 君不可兮褰衣！  
 山萬重兮一雲，  
 混天地兮不分。  
 樹晦曖兮氛氳，  
 猿不肩兮空聞。

홀연 산 서쪽으로 석양이 비추니,	忽山西兮夕陽,
동녘 물가 언덕 저 먼 촌락 바라본다.	見東臯兮遠村.
평원에 무성한 풀은 끝이 없고,	平蕪綠兮千里,
아득히 멀어진 그대 생각에 슬피하노라.	眇惆悵兮思君.

〈送友人歸山歌〉

산속에 隱居하는 벗을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詩人의 착잡한 심경을 읊고 있는 이 詩는 비가 쏟아지는 어둡고 흐릿한 산속의 풍경과 비 그친 뒤 들녘의 맑고 밝은 정경을 한데 섞어 묘사하고 있다. 특히 詩人은 떠나간 벗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마지막 聯에서 나타낸다. 沈德潛은 《唐詩別裁》 卷五에서, 이 詩에 대해 “(객이) 떠난 후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한 폭의 그림을 펼쳐낸 듯 하다(《山萬重兮》 以下, 寫去後情事, 如披畫圖)”고 했다. 그는 항상 세속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육친과의 정 때문이었다. 형제지간에 우애가 깊었던 다정다감한 성품의 시인은 언제나 혈육에 대한 깊은 情으로 동생들을 돌보고 생각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심정을 드러낸 詩 한편을 감상해 보기로 한다.

산속에는 수행불자 많아서,	山中多法侶,
참선과 독경하며 함께 모여든다.	禪誦自爲群.
저 멀리 너희들 사는 성곽 바라보지만,	城郭遙相望,
오직 보이는 건 떠있는 흰 구름.	惟應見白雲.

〈山中寄諸弟妹〉

관리 생활을 청산하고 중남에 隱居하여 參禪과 독경으로 閑逸한 생활을 보내던 王維가 동생들에게 자신의 심경과 생활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詩이다. 마지막 句에서 詩人은 속세와의 인연에 미련이 없음을 幽情한 白雲으로 표현하고 있다. 淸·張謙宜는 《絹齋詩談》 卷五에서, 이 詩에 대해 “몸이 산속에 있어서 산 따라가니 바깥세상 사람이 눈 안에 떠오른다, 妙悟가 절륜하다(身在山中, 去從山外人眼中想出, 妙悟絕倫)”고 평하고 있다.

王維의 自然詩는 高情高傲한 성품이 自然과 융화되면서 幽靜閑遠한 情趣를 자아낸다. 그러나 詩란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흔적을 그대로 남기면 절묘함을 얻기 힘들다.<sup>133)</sup> 경물에 나아가서 뜻을 드러낼 때에는, 경물에 詩人의 뜻이 표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詩人은 뜻을 物景으로 변화시켜 심령을 觀照하여 숨蓄, 절제된 언어로 형상미를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뜻이 景物 밖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마음과 경물이 융화되어 하나가 되면 物境과 心境은 서로 나뉘어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일종의 妙悟感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詩와 禪의 同一線上에 놓이는 원리이다.

嚴羽는 《滄浪詩話》에서 ‘禪道나 詩道가 다같이 妙悟를 추구하는 점에서 같다고 했는데’<sup>134)</sup> 이는 詩가 숨蓄된 언어 속에 뜻의 餘韻을 최대한 담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宋代 梅堯臣은, “반드시 묘사하기 어려운 경물을 마치 눈앞에 있듯이 형상화하고 끊임없는 의미를 머금어 말 밖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만,”<sup>135)</sup> 가장 훌륭한 詩라고 평가하였는데, 王維의 山水詩가 대부분 그러하다.

王維詩의 抒情은 田園 속의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山川의 아름다운 風光을 나타내어 사람의 마음을 醇化시켜 주기도하며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도 한다. 또 그와 더불어 그의 詩 속에 담긴 言語와 情緒의 美的 空間에는, 內面の 孤獨과 隱逸을 自然의 景物들을 통하여 可視的으로 보여 주고 다시 자신의 內面 속으로 흡수하여 영혼을 醇化시키는 높은 차원의 理想이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虛無로 歸着하지 않고 모든 생명과 죽음을 함께하며 그 생명의 存在價値를 인정함으로써 죽음의 煩惱에서 解脫할 수 있다는 大乘의 ‘空觀思想’ 역시 그의 抒情에 담겨져 있다.

## VI. 결 론

133) 吳戰壘 著, 유병례 역, 《중국 詩學의 이해》, 서울, 태학사, 2003, p. 89.

134) “大抵禪道惟在妙悟, 詩道亦在妙悟.”

135) “若意新語工, 得前人所未道者, 斯爲善也. 必能狀難寫之景如在目前, 含不盡之意見于言外, 然後爲至矣.”

陶淵明과 謝靈運 이전에 山水는 단지 생활의 배경이나 사물의 외부형상을 묘사하는 수단인 比와 작품의 형상 속에 담겨 있는 뜻인 興의 매개일 뿐 詩의 주체는 되지 못하였다. 魏·晉과 南朝에 이르러 陶淵明과 謝靈運에 의하여 비로소 田園과 自然을 詩의 소재로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陶淵明은 漢代의 詩風을 이어받아 魏·晉의 예스럽고 소박한 詩歌를 이루어 냈으며, 謝靈運은 南朝詩의 화려한 수식의 氣風을 열었다. 이후 初唐까지 별다른 발전은 보이지 않다가 盛唐에 이르러 王維와 孟浩然에 의해 田園과 山水가 하나의 自然으로 인식되면서 山水田園 詩派가 탄생되어 中國詩歌의 새로운 詩風이 이루어졌다.

王維는 魏·晉의 예스럽고 소박한 詩風을 이룩한 陶淵明과 南朝의 화려한 修飾을 추구한 謝靈運의 詩風을 계승 발전시켜 비로소 盛唐 山水詩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창조해 냈다. 어려서부터 시를 잘 짓고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지녔던 王維는 젊은 시절 정치적 포부가 원대하였으며, 초기 벼슬 길에서 좌절을 겪어 관직을 포기하고 隱居할 當時만 해도 濟世救民의 理想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정치적 좌절은 王維로 하여금 점차 소극적이고 隱遁的인 處世의 길로 가게 하였다.

王維가 살았던 時代는 治世와 亂世가 함께 했던 時期이다. 정치적 모순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고뇌했던 詩人이 선택한 길은 자연으로 歸隱하여 世俗을 벗어나고 세상을 達觀하면서 世俗일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현실과 과감한 결별을 단행하지도 못하는 모순 속에서 그는 佛敎에 심취함으로서 현실을 잊고자 하였다.

安祿山의 亂 이후 그의 隱居生活은 거의 佛敎的 생활의 연속이었으며, 그의 自然詩 역시 佛理的 哲學이 담겨진 禪的 情趣를 주로 담고 있다. 그는 佛敎思想을 어찌면 현실과 타협해 나가는 자신의 矛盾을 合理化시키는 한 방편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佛敎思想은 특정한 宗派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에 따라 광범위한 접촉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맞는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다.

동시대의 인물인 杜甫가 現實主義者로서 社會問題에 대하여 깊은 고뇌를 가지고 있었다면, 王維는 社會問題에 대해서는 방관자였다고 할 수 있

다. 王維는 虛無와 寂滅을 지향했으며, 그가 심취했던 佛敎思想은 그의 詩歌藝術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그의 詩歌에는 이따금 諸法皆空의 佛家의 禪趣의 詩香이 풍겨난다. 특히 그의 《輞川集》에 실린 寫景小詩에는 輞川의 아름다운 情景들이 짧은 五言絶句로 景物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함축적으로 묘사되어, 마치 禪의 경지에 들어 간 듯 ‘得意忘言’의 오묘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산수의 형상이 神韻과 시인의 情趣와 완미하게 통일을 이루어내어 意境의 융합을 보여주고 있다.

그가 詩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인생의 桎梏들은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는 어려서 일찍 부친을 잃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친과 어린동생을 부양해야 했으며 30세에 아내를 사별하여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가 자신의 詩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육친간의 정과 친구들과의 돈독한 우정으로 항상 그들을 염려하고, 이별함을 늘 서글퍼했던 시인의 多情多感한 품성은 점점 각박해지는 現代社會에 깊은 示唆點을 던져주고 있다.

王維는 일생을 통하여 官료생활과 隱居生活를 되풀이하며 꾸준히 官理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결코 벼슬생활에서 理想을 성취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젊은 시절의 정치적 포부가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후, 초년과는 달리 소극적 인생관을 지향하면서 산림에 隱居하여 閑寂한 생활로 淸淨心을 키우며 精神的 解脫을 추구했던 고뇌에 찬 知識人이었다. 王維의 詩는 비록 사람을 놀라게 하지는 않지만 그는 다양한 題材를 통하여 그의 禪思想과 自然景物의 묘사를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표현해냄으로써 그의 詩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王維詩에 표현되고 있는 自然情趣와 禪趣는 많은 부분이 佛理와 自然景物이 함께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自然詩에 佛理가, 佛理詩에 自然이 함께 뒤영켜 繪畫的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바로 王維의 自然詩는 禪의 정신이 내포된 自然을 읊은 詩를 포함하며, 禪詩는 自然情趣가 표현된 禪趣를 나타내는 詩를 포함한다. 특히 그는 景物描寫에 뛰어난 繪畫性을 발휘하여 그의 自然詩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詩風은 대체적으로 隱逸生活의 淸淨하고 閑寂한 情趣를 드러내고 있어 沖澹하고 淡泊하다. 또한 그의 詩的 言語 표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함축적이며, 성품이 온유하고 인정이 넘쳐나고 있다. 그의 自然詩 속에는 원망이나 불평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시인의 성품이 온유하고 고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인의 내면적 정신세계가 완숙된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王維의 인생은 정치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나 그의 詩에 나타나고 있는 溫柔하고 淸遠한 詩風은 그의 문학적 성취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고 있다. 특히 自然景物의 詩歌化로 이루어낸 山水田園詩에 있어서는 中國 詩史에 하나의 큰 족적을 남겼음이 분명하다.

어쩔 수 없는 그의 半官半隱의 생활은 處世哲學이 되어 後世 학자들에 의하여 정치에 있어서는 優柔不斷하고, 민생문제에 대한 열정이 결여된 시인으로 폄하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자연을 개인의 고민과 고통을 위로해주는 개인적 해탈의 은신처로 삼았던 王維의 소극적 삶의 태도는 그의 詩史形成에 하나의 흠으로 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王維는 陶淵明이나 謝靈運의 自然歸隱思想과는 또 다른 視覺으로 自然을 보고 느낀 사실 그대로 자신의 감정에 移入시켜, 절제된 언어로 含蓄的인 詩를 써냄으로써, 그의 自然詩는 恬淡閑寂한 情感을 느끼게 한다.

요컨대 그의 自然에 대한 깊은 애착은 自然과 人間의 관계를 새로운 視覺으로 인식하여 禪理를 自然에 끌어들여 淸靜閑逸한 禪的 情趣와 自然風光의 아름다운 景物이 함께 어우러진 抒情을 이루었으며, 자연풍광의 맑고 그윽한 정취와 평화롭고 한가로운 전원경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됨으로써 그의 詩文學은 성공적인 새로운 이정표를 이루었다.

## 주요 참고 문헌

### 一. 단행본

- 가와이고조 지음, 심경호 옮김, 《중국고전시, 계보의 시학》, 서울, 이회문화사, 2005.
- 葛兆光 著, 鄭相弘 외 共譯. 《禪宗과 中國文化》. 서울, 東文選, 1991.
- 葛兆光. 《禪宗與 中國文化》. 上海, 上海人民 出版社, 1996.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1993.
- 郭紹虞 교석, 김해명·이우정 옮김, 《창랑시화》. 서울, 소명출판, 2001.
- 金億洙. 《王維研究》. 서울, 亞細亞 文化社 1986.
- 金鍾太 編, 《東洋畫論》. 서울, 일지사, 1997.
- 金鍾太 編, 《東洋畫論》. 서울, 一志社.
- 김묘주 역주. 《해심밀경》. 서울, 민족사, 2002.
- 김영구. 《중국문학사 강의》.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원중. 《중국문학 이론의 세계》.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김장환 엮음, 《중국문학입문》. 서울, 학고방, 2002.
- 김준연. 《당대 칠언 율시연구》. 서울, 역락, 2004.
- 盧盛江. 《魏晉玄學與中國文學》. 南昌, 百花洲文藝 出版社, 2002.
- 다카사키 지키도 지음, 이지수 옮김. 《유식입문》. 서울, (주)시공사, 2003.
- 譚旦岡 編, 金基珠 譯. 《中國藝術史: 繪畫篇》. 서울, 悅話堂, 1997.
- 董其昌 著, 변영섭 외 共譯. 《畫眼》. 서울, (주)시공사, 시공아트, 2003.
- 賴永海. 《佛道詩論 제1판》.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0.
- 柳晟俊 編 《王維詩選》. 서울, 문이재, 2002.
- 柳晟俊. 《中國唐詩研究, 上·下》. 서울, 국학 자료원, 1994.
- 柳晟俊. 《淸詩話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9.
- 柳晟俊. 《중국성당시론》. 서울, 푸른 사상사, 2003.

- 柳田聖山 著; 서경수·이완하 역. 《불교의 심층심리》. 서울, 현음사, 2002.
- 류창교. 《왕국유 평전》.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5, 5.
- 마이클 설리반 지음, 김기주 옮김. 《중국의 산수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마이클 설리번 지음, 한정희·최성은 옮김. 《중국미술사》. 서울, 예경, 2002.
- 馬華·陳正宏 著, 姜昃範·千賢耕 譯. 《중국은사문화》. 서울, 동문사, 1997.
- 모로하시 데쓰지 지음, 심우정 옮김. 《공자노자석가》. 서울, 동아시아, 2003.
- 무르띠 지음, 김성철 옮김. 《불교의 중심철학》. 서울, 경서원, 1999.
- 문승용. 《建安文學論研究》. 서울, 도서출판 다운 샘, 2004.
- 박경일. 《니르바나의 시학》. 서울, 동인, 2000, 12,
- 박래경 엮음. 《시각예술에서 이미지란 무엇인가》. 서울, 눈빛, 2003.
- 朴三洙 譯註, 《詩佛王維의 시》. 서울, 세계사, 1993.
- 배규범. 《불가시문학론》. 서울, 집문당, 2003.
- 베네데토 크로체 著, 이해완 譯. 《크로체의 미학》. 서울, 예전사, 1995.
- 北京大學·中文系編 《(新編)中國文學史》. 臺灣, 文復書店, 영인본 제 2권
- 謝思煒. 《禪宗與中國文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 徐復觀 著, 權德周 외 옮김. 《중국예술정신》. 서울, 東文選, 2000.
- 성철 편역 《돈황본 단경》. 서울, 장격각, 1988.
- 아서 라이트 지음, 양필승 옮김. 《中國史와 佛敎》. 서울, 신서원, 1997.
- 안동립 역주, 《莊子》. 서울, 현암사, 1999.
- 안병국 편 《唐詩概論》.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1996.
- 야나기다 세이잔 주해, 양기봉 옮김. 《초기 선종사 1·2》. 서울, 김영사, 1999,
- 야나기다 세이잔 지음, 추만호·안영길 옮김. 《선의 사상과 역사》. 서울, 민족사, 1992.
- 楊銜之 지음, 서윤희 옮김. 《낙양가람기》. 서울, 놀와, 2001.
- 楊惠南 지음. 김철수 옮김. 《中觀哲學》. 서울, 경서원, 2001.
- 葉朗 著, 李鍵煥 譯. 《中國美學史大綱》. 서울, 百選文化社, 2000.
- 오가와 타마키 지음, 심경호 옮김, 《당시개설》. 서울, 이회문화사, 1998.
- 오강남. 《장자》. 서울, 현암사, 2003.
- 伍蠡甫. 《山水與美學》. 臺北市,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 76年 11.
- 吳戰壘 著, 유병례 역, 《中國詩學의 이해》. 서울, 태학사, 2003.
- 오태석. 《중국문학의 인식과 지평》. 역락출판사, 2001.

- 王國瓊. 《中國山水詩研究》. 臺北市 聯經出版社業公司, 中華人民 75年 10,
- 王國維 著, 류창교 역주. 《세상의 노래비평, 人間詩話》. 서울, 소명출판, 2004.
- 王夢鷗 著, 李章佑 譯. 《文學概論》. 서울, 明文堂, 1992.
- 王維 撰, 陳鐵民 校注. 《王維集校注 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7.
- 요시카와 코모지로오· 미요시타쯔지 지음, 심경호 옮김, 《당시읽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0.
- 龍樹菩薩 지음. 김성철 譯註. 《中論》. 서울, 경서원, 2005.
- 袁行霈 著, 朴鍾赫 외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0.
- 袁行霈 著, 朴鍾赫 외 共譯. 《中國詩歌藝術研究 下》. 서울, 亞細亞文化社, 1994.
- 유검화 편, 조남천· 김대원 역주. 《중국역대화론: 一般論 ·上》. 서울, 다운샘, 2004.
- 劉若愚 著, 李章愚 譯. 《中國詩學》. 서울, 明文堂, 1994.
- 劉若愚 著, 李章愚 譯. 《中國의 文學理論》. 서울, 明文堂, 1994.
- 劉偉林 著, 沈揆昊 옮김, 《중국문예 심리학사》. 서울, 東文選, 1999.
- 劉義慶 撰, 劉孝標注, 金長煥 譯註. 《세설신어·상》. 서울, 살림출판사, 2001.
- 劉勰 지음, 최동호 역편, 《문심조룡》. 서울, 민음사, 2002.
- 尹智重 編 《唐詩解釋과 鑑賞》. 서울, 글벗사, 1994.
- 이나미 리즈코 지음, 김석희 옮김. 《중국의 은자들》. 서울, 한길사, 2002.
- 이리안 요시다가 지음, 신규탁 옮김. 《선과 문학》. 서울, 장격각, 1993.
- 이마미치 도모노부 著, 조선미 譯, 《동양의 미학》. 서울, 다혼미디어, 2005.
- 李炳漢 譯註 《王維詩選》. 서울, 민음사, 1989.
- 李炳漢 譯註. 《王維詩選》. 서울, 민음사, 1989.
- 李炳漢 譯, 《치자꽃향기 코끝을 스치더니》. 서울, 민음사, 2002.
- 李炳漢 編, 《중국고전시학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李炳漢, 李永朱 譯解, 《唐詩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李崇源. 《서정시의 힘과 아름다움》. 서울, 새미, 2000.
- 이시다미 즈마로 지음, 이원섭 옮김. 《반야, 유마경》. 서울, (주)현암사, 2001.
- 李章佑 教授 정년퇴임 기념사업회. 《중국명시감상》. 서울, 明文堂, 2005.
- 이중표. 《아함의 중도체계》. 서울, 불광 출판부, 2002.
- 李澤厚 著, 權瑚 譯. 《華夏美學》. 서울, 東文選, 1999.
- 李澤厚 著, 尹壽榮 譯. 《미의역정》. 서울, 東文選, 2003.

- 李澤厚 著, 張泰鎮 譯. 《중국미학입문》. 대구, 중문출판사, 2000.
- 李澤厚·劉綱紀 主編, 權德周·金勝心 共譯, 《中國美學史》.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 임종욱. 《동양문학 비평용어사전》. 서울, 범우사, 1997.
- 장기근 엮음. 《전원시인 도연명: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서울, 서원, 2004.
- 張伯偉. 《禪與詩學》. 杭州, 浙江 人民出版社, 1996.
- 張法 著, 유중하 외 옮김.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서울, 푸른 숲, 2003.
- 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中國畫論選集》. 서울, 미술문화, 2004.
- 장언원 외 지음, 김기주 역주. 《중국화론 선집》. 서울, 미술문화, 2002.
- 張晶. 《禪與唐宋詩學》. 北京, 人民文學 出版社, 2003.
- 田望生. 《空山詩魂》. 北京, 華文出版社, 2004.
- 淨覺 著, 박건주 역주. 《楞伽師資記》. 서울, 운주사, 2001.
- 鄭性本. 《禪의 역사와 사상》. 서울, 불교시대사, 2000.
- 齊白石 著, 김남희 옮김. 《쇠뿔화로에서 향내 나다》. 서울, 학교재, 2003.
- 제임스 캐힐 著, 조선미 譯. 《중국회화사》. 서울, 열화당, 2002.
- 존홀 윌록 지음, 박병희 역주. 《시란 무엇인가》. 울산시, 울산대학교출판부, 2000.
- 鍾嶸 撰, 林東錫 譯註. 《詩品》. 서울, 학교방, 2003.
- 朱光潛 著, 孫貞淑 譯. 《美學入門》. 서울, 형설출판사, 1994.
- 朱光潛·鄭相泓 譯. 《詩論》. 서울, 東文選, 2003.
- 周來祥 著, 남석헌·노장시 옮김, 《中國古典美學》. 서울, 미진사, 2003.
- 周裕鍇. 《中國禪宗與詩歌》. 上海, 上海人民 出版社, 1991.
- 周勳初. 《중국문학 비평사》. 서울, 중국학 연구회 고대 문학 분야 엮음, 이론과 실천, 1994.
- 陳文華. 《唐詩史案》. 上海, 上海古籍 出版社, 2003.
- 陳伯海 著, 李鐘振 譯. 《唐詩學의 이해》. 사람과 책, 2001.
- 陳允吉 지음, 일지 옮김. 《중국문학과 禪》. 서울, 민족사, 1992.
- 陳允吉. 《古典文學佛教溯緣十論》. 上海, 復旦大學 出版社, 2002.
- 陳傳席 著·安永吉 譯. 《傳抱石》. (주)시공, 시공아트, 2004.
- 陳鐵民. 《王維新論》. 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2.
- 陳洪. 《佛教與中國古典文學》. 天津, 天津人民 出版社, 1993.

- 車柱環. 「중국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蔡儀主 編, 姜慶鎬 譯. 《문예미학》. 서울, 東文選, 1989.
- 川勝義雄 著. 임대희 옮김. 《中國의 歷史: 魏晉 南北朝史》. 해안, 2004.
- 최재혁 편 《중국고전 문학이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5.
- 平川彰·梶山雄一·高崎直道 編, 윤종갑 역. 《中觀思想》. 서울, 경서원, 1995.
- 프레데릭 J. 스트랭 지음, 남수영 옮김. 《용수의 공사상 연구》. 서울, 시공사, 1999.
- 《韓國佛敎大辭典》. 서울, 明文堂, 1999.
- 한양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엮음. 《중국 명·청시대의 문학과 예술》. 최일의 <신의 개념분석과 意境의 特徵 검토>, 2003, 3.
- 胡應麟 著, 기대완 외 역주. 《홍응린의 역대 한시 비평》.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 洪瑀欽. 《漢詩論》. 경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4.
- 皇甫謐 지음, 김장환 옮김. 《고사전》. 서울, 예문서원, 2000.
- 후루타 쇼킨·다나카료쇼 지음, 남동신·안지원 옮김. 《혜능》. 서울, 玄音社, 1993.

## 二. 논문



- 金億洙. 〈王維研究〉. 《論文集》 第 27輯, 공주사범대학, 1989.
- 金銀雅. 〈王維의 初期 ‘行’詩考〉. 유원 金喆洙教授停年紀念 《中語中文學論叢》. 1997, 8.
- 金在乘. 《王維詩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金周淳. 〈‘桃花源詩并記’ 創作背景의 研究〉, 《中國語文學》 第 39輯, 2002, 6.
- 金周淳. 〈陶淵明의 文學思想〉, 《中國語文學》 第 11輯.
- 金昌煥. 〈中國隱逸文化的 類型考〉, 《中國文學》 第 34輯.
- 김종미. 〈遊의 정신과 동아시아 미학〉,
- 柳晟俊. 〈王維生平與道佛之關係考〉, 《教育論叢》 學國外國語 大學校 教育大學院
- 朴美子. 〈孟浩然的 自然詩에 관한 考察〉, 《中國語文學》 21권, 영남중국어문학회, 1993, 1.
- 朴三洙. 〈詩佛王維의 苦惱初探〉, 《中國語文學》 第31輯, 영남중국어문학회, 1998, 6.

- 朴三洙. 《王維詩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4.
- 朴三洙. 〈王維詩風格淺攷〉, 《中堂丁範鎮教授六秩頌壽紀念論叢》.
- 朴三洙. 〈王維의 家族愛淺論〉, 《中國文學研究》 第19輯, 한국중문학회, 1999, 12.
- 朴三洙. 〈王維自然詩形成의 詩史的 背景〉, 《中國語文學》 第 21輯, 영남중국어  
문학회, 1993, 6.
- 朴永煥. 〈蘇軾禪詩에 나타난 空觀 고찰〉, 《中國學論文》. 중국문학연구, 2000, 12.
- 배다니 엘. 〈중국 자연시와 위즈워드 자연시에 나타난 자연과 서사 비교〉,  
《中語中文學》 第 30輯,
- 변성규. 〈隱逸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金學主教授 停年紀念論文集》, 서울, 신  
아사, 1999, 2. 1冊.
- 孫貞淑. 〈中國繪畫의 文學性〉, 《中國語文學》 第 3輯.
- 李東鄉. 〈謝靈運과 王維의 山水詩比較研究〉, 《中國文學》 第 33輯, 1998.
- 이용재. 〈王維詩에 나타난 ‘달(月)’ 이미지考〉, 《中國文學理論》 第 3輯, 서울, 도  
서 출판 역락, 2003, 12.
- 임원빈. 〈佛敎(禪宗)文化와 唐末의 詩歌〉, 《中語中文學》 第32輯, 한국중어중문  
학회, 2003, 6.
- 鄭愚烈. 〈陶淵明과 謝靈運의 歸隱思想〉, 《中國語文論集》 第 8輯, 1993, 12.
- 崔雄赫. 〈陶淵明의 ‘閑情賦’ 考〉, 《中國學研究》 2권 중국학연구회, 1985, 5.
- 彭雅玲. 《唐代詩僧의 創作論研究》, 國立政治大學中文研究所, 博士學位論文, 中華  
民國 60年, 6.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開元六年	開元五年	開元四年	開元三年	開元二年	開元元年
戊午	丁巳	丙辰	乙卯	甲寅	癸丑
718	717	716	715	714	713
18	17	16	15	14	13
哭祖六自虛	山東兄弟 九月九日億	洛陽女兒行	題友人重母 障子 過秦五墓		
		裴迪生			
能。遇於洛陽、各違其	李思訓卒六、年六十。吳道子、張旭、裴旻可能於此頃	盧鴻應詔至洛陽、同年辭官返嵩山。吳道子年廿六、玄宗幸洛陽時被召入宮。	玄宗詔徵盧鴻。內庭供奉、寫御容	李思訓年六十一封左武衛大將軍。曹霸始得名。陳閔爲	陳義工善寫貌。玄宗少與之善。
		李憲封寧王。	父死		慧能死王維後爲作能禪師碑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開元十三年	開元十二年	開元十一年	開元十年	開元九年	開元八年	開元七年
乙丑	甲子	癸亥	壬戌	辛酉	庚申	己未
725	724	723	722	721	720	719
25	24	23	22	21	20	19
	濟州趙叟家宴 濟上四賢詠	州 早入榮陽宿鄭 魚山神女祠歌 被出濟州 江東 送邱爲落第返 送綦母潛落第 送綦母潛落第		燕支行	息夫人	桃源行 李陵詠 清如玉壺冰
	在濟州	錄事等四人 結交。 濟州。與崔 盧象訂交。 上半年在長 安與綦母潛	在長安	狀元及第。 此年、或次 年授太樂丞		京兆府試 舉解頭
	李頎進士 及第。 祖詠進士 及第。	崔灝進士 及第。 皇甫冉生	錢起生	薛據進士 及第。同 年或次年 授永樂主 簿。		
	吳道子年 三十四、 與陳閔章 無忝合作 金橋圖	正殿諸學 士、因女 宗東幸而 止。	楊寧爲史 館畫直。 韓滉生。 法明嘗奉 旨寫貌麗	此頃畫洛 陽敬愛寺 西禪院壁	馮紹正爲 戶部侍郎	盧鴻可能 於此年、 或者後數 年間作草 堂圖。
						李嘉裕生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開元十年 九年	開元十年 八年	開元十年 七年	開元十年 六年	開元十年 五年	開元十年 四年
辛未	庚午	己巳	戊辰	丁卯	丙寅
731	730	729	728	727	726
31	30	29	28	27	26
			登河北城樓作 歸嵩叅作	過乘如禪師 蕭居士嵩邱蘭若 寒食汜上作。 雜詩	喜祖三詠留宿 。濟州官舍贈 祖三。淮陰夜 宿。夜到潤。 京口球別。 下 弟妹。休假還 晉長庚更
此頃或以 後數年作 黃梅出山 圖及維摩 詰像			此頃或次年作 孟浩然像		
	王維妻亡。 此年或次年 始從大德道 光禪師習禪		經黃河轉渭 水返長安。	隱於嵩山。 離山後經汜 上至孟津。 此年或去年 始與道家人 物交往。	上半年在濟 州、下半年 辭官至越探 弟妹。道經 淮陰丹陽後 隱於嵩山。
杜甫年二 十。遊吳 越。王昌 齡年三十 八、中博 學宏詞科 遷校西郎		孟浩然於 去年或此 年返襄陽 隱於鹿門 山	孟浩然年 四十至京 師與王維 訂交。識 殷遙	王昌齡、 皇甫冉進 士及第。	儲光羲綦 母潛及第 。祖詠赴 汝州依王 維。曾訪 維於濟州
			此頃陳闥 任永王府 長史	張諱時隱 於嵩山	與盧鴻、 張諱訂交 。於嵩山。
	張說卒、 年六十四、 歲。			顧況生。 郎士元生。	李白由蜀 而鄂、去 安陸。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開元二十二年	開元二十一年	開元二十年
甲戌	癸酉	壬申
734	733	732
34	33	32
京兆尹張公德政碑	上張令公詩	
此頃開始 水墨畫	此頃爲崔興宗畫像	
王昌齡年 始在長安、 四十一、 與王維訂 交。維與 其弟縉、 裴迪及昌 齡同遊長 安青龍寺	孟浩然由 襄陽去廣 陵	
朱抱一直 集賢。張 諱半隱於 終南。		
崔興宗半隱 於終南。		
晁衡隨遣 唐使多治 比廣城返 日途中 船因風漂 至南海崑 崙、後再 度返唐。 張九齡爲 中書侍郎 同中書門 下平章事 加銀青光 祿大夫守 中書令集 賢院學士 安眞卿。進 士及第。	劉長卿進 士及第。 遊長安。 年秋李白 訂交。同 然(時年 四十五) 陽於孟浩 陽於孟浩 李白天三 十三至襄 陽於孟浩	戴叔倫生 。神會於 滑臺大雲 寺定南北 二宗之無 遮大會。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開元二十六年	開元二十五年	開元二十四年	開元二十三年
戊寅	丁丑	丙子	乙亥
738	737	736	735
38	37	36	35
爲崔常侍謝賜表。讚佛文。西方變畫讚。爲崔常侍祭牙門姜杼軍文。出塞作。新秦郡松樹歌	至黃川嶺見黃花川。青溪隴頭吟。涼州賽神。涼州郊外游望使至塞上		獻始興公詩
 <span>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span> <span>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span>			
五月崔希逸爲河南尹維繞道甘州至居延施返涼州或受命崔希逸爲請朔方節度使及安北都護府嚴防突厥與迴紇而北上河套繼經榆林而返長安	任監察御使於崔希逸幕中、自長安經大散。天水而至涼州		
	張九齡在荊州任所辟孟浩然爲從事、與之唱和		
日人晁衛仲麻呂自山東登州啓航返	四月張九齡左遷荊州大都督府長史。李林甫晉爵晉國公	李白經洛陽、襄陽返安陸。十一月張九齡充右丞相。後罷政事。韋應物生。	李白由安陸北遊太原。李頎進士及第。張九齡加金紫光祿大夫封始興縣伯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天寶二年	天寶元年	開元二十九年	開元十八年	開元十七年
癸未	壬午	辛巳	庚辰	乙卯
743	742	741	740	739
43	42	41	40	39
贈苑舍人 重酬苑舍人 任城縣尉裴府 君墓誌銘	三月三日曲江 侍宴應制。和 僕射晉公區從 溫湯。春日值 門下省早朝	同盧拾遺韋給 事東山別業二 十韻	哭孟浩然 漢江臨汎 渡河到清河	送岐州源長史 歸。大薦福寺 大德道光禪師 塔銘
			此頃前後 作高僧圖	
	此頃略後歷 任左補闕、 庫部員外郎 、庫部郎中	與盧象韋字 同遊韋嗣立 東山別墅	任殿中侍御 史赴襄陽。 又自襄陽至 武漢、順長 江入蜀而至 巴州、復北 上經褒斜道 而返長安。	
二月慕母 潛棄官還 江東。王 維、李頎 、王昌齡 相送白馬 寺。王昌 齡出爲江 寧丞。岑 參作送王 赴江寧詩	王昌齡年四十 九貶江寧丞。 慕母潛猶在長 安。此頃祖詠 退隱汝墳	杜甫自山 東返洛陽	孟浩然卒 於襄陽、 年五十二	
	此頃或次 年鄭虔任 協律郎。	去年或次 年頃鄭虔 獻畫玄宗 。上題鄭 虔三絕	鄭虔任廣 文館學士 。吳道子 年五十。 畫鳳翔府 開元寺大 殿後壁	
		寧王李憲 薨。	五月、張 九齡卒、 年六十三	道光禪師 卒。 崔希逸卒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天寶八年	天寶七年	天寶六年	天寶五年	天寶四年	天寶三年
749	748	747	746	745	744
49	48	47	46	45	44
乙丑	戊子	丁亥	丙戌	乙酉	甲申
公輓歌 故太子太師徐 眞容表 賀玄元皇帝見 望應制 聖觀與宰臣同 奉和聖製登降	歌應制詩 天長節賜宰臣 事奉和聖製 使賜樂敢書恩 百官共觀聖恩 龍池上有慶雲 大同殿生玉芝 賀古樂器表	起請露布文 河西序。兵部 高判官從軍赴 公德政碑。送 魏郡太守河北 訪處置使採苗			
 <span style="font-size: 24px; font-weight: bold;">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span> <span style="font-size: 18px;">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span>					
					隱於淇上
及第 適有道科 洛陽。高 ~杜甫遊 碁母潛卒	殷遙卒	薛據中風 雅古調科	房瑄 至長安謁 潛自洛陽 安。碁母	杜甫至長 濟州 從李邕遊 夏、杜甫	陽。訂交於洛 白年四十 十三、李 杜甫年三
阿陪麻呂返日 芝幕中書記。	李嘉祐進士 及第		房瑄任給事中 安祿山兼御史 大夫	秋李白與杜甫 袁州相逢	陳希逸繼李林 甫爲相。賀知 章卒。安祿山 兼汜陽節度使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天寶十二年	天寶十一年	天寶十年	天寶九年
癸巳	壬辰	辛卯	庚寅
753	752	751	750
53	52	51	50
崔漢陽兄季重前山興詩	敕賜百官櫻桃		賀神兵助取石堡城表
 <b>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b>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此頃或略後任文部郎中		母崔氏卒。維於此春丁憂。
		李頎卒、年六十二、錢起進士及第。	
			鄭虔任廣文館博士
再入唐。南仲麻呂吹漂至安中船爲風返日。途蘇州啓航仲麻呂自安。阿陪衡山至長湖。南長沙瑗上人自	塔安慈恩寺據同登長高適、薛、岑參、秋、儲光羲、杜甫	使河東節度安祿山兼於宮中。任侍衛物年十五安。韋應仙芝至長岑參隨高	

唐肅宗	唐肅宗	唐玄宗	唐玄宗	唐玄宗
乾元元年	至德二年	天寶十五年 至德元年	天寶十四年	天寶十三年
戊戌	丁酉	丙申	乙未	甲午
758	757	756	755	754
58	57	56	55	54
輞川開居贈表 秀才迪。歸輞 川作。輞川開 居。積雨輞川 莊作輞川別業 與工部李侍郎		口號示裴迪。 菩提寺禁裴迪 來相看說逆賊 等凝碧池上作 音樂供奉、等 學聲便一時淚 下私成口號誦 示裴迪		同崔興宗送 瑗公。送衡 岳瑗公南歸 詩。
	此頃許作 四皓圖			
	邱爲、王維 與皇甫冉同 詠左掖梨花	被安祿山所 俘、禁於洛 陽菩提寺。		
	藍田輞川 訪王維於	裴迪探禁 菩提寺	王昌齡卒	崔灑卒
	州。鄭虔貶台	曹霸封左 武衛將軍 。鄭虔亦 爲安祿山 所俘。		天寶末、 玄宗時詔、 曹霸寫於 容及功臣
	崔藍宗隱 於藍田、 杜甫訪王 維時亦嘗 訪之			
	賈至任中 書舍人。 岑參任右 補闕。	郭子儀光 復長安。 皇甫冉、 郎士元進 士及第。	安祿山反 。六月玄 宗幸蜀 十二月、 洛陽陷賊	此頃瑗上 人返衡山 。岑參去 北庭。皇 甫冉、韓 翹進士及 第。安祿 山任左僕 射。楊國 忠任司空

唐肅宗	唐肅宗	唐肅宗	唐肅宗
上元二年	上元元年	乾元二年	乾元元年
辛丑	更子	己亥	戊戌
761	760	759	758
61	60	59	58
送邢桂州。 謝弟縉新授左 散騎常侍狀	爲幹和尚進註 仁王經表 門下起赦書表 恭懿太子輓歌	別輞川別集輞 川集相國王公 紫芝木瓜讚。 送韋大夫東京 留守詩。請迴 前任司職田栗 施貧人粥狀	書爲舜閣御 題。大通大照 和尚塔額表。 謝除太子中允 表謝集賢學士 表和曹舍人早 朝大明官既蒙 宥罪旋復拜官 、伏感聖恩竊 書鄙意兼奉簡 新使君等諸公
			輞川圖 十二年作 此頃或後
七月、卒		右丞。 七月轉尚書	授太子中允 、遷太子中 庶人、中書 舍人、再拜 給事中。始 居藍田輞川 莊
夏、杜甫 離蜀州返 成都	杜甫由成 都赴蜀州 依高適此 頃裴迪與 杜甫聯遊 盧象卒 <sup>2</sup>	儲光羲卒 。七月杜 甫棄官去 秦州十月 往回谷、 十二月入 蜀至成都	盧象訪王 維於藍田 輞川莊。 冬、杜甫 自長安至 洛陽。裴 迪客輞川 莊
		張志和在 此頃與顏 眞卿訂交 於吳興。 志和以逸 格作漁歌 圖。	吳道子年 六十九、 尚在人間
	崔興宗離 長安赴蜀		
	高適任蜀 州刺史	安眞卿於 此年浙江 節度使、	李白被放 夜郎。韋 應物或在 此頃入太 學。

<abstract>

A Study on Nature's Charms and Contemplation in Wang Wei's Poems

Kwak Kyung Lip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y

Wang Wei(王維) is known as *the* poet who founded a school of poetry for scenic, pastoral beauty in Chinese mountains, rivers and fields. He recited about the Chinese scenic, pastoral beauty passionately. He was also an outstanding landscape painter held in veneration as a founder of namjongwha(南宗畫: a sect of Chinese old paintings) by Dong Qi Chang(董其昌) in the Ming Dynasty. He made Mo Jie(摩詰), an ascetic who had practiced Buddhist austerities at his home as well as the hero of the book, Wei Mo Jing(維摩經), as his nom de plume, which means he was wholly devoted to Buddhism.

It is in the nature poems of his own that the natural charms of the landscape and the profound principle of contemplation are depicted picturesquely.

The days of his life were in turbulent times on the one hand and peaceful ruling period on the other. He cherished an ambition to take part in the affairs of state as a young man. He was, however, completely absorbed in Buddhism after feeling frustrated in politics. He was trying to pursue the mental liberty by sublimating external problems inward which he faced as a bystander. Then he freed himself from worldly trouble, retired to hermitage in the country and led a secluded life.

When he felt harassed by earthly passions, Wang Wei found the

mental solace in the hills and rivers, which were meant to him an object of contemplation as well as a place to relieve himself from anxieties. Contemplating nature and enjoying the beauty of hills and rivers gave him tranquility and led him to a state of deep contemplation. Wang Wei spent his later years absorbing himself in Buddhism and seeking after natural tranquility while idling away his time. Therefore, the natural charms in Wang Wei's poetry can be regarded as being at leisure and comfort. During the period of the Great Tang Dynasty, Buddhism so flourished that men of both a noble family and letters were absorbed deeply in the contemplation of Mahayanist Buddhism. Wang Wei was not an exception.

Studying on Wang Wei's contemplation philosophy helps us grasp the world of letters as well as the trend of the times.

This study has analyzed the artistic beauty and characteristics found in his natural, contemplative poems, which is his major literary trend.

Tao Yuan Ming(陶淵明)'s pastoral poems and Xie Ling Yuan(謝靈運)'s landscape ones, which appeared simultaneously in the era of the Southern & Northern Dynasty, Wei, Jin, formed the matrix of Chinese pastoral landscape poetry. The poems, which had not shown any chief distinctions until then, came into being as nature poetry, which is combined with pastoral landscape poems by Wang Wei and Meng Hao Ran(孟浩然) during the era of the Greatest Tang Dynasty. Wang Wei, who had composed poems well and been proficient in painting and music as a child, was frustrated in his early official career. After wandering about in contradictions of life, he tried to find out the mental freedom by retiring to nature and taking a philosophical view of earthly life. However, he didn't drop his acquaintance with the earthly life resolutely, leading a contradictory life of serving as a public servant on the one hand

and living a secluded life on the other, and then being gradually absorbed in Buddhism. Therefore, the nature poems of his later life include lots of poems filled with Buddhist philosophy. His Buddhism was not confined to a specific denomination; on the contrary, he extended the scope of his knowledge widely to all the Buddhism principles including the southern & northern sects; he was receptive to the Buddhism suitable for his ideal. In other words, Wang Wei took advantage of Buddhism as a means of rationalizing the way that he was ingratiating himself with the realities of life.

It is nihilism and desolation that Wang Wei tried to seek after. Buddhism, which exerted such great influence on his poems that you can feel sometimes 'view of emptiness' or Buddhist contemplation, was well imprinted on his poems. Large parts of natural charms and contemplation expressed in Wang Wei's poems represent the mixture of Buddhist principles and natural features of the season. The style of his poetry can be said to represent such natural charms as being perfectly clear, quiet and idle, which also means that his poetry is neat and tidy as well as suave and meek.

Wang Wei's poetic words are full of such implication and meaning that we can feel the poet's inner world came into full maturity because his temperament seems to be meek and noble.

Wang Wei looks at nature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which is contrary to Tao Yuan Ming and Xie Ling Yun's thought on a sequestered life.

When we read Wang Wei's poems, which give a vivid description of nature, we can see that his poems have no desire, express a serene state of mind and let readers feel tranquil and idling. Wang Wei's nature poems have a tender feeling for the rural landscape

peaceful, idling and solitary as well as the great scenic beauty. In addition, since he has a sharp eye for the scenery, he can catch hold of distinguishing features of natural beauty and express in terse style, so that readers are reminded of something endless. Therefore, readers can feel the contemplating meaning is combined with poetical sentiment and artistic merit of a picture exquisitely in his nature poems.

He retreats to nature, assumes the attitude of an onlooker about the world and regards nature as a hiding place delivered from worldly existence. The way of his passive living came to leave a flaw in his poetry history. However, the poet considered nature in relation to human beings, spoke for the contemplating meaning and artistic merit within natural beauty, applied a new view of natu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concepts to a creation of poetry in the Chinese poetic history and accomplished a world of lyric poetry, in which human beings are associated with nature.